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木)

元旦·宮中의御儀

昭和聖代十二年의 新春을 마지 大內山의 慶事스러운 元旦。天皇陛下께압서는 黎明 아즉도 밝기前인 午前五時三十分에 벌서 御淨身하압시고 黃櫨染 御袍의 御束帶로 御笏을 御手에 三條掌典長의 御先導로 神嘉殿의 南庭에 나압시와 四方拜의 御儀를 行하압시고 午前[illegible]時 陛下께압서는 賢所大前、皇靈殿、神殿에 御拜하압신後 午前七時半 鳳凰의 間에 出御、朝餐을 바드시압실터이다。午前十時에는 大勳位菊花章頸飾을 御佩用하압시고 皇后陛下와 御同列하시와 鳳凰의 間에 出御 秩父宮同妃、高松宮同妃、三笠宮各殿下를 爲始하야 各皇族에게 御對面、拜賀를 受하압신後 正殿에 出御、廣田首相以下 親任官等에게 拜賀를 受하압실터이다 또 十一時勳任官等 有資格者의 拜賀가 잇고 午後一時半에는 [illegible]國大使 [illegible] 各國使臣同夫人等의 拜賀를 受하압실터인데 二日에도 有資格者에 對하야 拜賀를 受하압실터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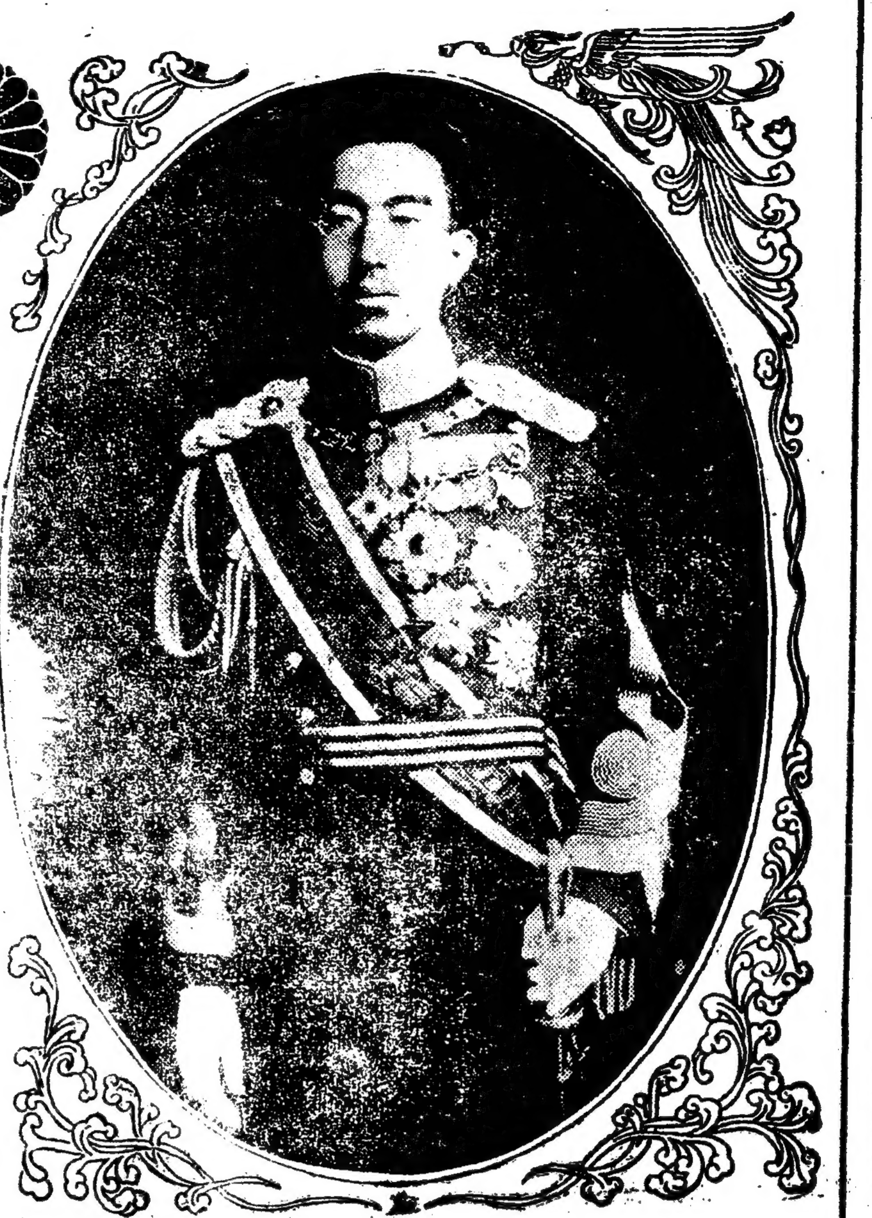
또 大宮御所에 계압신 皇太后陛下께압서는 此日午前九時부터 午后四時까지 廣田首相以下 文武百官의 伺候參賀를 受하압실터이다。

謹賀新年

昭和十二年一月一日

朝鮮日報社

朝鮮日報社員一同



物心兩面의 開拓

官廳의 施設만으로는 不足

南總督의 年頭辭

皇華가 빗나매 玆에 昭和第十二의 新春을 마지하야 寰內二千三百萬同胞와 함께 삼가 聖壽萬歲를 壽祝하고 皇運의 隆昌을 奉祈한다

皇國의 前途는 上으로 聖天子의 御稜威와、下로 國民의 一致協力에 依하야、光輝燦灼하고 肇國의 大義를 宇內에 宣揚하는 武步 날로 새로운것은 寔로 同慶至極이다

도리켜 世界의 狀勢를 概觀하면 반드시 靜謐和平하지 안코 歐洲政局은 特히 混沌이야 將來의 形勢는 각각이 豫測하기 難한 情況을 呈하여잇다。伊에 戰爭의 結末은 國際聯盟의 機能을 더욱 減殺케하고 中立小國의 不安은 增大되여 國際政局의 불리化를 招來하는 趨勢를 示現하게되엿다 코민테른의 人民戰線主義에 依한 世界赤化策과 澎湃한 國民主義思潮와의 對立은 間間 西班牙內亂을 機端으로 抗爭情勢를 激化하야 餘波는 마츰내 歐洲로 하여금 英、伊를 中心으로한 諸小邦과 佛蘇를 中心으로한 諸小邦의 連衡까지 實現될 形勢를 示하고잇다。此時에 當하야 隣邦中國은 依然內爭이 끈칠사이가 업서 政局은 恒常不安에 싸여잇고 民衆은 [illegible]에 빠저 國力은 逐日減殺되고 더욱 最近 西安에 赤化軍閥의 兵變이 이러나 今後의 事態는 益益混沌한 局面이 [illegible] 되다。

大釜 恒久平和의 實現이 人類究竟의 理想임에도 不拘하고 事實에 잇서서는 國際間의 紛爭軋轢은 容易히 終熄되지 안코 地球上資源配分의 偏倚에 對한 不滿이 多하고 經濟的利害의 錯綜이 잇는 反面에 共産主義思想에 依한 世界制覇를 企圖하는 策謀가 伏在하는 戰爭의 脅威는 容易히 이를 避하기 難하야 二十年前의 大戰이 收得치못한 眞正한 平和法則을 世界에 樹立할 날은 아직도 前途遼遠한바잇다

我帝國은 이 險惡한 情勢에 處하야 世界의 禍亂으로부터 東亞의 安定을 保護하는 使命에 邁進하야 滿洲國과 提携하야 東洋平和의 基礎를 確立하고 더욱 中國의 自覺을 促하야 其國民의 安寧幸福을 翼贊하고잇스며 그리고 [illegible]는 日獨防共協定을 締結하야써 恒久平和의 新機構를 確立하기에 努力하고 잇는데 事實이 使命의 重[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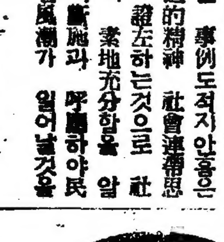
我朝鮮은 所謂第二四半世紀의 第二年을 마지하게되엿는바 只今 旣往의 事歷을 回想하고 將來의 飛躍을 想望하매 感慨의 湧然한 바잇다。

世界各方面에 잇서서 外地行政에 不斷한 苦楚를 맛보아온 歐洲各國은 我朝鮮의 施政結果에 危惧의 念을 抱懷하고 幾多의 悲觀的豫測도 잇섯스나 事實은 이것을 全히 杞憂로 終了케하야 도리혀 世界에 無類例의 外治의 範을 示하게 된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이것은 我列聖의 御稜威에 依한것임은 勿論[illegible] 四表에 光被하는 御聖德下에 宇內에 宣揚하려는 皇道政治의 理想은 그 覇道와 [illegible] 歐米流의 植民地行政과는 全혀 그 趣를 달리한다 그리고 이大[illegible]

[illegible] 成의 道程이 立하야 官民諸君과 함께 決意를 一新하게하여야할 것이다。

朝鮮經濟가 原始産業의 段階에서 新時代産業의 段階에 移行하야 玆에 農工併進의 時期를 迎한것은 顯著한 事實로 이 情勢야말로 半島의 將來에 一層 光明을 齎來할것이라고 思惟한다 朝鮮에서는 農業을 改善할 餘地가 아직도 만코 나적어도 帝國産業의 重要한 一翼을 擔任하는 以上 此部門만에 局限할 배가 아니다。幸히 朝鮮의 處女的資源은 이제 開發의 時에 際하야 春來하야 花草가 一時發하는 格으로 國策의 要求에 應한 各種 多彩的工業이 勃起하야 世界文明國이 모두 失業難에 苦悶하는 此際、勞資共榮、[illegible] 實로 天[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年頭所懷

政務總監 大野綠一郎

昭和丁丑年頭、東拜하고 大內山의 瑞色을 想하면서 伏하야 皇室의 御繁榮을 奉祝한다 我朝鮮은 始政以來二十七年、[illegible]

[illegible]

年頭辭

警務局長 三橋孝一郎

[illegible]

朝鮮日報社의

少年雜誌刊行

本社는 言論機關으로서 立脚的 完備를 圖하는 同時에 그 機能을 一層 擴充코저 再昨年十一月 出版部를 創設하고 女性雜誌 『女性』과 『朝光』을 順次로 發刊한以來 滔滔한 그 人氣는 우리 讀書界를 席捲하엿고 嘉然한 그 聲勢는 俄然 雜誌界의 王座를 征服하야 出版界에 잇서서 그 對比를 찾지못할 新記錄을 지엇다。

大衆的 知識給養의 兵站部로 自任하는 我社出版部는 旣刊된 兩大雜誌로서 滿足을 가질수 업는 同時에 우리 社會의 熱烈한 期待는 出版陣容의 再飛躍을 强要케되여 今春四月부터 『朝光』과 『女性』의 姉妹誌로 少年雜誌 "少年"을 發刊케 되엿스니 이는 우리 二世 大衆에게 드리는 奉仕의 一端이요 "어린이朝鮮"의 實力涵養에 無二한 補材가 될것을 自期하는바이다。

雜誌는 新聞과함께 近代化의 兩大支柱로 言論指導를 當하는者로 所擔任務의 分野는 [illegible] 我社出版部가 七百萬 少年少女 大衆게 雜誌 "少年"을 이바지하는바도 職能과 使命을 보담徹底化하고 大衆化하자는 그 意義가 [illegible] 워질것을 自負하는바이니 [illegible]

少年朝鮮日報

本社는 創刊以來 操觚事業以外 우리社會의 文化開發에 精進이 되는바 多種多樣의 文化事業을 爲하야 主催、或은 後援等으로 形式에 拘碍업시 微力을 다해 오리이다。個中에도 『幼稚園聯合園遊會』『初等校聯合學藝會』『어린이날』『學生作品展覽會』『少年少女를 中心한 文化事業에 잇서서는 格別한 關心을 가지고온것이다。

그리하야 本紙 家庭面에는 그날그날 『어린이란』을 두게되고 日曜마다는 少年[illegible]을 發刊하야 귀여운 우리어린이들로부터 『우리조선일보』란 親愛를 받고 이와가티 우리 어린이들의 愛心에서 우러나오는 귀여운 讚辭를 一이라도 報答하는뜻으로 本社로서는 過重한 犧牲을 도라보지안코 今月十日부터 "少年朝鮮日報"를 刊行하게되엿다。

"少年朝鮮日報"의 發刊規定으로는 每日曜마다 附錄으로 어엽분 "타블로이드"型 四頁을 發刊할터인바 嶄新한 編輯과 有用한 內容으로 우리 少年少女들의 科外敎材로 十分의 滿足을 드릴것을 期하는바이다。

"少年新聞"! 이는 아즉 [illegible] 界에잇서서 손을 내여미[illegible] 한 處女地域으로 本紙[illegible]

本社工場增築

本社는 革新以後 해를 거듭할수록 紙面의 擴張과 內容의 刷新을 飛躍的으로 斷行하야 "보기조흔新聞" "읽기조흔新聞" "有益한新聞"을 만들기에 加速度的努力을 해왓다。

그리하야 이제 隆昌의 一路를 걷고잇는 本社로서는 벌서 再昨年에 社屋을 新築하는 同時에 設備를 全幅的으로 改備하야 擴張되여가는 社務의 [illegible] 社屋 新築 不出數年에 벌서 工場은 [illegible] 其他 附屬機械의 繼續增設로 狹窄에 狹窄을 늣기게되엿스니 不得已 今年中에 工場增築을 計畫하게되엿다。

本社工場은 [illegible] 現代機械文明의 精華를 다하야 이미 大偉觀을 보이고잇는터인바 今般 本社 新年三大事業의 하나로 工場을 增築키된것은 本社의 發展과 隆昌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證左가 될터이니 이는 本社로뿐만아니라 [illegible] 者들과 함께 盛運을 同慶하는 바이다。

新年三大計畫

社說

新年에際하야 大覺醒、大奮發을促함

一

昭和十一年은가고 昭和十二年은왓다. 丁丑年은 交前의 丙子年大水害의 慘禍가 아직 그대로 남은 해요, 長老教系 百數十學校가 存廢의 分岐路에선 해요, 다시 朝鮮一般教化의 具現으로서의 四億三千萬圓이란 交前의 大豫算이 朝鮮에 實施되는 해다. 即社會上、教育上、財政上 一大試煉의 해다. 同時에 一九三七年은 世界列强이 締結했든 華府、倫敦兩條約이 失効되어 海軍無條約狀態를 목하는 第一年이오, 羽翼이 로카르노條約을 廢棄한지 第一週年을 마슴하며, 에디오피아帝國이 伊太利王國에게 併合된지 一年이 되는해요, 西班牙의 動亂으로 歐洲의 人民戰線派對 파쇼戰線派의 抗爭이 尖銳化한채로 繼續한 해며, 日獨防共協定, 日伊協定으로 國民戰線派의 勢力이 極東에까지 擴大된 第一週年이다. 即世界的 危機가 增大하는 해다. 딸아 今年은 丙子의 災年보다도, 一九三六年의 危機보다도 一層 多事多難할것을 豫想하는 해다. 그러므로 今年은 朝鮮의, 또 世界의 非常時가 一步 進展하는 해라 할수잇다.

二

그러면 우리는 이 進展하는 非常時에 잇서서 무엇을 할것인가.

첫재 우리는 社會奉仕主義로 살것이다. 社會는 互相連帶關係를 가젓다. 그리하야 吾人의 社會的 行動은 全社會人과 關聯되어잇다. 萬一 一人이 社會的 罪惡을 犯하얏다하면 그 影響은 곳 그 社會全體에 미칠지오, 一人의 社會的 功果가 잇섯다면 그社會는 그만침 利益을 바들것이다. 그러므로 各人은 各各自己의 社會에 關聯한 義務를 가젓다. 그런데 最近 社會情勢를 보면이 社會奉仕主義가 薄弱해가고 現金主義的 物質思想이 全社會를 風靡한다. 그러므로 地位를 爲하야는 節操와 信條를 弊履가티 버리고 金錢을 爲하야는 義理와 親分을 一朝에 斷絶하나니 이러하면 어찌 一家族이라도 幸福을 求할수 잇스며 一社會의 繁榮을 期待하리오. 耶蘇와 釋迦와 孔子는 當時의 腐敗한 社會를 救濟할수가 업섯지만 그들의 博愛와 慈悲와 仁이란 社會奉仕的 精神은 길게 後世에 남어 數千年以後의 今日의 社會에까지 그 道德的指標가 되엇다. 萬一 眞實로 社會奉仕的 精神에 指導되는사람만 잇다면 災害는 富豪의 힘으로 救濟할것이엇스며 學校도 어떤 形式일지나 存續될것이오, 戰爭도 征服도 업시 平和히 解決될것이다.

三

둘재 우리는 어떠한 한計畫을가지고 實行할것이다. 무릇事業의 成就는 一朝一夕에 되는것이 아니오, 一定한 計畫과不斷한 努力에 依하야 되나니 無計畫、無努力으로 어찌 成功을 바라리오. 耶蘇가 曠野에 四十餘日이나 斷食한것이나 釋迦가 菩提樹下에서 不眠不食 端坐參禪한것이나 모다 計畫과 努力을 爲하야 그러하얏음은 말할것도 업지만은 近世의 偉人傑士가 모다 그만한 成果잇기까지에는 얼마나한 計畫과 努力이 잇섯는가를 想像할수잇다. 世人의 記憶에도 새롭거니와 蔣介石氏가 張學良에게 監禁되엇슬때 中國全國民이 그것을 憂慮히 역엿슴은 그가 今日의 地位를 차키까지에 얼마나 計畫과 努力이 잇섯슴을 밋기때문에 그로하야금 다시 生存하야 그計畫을 實現케하도록 祝願한 때문이 아닌것이냐. 一個人이 그러하거라 一社會의 成功에 잇서서도 一定한 計畫과 努力이 必要할것은 再論할 餘地가 업다.

四

셋재 우리는 歷史의 悠久함을 깨다를것이다. 古人은 人生七十古來稀라하야 人生의 짧은것을 말하엿거니와 그러나 人生의 歷史는 悠久하다. 生으라 죽어 現世에 업지만 그들의 功名은 永遠히 살아지지 안는다. 그들은 적어도 一篇歷史를 進展식힌만한 功勞가 잇섯기때문이다. 普通人間은 一生을 如何히 幸福하게 지낼가를 追求하기에 餘念이 업섯지만 그것이 滿足되엇다한들 그 千年을 지나 무엇을 남길것인가. 우리는 死後 遺傳이 淺薄한 子孫이 되지말고, 그 非物質的인 行動、意義、實績가 後人의 硏究對象으로 되어야할것이다. 現實主義, 近視主義는 現代社會를 좀먹는 害毒이다. 어찌 一個人만이 그러하리오, 一民族과 一社會가 그러하다. 現在의 多端한 政局은 悠久한 歷史의 一抹의 價値에 不過한다. 우리는 人生의 歷史가 悠久한것을 깨닷고, 刹那主義, 現實主義를 물리칠것이다.

成都北海事件遂解決!

須磨總領事高亞洲局司長間 最後交涉意見一致

【東京電話同盟】成都北海兩事件은 三十日 午後에 이르러 須磨總領事와 高宗武亞洲司長間에 最後交涉을 遂한結果 意見이 一致되엿스므로 同午後七時 川越大使、張羣部長間에 公文交換을 完了하고 外務當局은 三十一日午後零時四十分 交換公文及當局談을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成都及北海兩事件에關한 外務當局談

成都其他 今回의 排日不祥事件에關한 日中交涉은爲하야 帝國政府가 取하여온 方針及交涉에 對한 政府의 見解等은 十二月十日 外務當局談에 述하엿거니와 成都北海等兩個의 事件에 關한 善後措置에 對하여는 十二月三日 在中日本大使館의 聲明書의主旨에 依하야 主로在南京須磨總領事와 高亞洲司長間에 事務的折衝을 繼續하야온結果 成都及北海兩事件에 關하여는 十二月三十日附로써 川越大使와 張外交部長間에 左와如한 文書交換을 終了하엿다

一、成都事件

張外交部長으로부터 川越大使에게 手交한 本年八月二十四日 日本人四名이 成都에서變故를맛나 其中二名이 負傷하고 二名이 死亡한 事件에關하여는 今日玆에 政府를代表하야 誠懇의態度로서 貴國政府에 對하야 深遠歎意를 表하는바이다 事變에際하야 地方當局은 盡力救護하엿스나 省會警備司令府尙候及 公安局長은 防衛上 未及한點이 잇서 中國政府는 該兩名을 免職하고 또 警備司令部衛長 曹午望 連長 劉堯古 公安局科長 鄧介雄 隊長孫田年、分局長康振等도 放逐되엿다 本事件의 首犯者 劉成先 蘇得勝은 死刑에處하고 其他의犯人 王述淸 彭定宅 劉子雲等도 亦是各其處罰하엿다 中國政府는 死者 渡邊洸三郎及 深川經二의 遺族에對하여는 各其實際上 損害額及 相當한 吊慰金을 給與하고 負傷者 田中武夫及 瀨戶尙兩名에 對하여는 各其 醫藥費及 損害額等을 給與할터로 其金額은 別信으로서 通知한바와갓다 中國政府는 前記辦法에 비추어 處理한後에는 本事件은 이미 解決된것으로 思維한다는旨를 述한데對하야 川越大使는 右를 諒承하는同時에 死者의 遺族及 負傷者에 對한 諸費 合計中國貨幣 九萬八千八百八十七元一角을 受領한旨를 回答하엿다

二、北海事件

張外交部長으로부터 川越大使에게 寄한 本年九月三日 廣東北海에서 商人中野順三이 變故에 遭遇한件에 關하여는 本部長은 前에 政府를代表하야 誠懇한態度로서 貴國政府에對하야 深甚歎意를表하는바이다

當時北海地方의 狀態는 特殊하엿고 또 事件은 倉卒間에 發生하엿슴으로 關係當局에서 相當한 措置를 講究하엿스나 保護가 周到치못하엿다 當時實際上該地方警備의 責을 負한 人員 翁照桓 丘國珍은 이미 放逐하엿고 公安局長 陳鳳도亦 是職으로부터 떠낫기 때문에 處分할 餘地가 업게되엿다 本件은 情狀의輕重에 應하야 處分하엿다 中國政府는 該日商中野順三의 遺族에 對하여는 吊慰金三萬圓을 給與한다

中國政府는 前顯辦法으로서處理한後에는 本事件은 이미解決되엇슴으로認定하는바 各其諒承하기 바란다는旨를 述한데對하야 川越大使는 右를 諒承하는同時에 被害者遺族에對한 吊慰金으로 中國貨幣三萬圓也를 受領한旨를回答하엿다

그리고 該成都帝國總領事館은 中國側에서 諸般準備를 完了하는대로 近近再開할豫定이다

兩事件解決

外務省에서發表

【東京電話同盟】日中交涉은 去三日川越張群會談으로 첫길上에 오르고 日本側은 各地에서 發生한 各不祥事件解決에 努力하고잇든바 十日須磨總領事 中國側 高宗武氏와의 間에 會見結果 成都北海兩事件의 解決方式은 大體로 一致되엿스나 不祥事件의 各個의 事件의 責任問題에 對하여는 아즉 完全히 意見一致되지 못하엿든바 成都總領事館의 開館에 이르러 右兩事件의 解決方式을 明白히 하엿고 外務當局은 兩事件의 解決內容을 明白히 하기로 하야 同時에 中國側과 交涉한結果 三十一日午後 東京及南京에서 公表하기로 決定하엿다 右兩事件의 解決과 同時에 總領事館의 開館의 方式도 明白히할方針이다

◇今日重要論文及記事

本社二面 庶政一新 金炯元
附錄一面 歐洲의大雜亂 洪鍾明
同 同 極東情勢 李元坤
同 二面 軍備競爭 洪起文
同 同 西班牙內亂 鄭鳳變
同 三面 改訂元年 咸尙容
同 同 蘇聯의政治 崔聖中
其三一面 世界經濟展望 徐 椿
同 同 일본의國策 金楨容
同 二面 朝鮮經濟新政策 咸尙勳
同 同 歷史經濟 盧東奎
同 三面 產業進出策 李順鐸
同 同 特殊會社 金麟伊
其四一面 米穀政策 李健赫
同 同 資本檢討 朴用來
同 三面 中小商工業更生策
同 三面 經濟關係法律解說
其五二面 教育朝鮮의緊急動議
其六一面 新規事業檢討
同 二面 硏究室의名匠들
其七一面 古文化의再吟味
同 二面 文學問題座談會
其八二面 먹기타령
其九一面 世界言語學大會
其十一面 今年世界展望
同 二面 地方教育產業狀況
其十二面 史上의丁丑 文一平
同 同 都市計畫 洪麟仁

八面鋒

◇讀者여러분 過歲安寧히 하시엇습닛가, 먼저 新年의 萬福을 빕니다.

◇今年은 丁丑年이라하야 소해라고합니다. 干支야 어찌되엿던지 소라하니 소打令이나 할가요.

◇소는 첫재 淳實한 짐성입니다 우리도 소와가티 淳實한生活을할가요.

◇소는 부지런합니다 우리도 새해부터는 부지런할가요.

◇소는 쓸모가 만슴니다 우리도 쓸모잇는 사람이되기爲하야 힘쓸가요.

◇소는 매우어질고착합니다 우리도 좀더 어질고착하도록하여볼가요.

◇아니오, 소는 勇氣가잇는짐성입니다 우리도 새해부터는 勇氣를 내십시다.

◇그리하야 소가田園을開拓하드시 우리도 우리의生活을 開拓하십시다.

中央黨部常務委員會 蔣氏에留任懇請

그代身長期休暇許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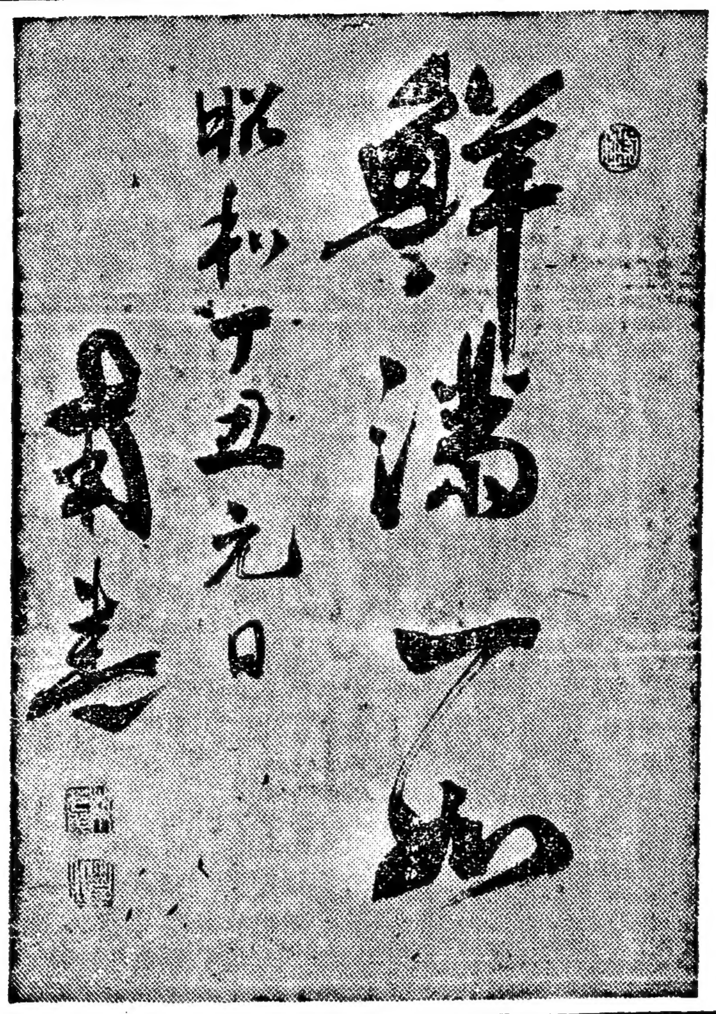
【南京三十日發同盟】中央側의 慰留에對하야 蔣介石氏는 兩回辭意를 表明하엿슴으로 中央黨部는 三十日午前九時부터 臨時中央常務委員會를 開하고 協議한結果

國民黨은 어데까지 蔣介石氏의 辭任을 承認하지안키로 再次慰留決議를 通過하는同時에 相當한 期間蔣介石氏에게休假를 與하야 休養케하기로되야 이結果 中央常務委員一同은 今日午後 蔣介石氏를 訪問하고 常務委員會의決議를 傳達하야 거듭 留任을 懇請하엿다 結局 蔣氏는 休暇를 得하고 鄕里奉化에 歸省할터인데 最後的決意는 來年으로 너머가게되엿다

【南京卅日發同盟】卅日 中央常務會議는 蔣介石氏의辭表提出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辭表를 却下하고 慰留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卽日 蔣氏에게 對하야 現職대로 一個月의 長期休暇를 與할旨를 發表하엿다

日滿標準時統一

【東京電話同盟】昭和十一年도 바야흐로 지려하는바 除夜의 鐘이 울리자 일족부터 懸案이든 日滿標準時의 改正이 實現되여 日本時間보담 一時間느즌 滿洲의 三十一日午後十一時는 새로 日本과가티 一九三七年一月一日午前零時로 되엿다 라듸오팬의 귀에 익은 時報後의 新京과 滿洲는 八時三十分입니다 라는소리는 들리지안케되다 標準時의 改正은 滿洲가 東經百二十度의子午線에 依한것을 日本內地와 同樣으로 東經百三十五度의 子午線에 依하기로되엇다 日滿標準時의 統一結果로 政治經濟通信運輸等日滿相互의 利益은 一層더 增大하는 同時에 兩國의不可分關係는 益益히 强化될것이다



南總督新春試毫

庶政一新의가는길 (上)

金炯元

一

庶政一新을 말하랴면 먼저 (一) 庶政一新이 必要하게된 日本國內의 政治的 社會的情勢를 말하여야될것이오 (二) 그다음에는 庶政一新을 熱心으로 實現식히기爲하야 主動的活動을하는 機關이 엇더한것인가를 말하여야할것이오 (三) 끄트로 廣田內閣의政策과 그實行性如何를 말하여야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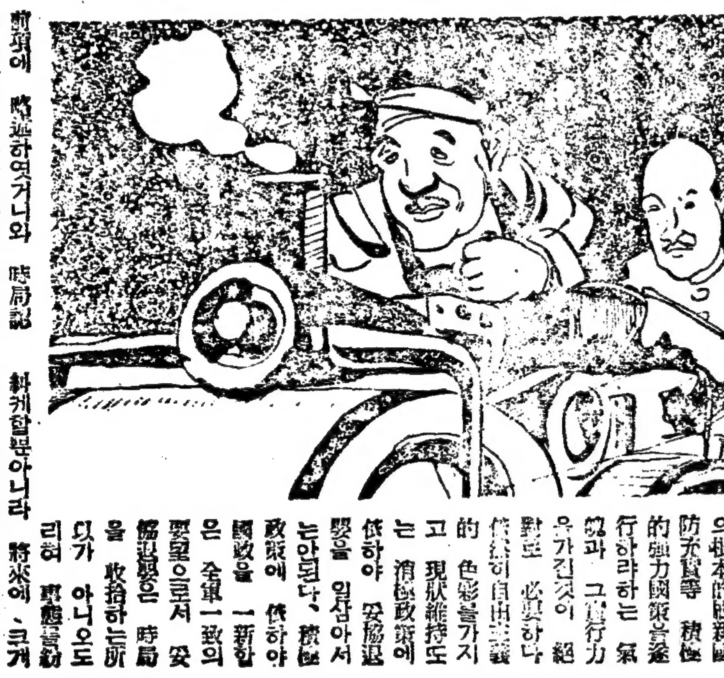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여기서 二、二六事件以前의 政治的社會的情勢를 길게말할必要를 늣기지안는다. 明治維新以來의 藩閥官僚政治가 大正年代의政黨政治로變한後 五、一五事件이勃發되기까지의情勢는 누구나 다아는바와가치 政治的 經濟的社會的 모든點에잇서서 積弊가만햇다. 이보다먼저 九、一八事變을 契機로 日本의 大陸政策은 마침내 國際的孤立을 招來키어럽게되는同時에 이른바非常時局은 漸漸深刻化하게되야 이非常時局에 對處하기爲하야 日本은 (一)自由主義的 政黨政治를 排除하고 國家主義的擧國强力政治를 必要하게되는 同時에 (二)國防의 充實과아울러 (三)國民生活의 安定을 圖하지아니하면 안되게되엿다. 그러나 齋藤內閣이 아모일도하지못하는동안에 帝人事件關係로 넘어가고 그뒤를 니은 岡田內閣은 當初부터 弱體內閣으로 겨우內閣의 補强工作으로 內閣審議會를 設置하는 同時에 政策調査機關으로 內閣調査局을 設置하엿다.

岡田內閣의功績은 內閣調査局의 設置에잇다. 왜그러냐하면 內閣審議會는 補强工作에 不過하는 現狀維持派의 一群을 委員으로 한만치 相久住도업는것이오 그下局으로 極性도업는것이지만 調査局만은 日本에서처음으로보는 政治統制機關 卽政治的 부레인트러스트일뿐아니라 이機關은 內閣이갈리더래도 存續되는 相久住이잇고 또이機關을 構成한初代의 調查局長官吉田氏以下 十五名의調査官은 全部各省의局長級以上의 俊才들로서 熱心으로 現象打破를 主張하는 所謂新官僚派에 屬하는人物이엇기때문이다.

보라 調査局의하는일이 무엇인가 疑心할만치 아모일도하지못하엿 二、二六事件이 勃發하자 戒嚴令下에서 遂行된 首相銓衡을 거듭한結果 첫재 後繼首相으로 廣田氏에게 大命이 降下되엿다.

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銘記할 內閣은 ...



行力을가진 少壯實力人材內閣이어야 될터는意味로 五·一五事件內閣의實現을 爲하야 얼마나 暗躍하엿는가 廣田內閣이 成立되자 맨먼저 調査局의 機構擴大强化案을 提出하는 同時에 內閣審議會의 廢止를 主張하지아니하엿는가. 그뿐아니라 調査局은 정말 强力內閣의 實現을 爲하야 (一)內閣制度를 改革하야 若干의 無任所大臣으로 內閣을 構成식히어 政策實行을 容易케하고 (二)行政機構를改革하야 行政의合理化를圖하고 (三)議會制度其他를 改正하야 政治運用을 單一化統制化하라는 意圖를 明白히 하엿다.

다시 말하면 現狀維持派의集團이라할 內審의廢止는 現狀打開派(新官僚)의 機關인 調查局의勝利인 同時에 昭和維新이라고 떠드는 庶政一新은 여기서 出發하엿다고 할지라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三

政界의 指導勢力을 다시 한번 大別하면

現狀維持派=舊式官僚、政黨、實業家

現狀打開派=新官僚、時局認識派、軍部

이다. 以上과가티 現狀打開派의 ... 에 누구보다도 進步的이라하는 軍部는 엇더한 態度를 取하엿는가. 大命을 拜受한 ...

以上과가티 寺內陸相은 ...

今日本紙그라비아版合五十二面

京城府公平町一一九番地
特許、新案 意匠、商標 出願、相談
(事業一覽進呈) (入會歡迎)
發明學會
電話(光)一八七五番 振替京城一八四六三番

京城府公平町一一九番地
科學智識普及會
電話(光)一八七五番

京城府公平町五九番地
朴吉龍建築事務所
電話光化門二一五六四番

金炳憲

金秊洙

韓相龍

朴興植

朴榮喆

恭賀新年

金基德
自宅 京城府竹添町三ノ三 電話光二三五五番
事務所 南大門通二ノ一日生ビル 電話本 三三六三番

朝鮮信託株式會社

有恒社
社長 黃致琮
京城府鍾路一丁目任家ビル
電話光 一四三〇 二九一五 番

牛

竹西 金埴 畵 ([illegible])

賀狀一千萬通突破

新年을祝福하는"地上散華"

신년을 축복하는 「연하장」(年賀狀)은 머나먼 바다건너편에잇는 그리운 님으로부터 또는오래스동안 맛나지못한 친구로부터 정월초하루스날 아침이면집집마다 전달하게되야 새해의기쁨을 한층더하게하는것이다 경성우편국을 비롯하야 부내각우편국과 우편소에서 특별취급기간인 지난이십구일까지 인수(引受)한것은 무게루백오십만통이며 도착은 사백오십만통이엿다 작년에비하면 인수는일할팔분 도착은이할이분이나증가하엿다 그러고 마즈마냥인 이십구일에는 삼백오십만통이나되는 대량의 연하우편을 각우편국원들의 총동원으로 전부처리하여버렷다한다

平壤局의賀狀 百五十餘萬通

【平壤】 연하장(年賀狀)의 대사태로 평양우편국은 유사이래처음보는 복잡을일우웟다 이십구일까지 취급한 연하장의 총수는 백오십이만팔천백사십통으로 작년의 백이십사만사천팔백통에 비하여 일할륙분오리의 대 증가를보혓다한다

孔泳檜滿期出獄

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려다가 소화칠년구월륙일에 동대문경찰서(東大門署)에 붓잡혀서 드디여 소화구년십일월 십오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삼년(미결통산 오백일)의 판결을 밧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시내안국정(安國町) 구십길번지 공영회(孔泳檜)는 삼십일일 오전 열시 만기출옥하엿다한다

世界制覇마라손王도 學科試驗엔悲鳴

孫君東京高師"入學마라손戰"

베를린올림픽·마라손의왕자 손긔정(孫基禎)군이 입학시험을본다 ─ 금춘양정고보(養正高普)를졸업하는 손군은 동경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에 입학을 지원하고 지난이십륙일부터 동경고사에서 입학시험을보고잇든데 물론 특기인체육과(體育科)를 지원하엿는데 모집인원은 삼십명인데 수험자는 이백삼십명이라는 상당한 난관 이다 마라손 으로는 전세계에 그를 따를자업지만 학과시험에는 손군도 얼골을 찌푸리고 가슴은 펄떡이엿다 양일간에 학과시험을 치른후 이십팔일에는 실지시험에 드러갓는데 축구(蹴球)등을 시험관아페서 하야 스포-츠의 적응성검사를 하고 제일난관인 철봉(鐵棒)시험에는 드디어 비명을 올리엇다 그러다가 나중에는러닝(競走)시험에드러가니 아연용기백배하야 수험자들은 물론이요 시험관까지도 놀라리만치 쾌주(快走)하엿다 발표는 이일인데 발표를기다리는 마라손왕의조마조마한심정은? (사진은 손군)

釜山富平町大火

四棟十四戶를全半燒

【釜山】 지난이십구일 오후한시 이십분경 부산부 부평정(富平町)이정목 이십이번지 목촌희대삼랑(木村喜代三郎) 부엌에서발화하야 점점 이웃집에 련소하기시작하야 사동십사호를 전반소하얏는데 부산경찰서와 소방조원이 총출동하야 진화에 노력한결과 동두시경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 약칠천원가량이며 인축에는 별관계가업고 발화원인은 실화인듯하다고한다

라디오

一月一日(金曜)

◇午前八時三〇分 唱歌 一、君が代 二、一月一日 [illegible]

◇同八時四〇分 (各局)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同十時 [illegible]

◇同十一時 [illegible]

◇同一時四〇分 [illegible]

◇同一時五〇分 [illegible]

◇同六時 新年當話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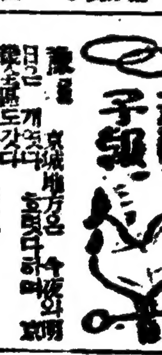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同八時一〇分 [illegible]

◇同八時四〇分 [illegible]

◇同九時五分 [illegible]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 明日은 개엿다가 흐리다

昨日最高 三度九
同 最低 零下五度五
今朝最低 零下三度
今日正午 二度八

그들의 靑年學徒時代 ①

아득한半世紀前 中西書院留學生!

甲申政變의金玉均事件亡命客으로 十年間米洲에留學

尹致昊氏

나(윤치호씨)는 일곱살적부터 열네살까지 한문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한 이외에는 조선에서는 공부한 일이업고 그밧게는 중국과미국에가서 불규측적으로 공부하엿다 내가 조선을떠나 중국상해(上海)로 공부를 하려간것은 서력일천팔백팔십오년으로 내나히 스물한살적 이엿다 그때는 바로 한국말년의 시국이 분요한때로 구식을 지키는 완고파와 신학문을 배우려는개화파(開化派) 또는 친청파(親淸派) 친아파(親俄派) 친일파(親日派)등 각파당이 서로 정권을 다투고 잇든때이다

나는 신학문공부를 할희망을 옭가젓고 또김옥균(金玉均)의혁신운동에동감하게되엿슴은 것이다 그래서 장기(長崎)까지 가서 단발하고 배를타고 상해로 건너가서 미국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중서서원(中西書院)에 입학하엿다 중서서원은 순전히 영어만 가라치는 곳인데 학생 대다수가 중국 사람들이고 조선사람은 나 한사람 뿐이엿다 그뒤 얼마동안 지난뒤에 조선으로 부터 민상호(閔商鎬)윤정식(尹定植) 두분이 역시 중서서원에 입학하엿스나 약이주 일동안 공부하다가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 버렷다 그뒤 양일변뒤에 그들은 미국서 조선으로 다시 도라온 모양인데 민씨는 마침내 대신까지 지냇스며 변전에 죽엇고 윤씨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다녓다는데 아직 어느 시골에 살아잇다는 말을드럿다

내가 그때 중서서원에서 공부할때에는 기숙비는 한달에이불(二弗)밧게 밧지안헛다 중국학생들과 그러케 가치공부하고 잇섯스나조곰도 불편한바는 업섯다 그서원에서 일천팔백팔십팔년까지 약사변간 공부하고 그해에 거긔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게되엿다 미국에 가서는텐네씨주(州)에잇는 내쉬빌대학에 입학하엿다 이학교에 조선사람으로는 내가제일처음으로 입학한것이다 그뒤에는 량주삼(梁柱三)씨도 미국에 류학한 일이잇다 나는그때에 김옥균사건관계로 망명(亡命)하고 잇섯든터이므로 고국으로 편지 한장도 해왕할수업는 형편이지라하는수 업서서 고학을하게되엿다 미국인유지들을 차저 다니면서 조선사정이야기를하여 돗겨주고 학비를 어더썻다 그때쯤에는고학하기에 별로힘들지안햇다 십여년동안이나 고국에 안부편지 한장도 하지못하고 잇게되니 집생각 고향생각 나는 때도 종종잇섯지마는 김옥균사건이 귀정되기전에는 도저히 고국에도라올 생의를 할수 업는터이라 그저 귀정될 날이다처오기만기다리고 꼭참고지내다 그리하야 일천팔백구십사년까지 미국서지내다가 일청전쟁(日淸戰爭)이이러나게되며 한국정부에서 구금하엿든 김옥균일파가 석방되게되엿스므로 비로소상해로 나와서약일변동안 중서서원에교사로 잇다가 국내동운이 좀안정되엿다는소식을듯고오래간만에 고국에도라오게된것이다 이제생각하면 사오십변전 녯일로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사진은상해에서 중서서원유학시대에 윤치호씨=뒤에맥고모를쓴분)

長篇小說

그의自敍傳 【8】

長白山人 作
熊超 畵

어린적 (八)

나는 절알엣날에서 팍 뛸해를 살앗는지모르거니와 여기서 글스방에 댕기기를 시작햇당 천자와 반절은 내살려에 깨트렷느니라고 남들이 말하거니와 내가 외조모헌테 이야기책을읽어들이고는 상답으로 밤과 배를 받은것을 기억하고 또 외조모가 돌아갓을 때에 어머니가 끌려놓은 댕기를 허리에 두르고 작난하던것을 생각하면 여섯살 풀엇것 같으니 언문을 깨트린것은 매 일렀던듯하고 도아버지가 읍내에 가서 벌포 벙으로 누엇을 때에 아버지가 내게로 보낸 편지를 내가 보앗고 또 그 편지 당장을 내 손으로 쓰고 그 끝에 「戊戌至月念一日」이라고 쓴것이 기억되니 무술이면 내가 일곱살적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한문도 第 字 엿볼모양이다.

내가 절아엣날 글방에서 제일 읽엇다고 기억되는것은 「사략초권」은 언제 읽엇는가 분명치 아니하고 「天皇氏以木德王」으로부터 초권 한권을 통한듯한것은 생각이 난다. 그리고는 「無題詩」라는 책―「天長九萬里。地闊三千界。白酒仁人面。黃金黑士心。天淸一雁遠。海濶孤帆遲。欲窮千里目。更上一層樓」―이런것들이 적힌 책이엇다. 그다음에는 「馬上逢寒食。途中屬暮春。可憐江浦望。不見洛陽人」 같은것을 쓴 「馬上小詩」 그리고는 「大學」「中庸」「孟子」「論語」「古文眞寶前後集」 같은것을 읽엇는데 아마 졸업은 겨울에 귀글을 여름에 읽어올것이다. 그러나 여름에 「孟子」를 읽던 기억도 잇다.

맹자를 읽던 어느 여름날 나는 다른아이들과 함께 선생을 따라서 산 하나 넘어 몰스골이라고 하는 큰 서당에 향음주례(鄕飮酒禮)구경을 갓던것을 기억한다. 놉은 고개에 올라서 퍼런 서해바다를 바라보는것이나 몰스골 김씨네의 즐비한 개와집들을 바라보는것이나, 또 정언스집 큰 은행나무를 본것이나 도 우리 동네서당이라고 남의집 사랑스구석인것과 달라서 몰스골 서당이 산스속 경치 좋은데 지어놓은 커다란 개와집인것을 보고 그 서당앞에는 큰 연못이 잇어서 고기들이 떨떡떡 뛰고 꽃나무들이 많고 마당이 넓고 한데는 차일을 넷이나 연폭해 치고 서 유건 도복 입은 선비들이 오락가락하는것이나 다 내눈에는 신기하고 부러웟다.

선비들이 거문고를 무릎우에 놓고 징둥당둥하는것과 활을쏘고 강을 한다、시를읊는다、홉기부를것을 따라서 서로 읊하고 술을먹고―이런것이 모도 이상하엿다. 이서당의 눈쭉보기 선생은 학자님으로 패 명망이 높은이엇다. 그 선생이 모인중에 제일 위엄이 잇어서 그 굵직굵직한 눈까지도 빛이 나는것 같아서 나는 언제나 이 눈쭉보기 김선생만 바라보고잇섯다.

저녁때에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산을타고 넘어왓다. 그 서당이 부럽고 그눈쭉보기선생이며 유건 쓴 커다란 선비들이 부러웟다.

무에야 모두? 우리 서당이란것은 쌍창도 뒤스마루도 장판도 없는 리참봉네 사랑이다. 아이들이라고 모두 코흘리는것들, 한글천 따지가 아니면 천황씨 지황씨 하는것들, 선생이라고 섯은 김선생이지마는 거죽눈이에 말더듬이에 언제나 꾸지레하게 차리고 젊은 안해헌테 몰버락이나 맞기로 소문난 못난이. 이게다 무에야? 나는 퍽 으나 내 서당이 불만해서 아버지를 보고 다른 서당으로 가고싶다고 졸랐다.

그러자 임참봉네가 사랑에 불을 땔수가 없고 또 거친눈이 김선생이 다른데로 떠나게 되어서 나는 다른 아이들 몇과 함께 고개 넘어 자성재라는 데 큰 서당으로 옮기게 되엇다. 이 자성재라는것은 바로 자성산 기슭에 잇는 서당으로서 풀어않은 젊은 학자님이 선생으로 와잇었고 이 서당에는 시전、서전、읽는 꽤 큰 사람도 멫 잇고 내게다가 처음으로 애정을 가르쳐준 심래섭이라는 아이도 잇었다. 나도 점심밥그릇을 망태에 넣어들고 책을 끼고 이런 큰 서당에 다니는것이 퍽 좋았다. 지위가 높아진것 같앗다.

京城府敦義町 明月館 電光②六四・八六二・一五〇九

京城府仁寺町 天香園 電光②八五八・八五九・一四四七

高陽郡崇仁面貞陵里 天香園別莊 電光② 一六〇九

京城鍾路 太西館 電光② 一三四・二〇五六

京城漢江龍鳳停內 太西館別莊 電龍山 一三四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食道園 電本②四四六五・二四七四・四八八五

京城府瑞麟町 朝鮮館 電光②七二五・一七七八

京城府觀水町 國一館 電光③六四六・四〇七

京城府樂園町 松竹園 電光③二二〇四・二〇四

京城府瑞麟町 東明館 電光③一二三・二五三七・三一〇二

京城府城北町 飮碧亭 電光③七五五・一八六

京城府武橋町 春景園 電本②八一一・二四七

高陽郡崇仁面貞陵里 賞春園 電光③二六六四

京城府下往十里町 天壽閣 電本②四四九二

京城府清凉里町 清凉館 電光③二五一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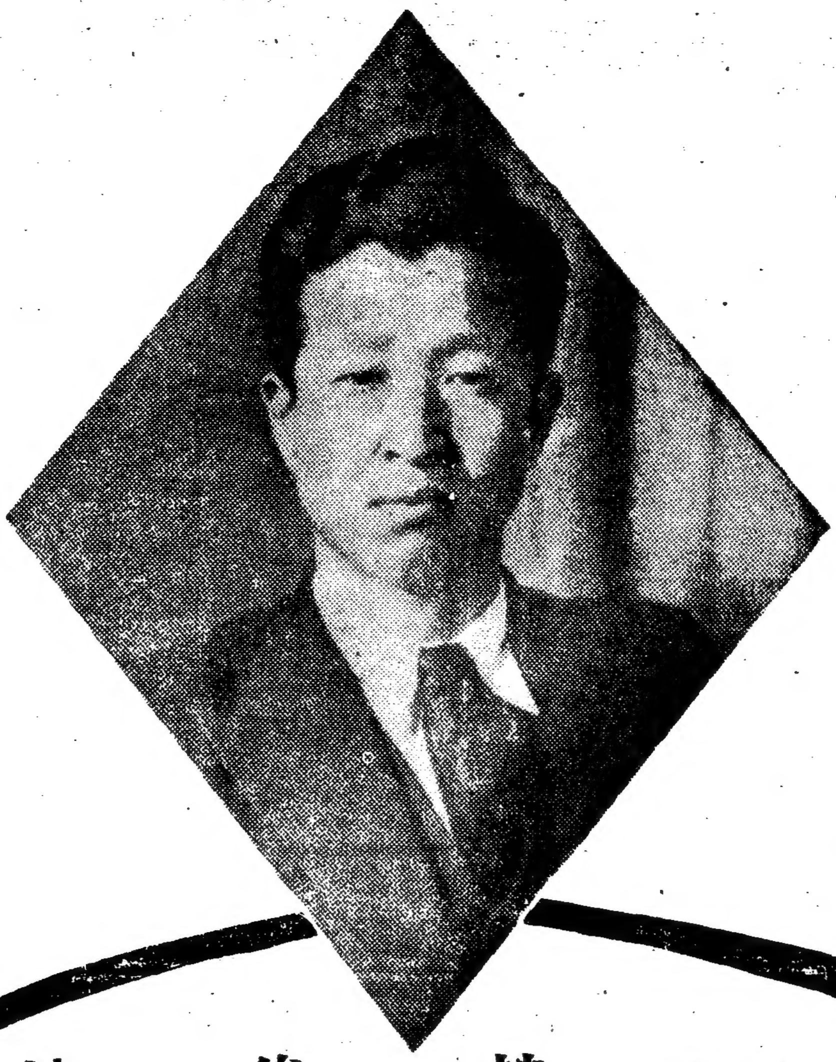
恭賀新年

會社團

鮮滿拓殖株式會社
總裁 二宮治重

京城組合銀行

謹賀新年



社長 趙俊鎬

營業
一. 有價證券淸算取引
一. 株式募集引受取扱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種目
一. 有價證券現物賣買
一. 有價證券擔保金融
有價證券現物問屋

資本金壹百萬圓

東亞證券米豆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九
【代表電話五一六一番】

電話本局② 五一六二番 五一六三番 五一六四番
五一六五番 長五一六七番 長五一六八番
現物部專用 長四五八五番

發信略號(ト)又ハ(トア) 受信略號ケイザウ・トウアセウケ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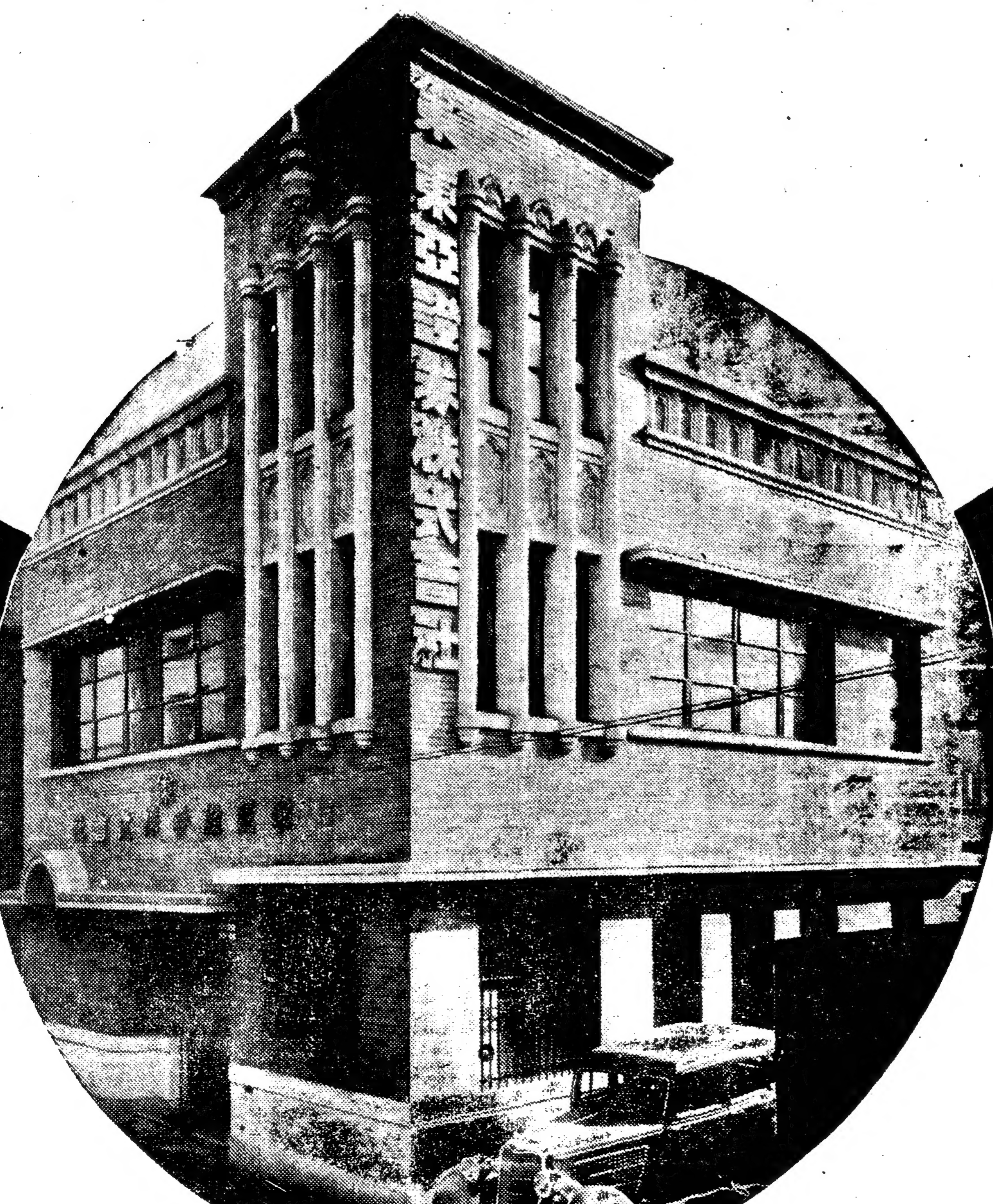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一番地

電話 長九一六番 六九三番 九六〇番
四八一番 一一六五番
市場專用 一一八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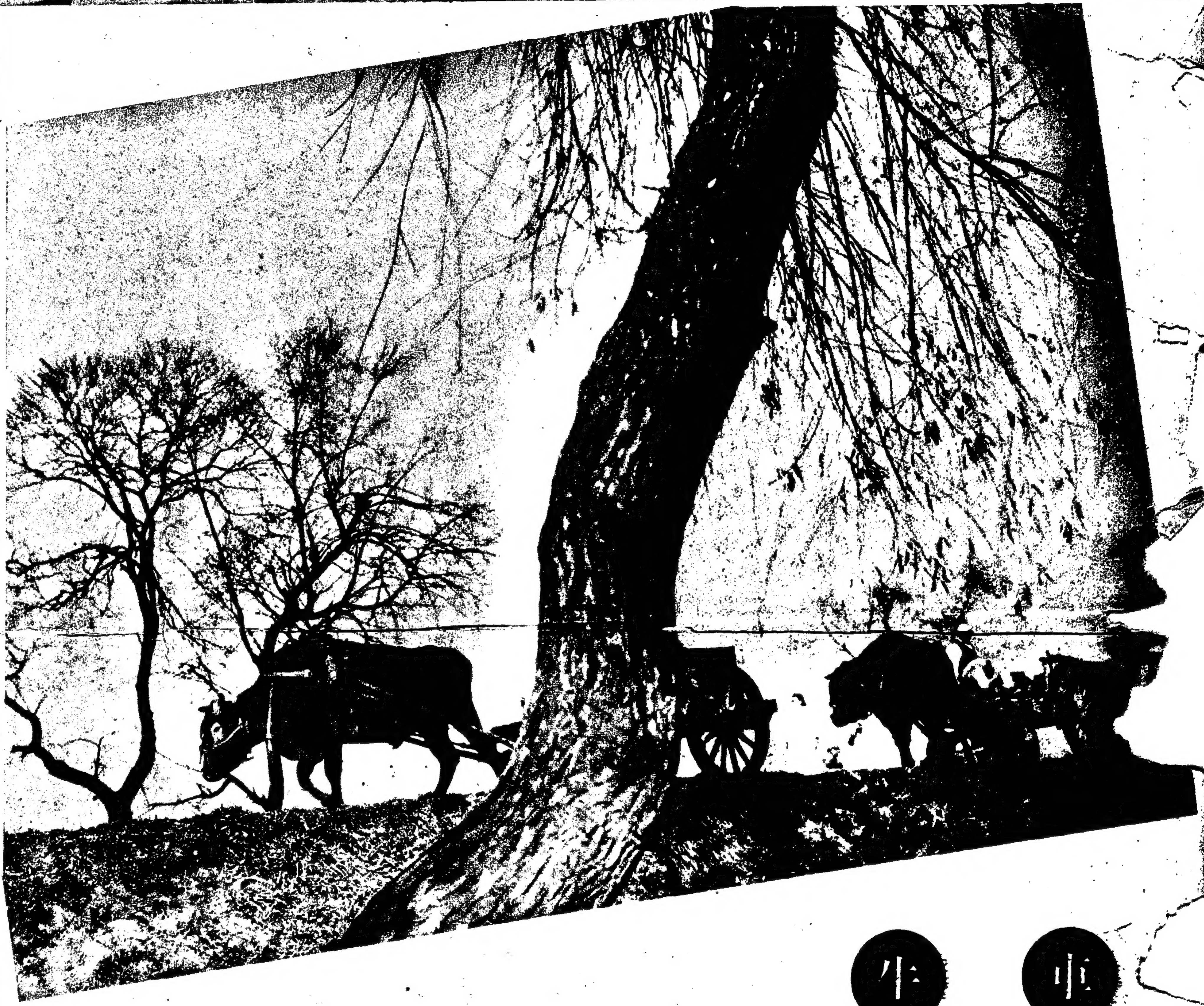
電略發信(ヤマト)又ハ(ト) 受信ジンセン・ヤマ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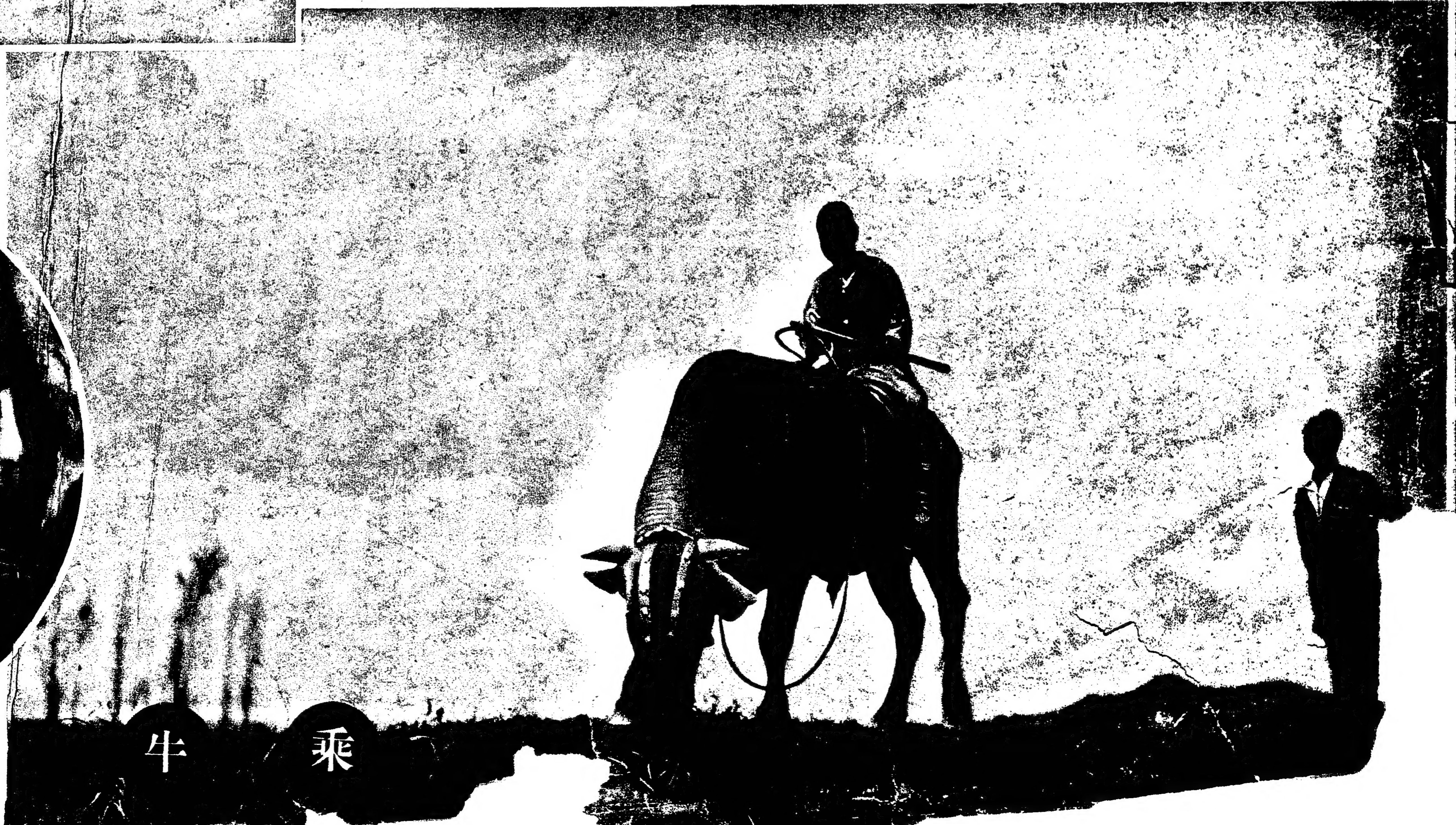
元旦
朝鮮日報
其一

丑公七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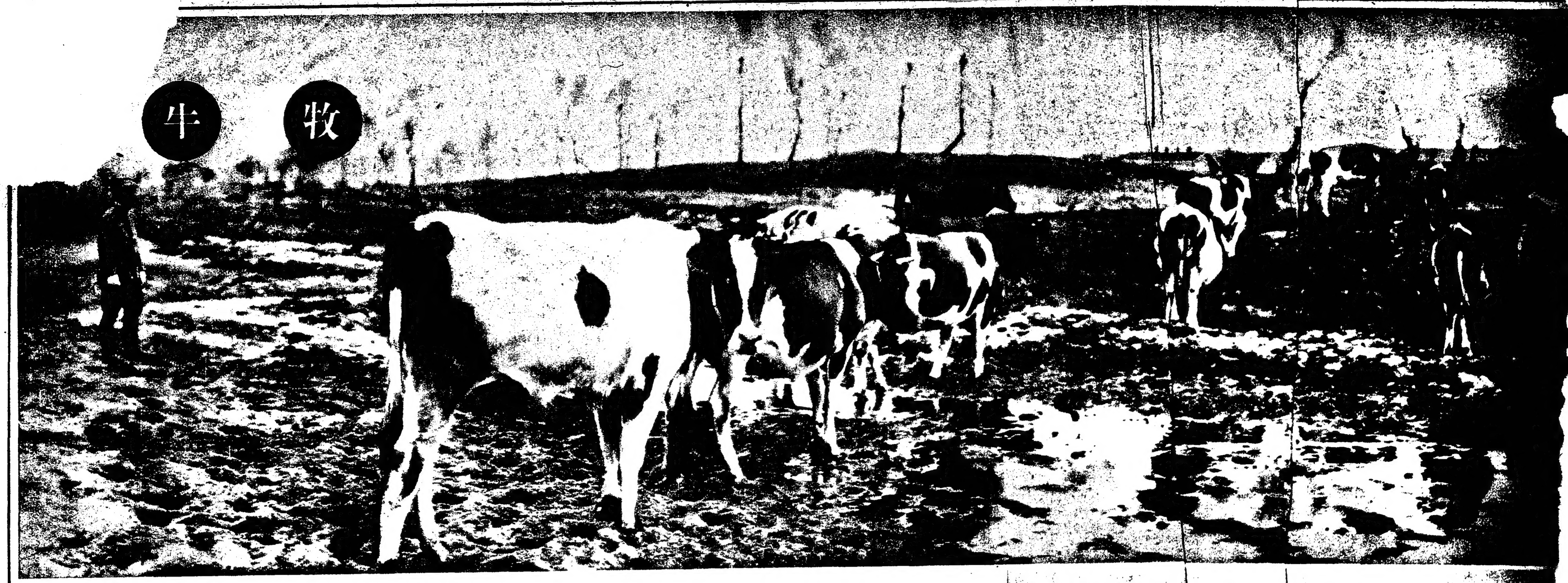
闘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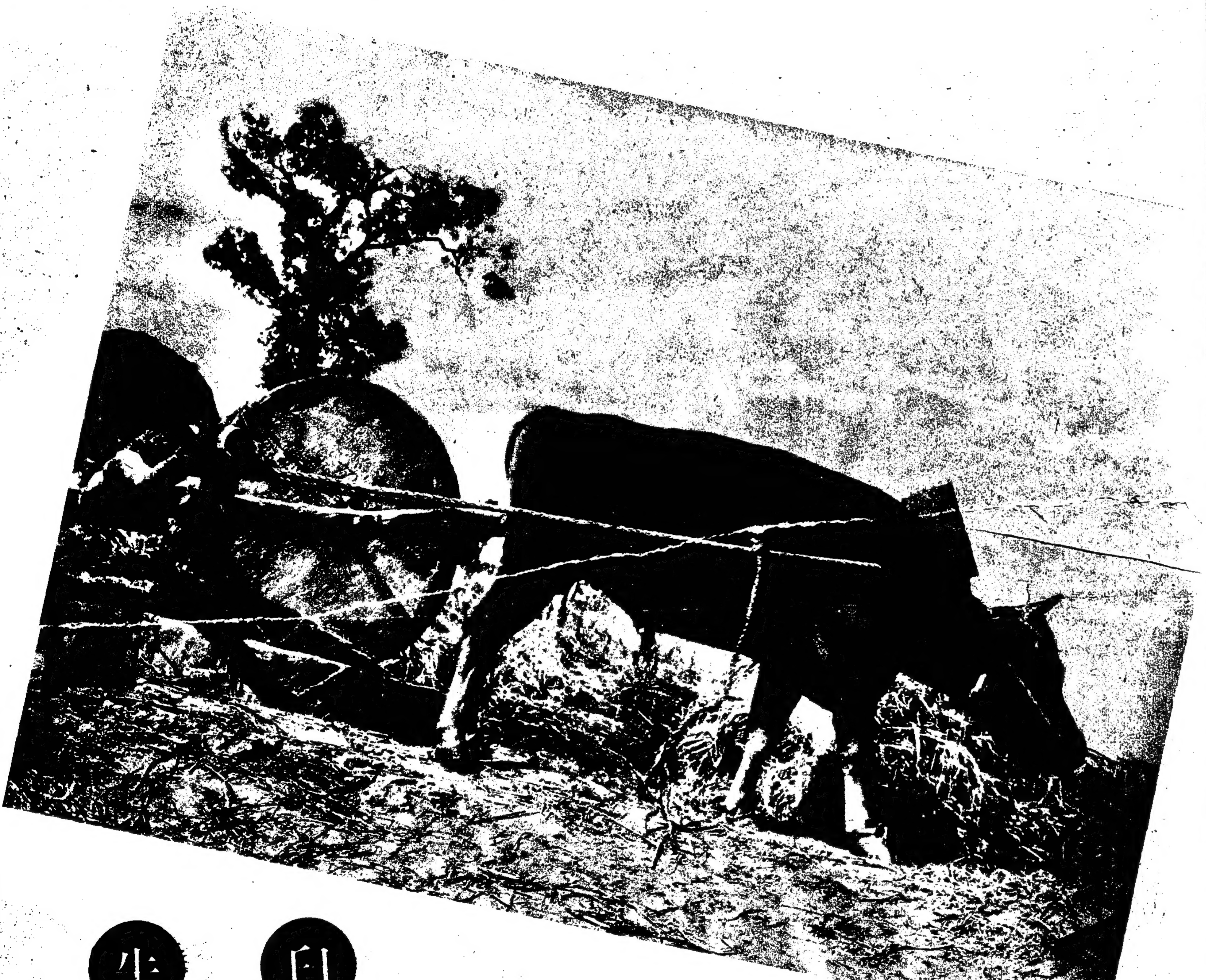
車牛



乗牛



牧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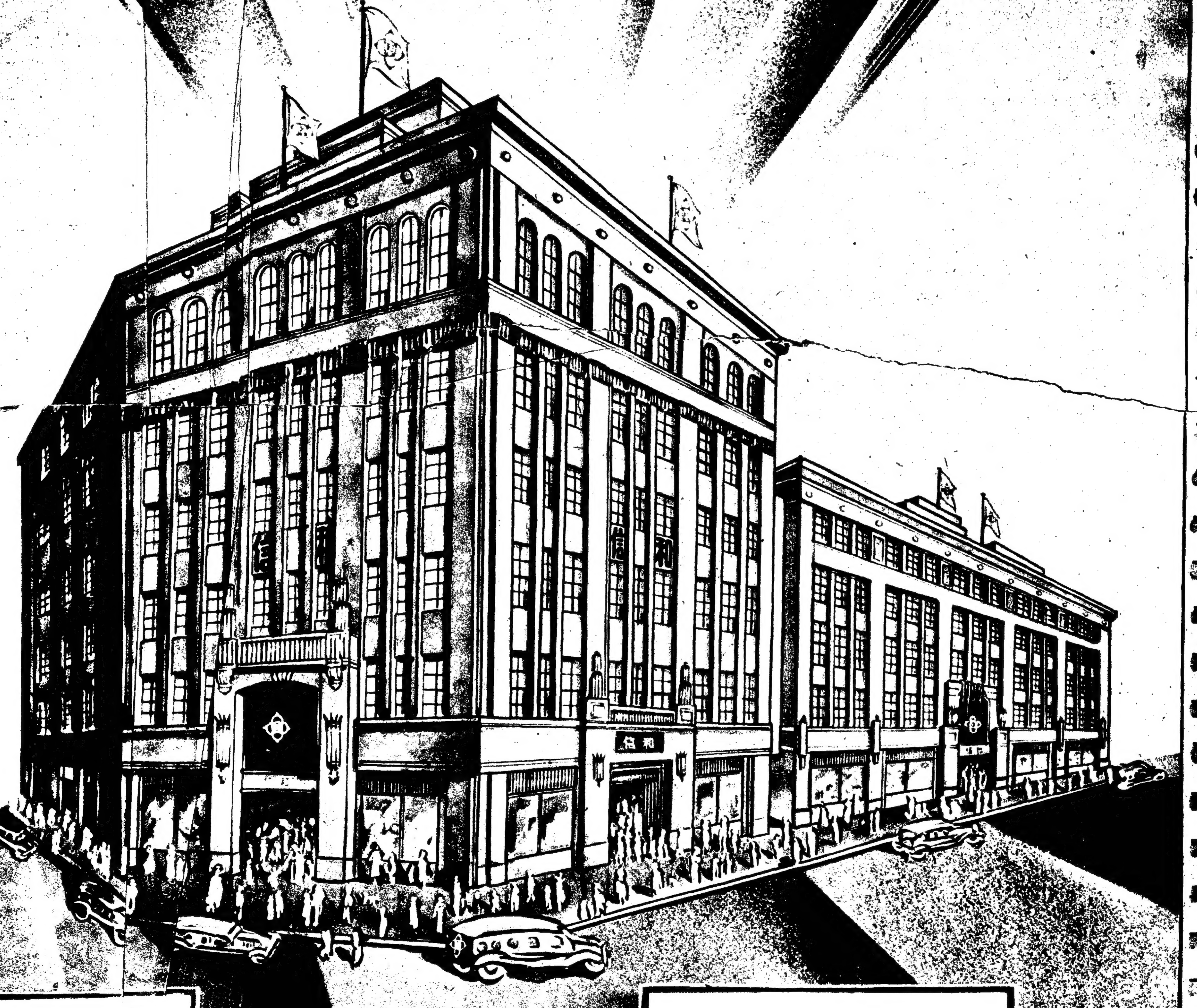
[illegible]牛

耕牛

여러분의 百貨店 · 和信 · 京城本店 · 平壤支店

조흔물건 싸게파는 · 全朝鮮和信連鎖店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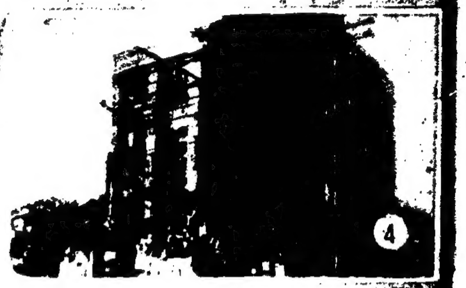
昭和十年一月大火로燒失된西館跡과隣接地를買收하야地下一階地上六階의新館을建築하려고工事中이던바一部工事가完了되야昨年十二月五日開館을하엿스며今年八月에는全部가完成될터인바約三千坪의賣場과完備된設備로大外觀으로도百貨店界의第一位를占하게되엿다

店의 跡

1 金銀美術商和信商會時代

2 昭和六年株式會社和信百貨店創立

3 昭和七年東亞百貨店買收店舖八百坪으로擴張



4 昭和九年鍾路店事業創設及大阪仕入部擴張

5 昭和十年大災에依하야西館全燒後東館增築作

6 昭和十年京城釜山平壤元山群山各地配給所設置

7 昭和十年百貨店平壤支店開店

8 昭和十一年一月一日和信連鎖店株式會社分立

9 昭和十一年新館增築一部開館賣場延坪七千百坪

鮮一紙物株式會社

和洋諸紙都賣元
新聞捲取紙輸入元

社長 朴興植
專務 李奎載

本社 (京城・鍾路 代表電話(光)二〇二〇番)
釜山支店 (釜山榮町一丁目二七 代表電話 七二七番)

株式會社 和信

社長 朴興植
專務 李基衍

本店 (京城・鍾路 代表電話(光)二八〇〇番)
平壤支店 (平壤・鍾路 代表電話 二二〇〇番)

全朝鮮一千連鎖店總本部

和信連鎖店株式會社

社長 朴興植
專務 朱耀翰

本社 (京城・鍾路二丁目 代表電話(光)四〇〇〇番)

大阪仕入部
京城配給所
釜山配給所
平壤配給所
元山配給所
群山配給所

土地建物及農場經營

大同興業株式會社

社長 朴興植
支配人 李元植

京城・鍾路 電話(光)四〇〇〇番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

1937 集團保障의破綻 左右兩同盟出現

獨蘇를中心으로한歐洲兩大陣營의軋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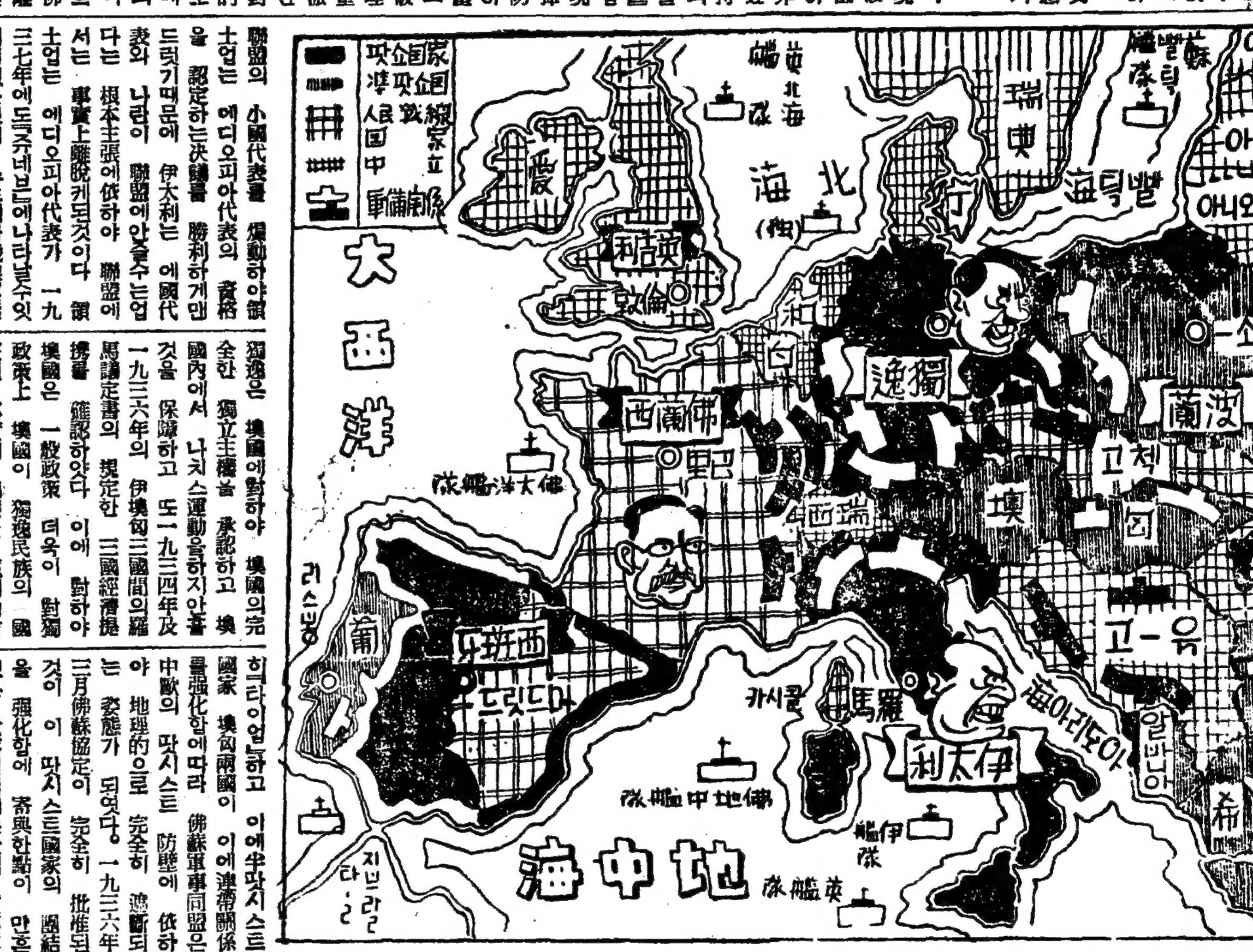
洪陽明

歐洲의 幻影속에 떨고잇든 歐洲는 또다시 軍神 마ー스의 微笑苦笑中에서 陰鬱한 一九三七年을 맛는다 그러나 그곳에는 何等의 平和에 對한 建設的目標도업고 安全保障에 對한 何等의 理念의 實現도업시 오즉 盲目的인 歷史의 慣性에 依하야 混沌에 새 混沌을 거듭하는 時間의 加重이잇슬뿐이다。一九三六年에잇서 歐洲의 集團的平和機構는 戰爭을 『스텁』지킬수도업고 戰爭에 依한 被害者를 救濟할수도업다는것을 完全히 暴露하엿다。이것을 實際로 證明한 『챔피온』이 딱시스트伊太利와 나치스獨逸의 獨裁主義國家라는것은 偶然한일이아니다 伊太利가 『쥬네브』의 喧騷한 政治的 騷音과 制裁發動에 依한 干涉에 눈하나 깜작안코 에디오피아征服을 百퍼센트로 實現하야 羅馬帝國의 옛光榮을 謳歌하고 黑衣宰相 뭇솔리니氏가 베네치아宮에서 勝利의 祝盃를 들고잇슬때 世界에 最後에남은 黑人帝國의 領土엿든 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가 쥬네브의 쓸쓸한 旅舍에서 할수잇는일은 弱者의 一掬悲淚에 오즉 긴 『한숨』을쉬고 百%로 聯盟機構를 斷念하는일이엿다。英佛等 聯盟各國이 制裁失敗를 率直히 認定하고 各自 制裁案을 깨끗이 撤回한것은 [illegible]者로 보담은차라리 잘한짓이엿다할것이다 國際法의權威가 一顧의餘地도업서땅에떠러진이機會를타서 一九三五年에 베르사이유條約의 쇠사슬을 끈은나치스獨逸이 最後에남은安全保障機構의 堅固한鐵鎖인로카르노條約을 一方的으로廢棄한것은 히틀러氏의 當然한『타임리·

히트』엿다할것이다 [illegible] 나치스獨逸의 一方的行爲에 英佛白等 安全保障機構에依한 現狀維持派諸國이 默然無策이엿슴은 말할것도업다 그러나 오즉 當然하고焦燥하는以外에는 그[illegible]에게 敢히 달은手段은 [illegible] 도어잇지 못하엿든것이다 佛國이 [illegible]한自國領土內와駐兵을禁止한 로카르노條約의鐵鎖를 切斷하고 自主的인行動을取한 나치스獨逸의一方的行爲가百%로條約違反은틀림업는 일이엿다할지라도 他國領土를侵犯한것과가튼 尺度로써律하기에는 너무나 當然하엿든것이한가지오 이에加하야 이미締約國의一員인 伊太利는 獨逸의 伊國의 東阿遠征에對한 同情的態度에對한報答 및英佛等對伊制裁國에對한 反感으로一九三五年獨逸의 베르사이유條約軍事條項廢棄에對應한 英佛伊의 스트레자共同戰線에서 完全히 離脫하고잇슨터임으로 締約國共同의一片의問責案조차도 맨드러보지못하고 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懸案을남긴채 一九三七年을 맛게되엿다

◇

이와가터딱시스트伊太利와 나치스獨逸이 交互的으로 歐洲現狀維持派에 挑戰하야 現狀打破의發火者의役割을함에따러 兩國은 獨墺合倂問題를 中心으로하야 對蘇關係에잇든 從來의 非友誼的態度를 自然解消하고接近하기始作하엿다 英佛等現狀維持派에對한 敵本主義、및 蘇聯의 불쉬비즘에對立한 共通한이데올로기ー的同感이獨伊兩國을콤비식히는 要件이되것은말할것도업다 이두發火役이 交互的으로現狀維持의 陣營에내던지는 爆彈에對하야 英佛等의演하는 消防隊役은 『콤비네이숀』도 不足하고 動作도遲鈍하야 對幅의彈囊効果는 完全히 失敗되엿다 그러나 事實은根本的인 現狀打破派이면서 外交史의 畸形한論理에依하야 이제는 國際聯盟에 重要한자리를차지하고 現狀維持派의假裝으로『쥬네브』에 『데뷰』한 蘇聯이 英佛等의 現狀維持에 對한 優柔不斷을牽制하고 集團的安全保障機構擁護의 主役을가로마튼 格이되것은 一九三六年에잇서 特記할일이다 歐洲外交의 카스팅보ー트를 掌握한 英國이 對伊制裁를 撤廢함으로써 『스트레자』戰線의 復活을 企圖하야 佛國으로더부러、事實上聯盟에서 離脫한 伊太利를 다시聯盟에 復歸식히고저하는 目的으로 열렷든 九月의 聯盟理事會及 總會가 蘇聯代表와 [illegible]으로 드듸여 [illegible]이되엿다는것도 記憶할일이다。卽 이總會에잇서 英佛은 制裁撤廢를 決議하는同時에 伊의 東阿遠征의 旣成事實을 默認하야 에디오피아代表를 抹殺함으로써 伊國을 聯盟에 復歸케하려든것인데 蘇聯代表는 論理的인



聯盟의 小國代表를 煽動하야 領土업는 에디오피아代表의 資格을 認定하는決議를 勝利하게맨드럿기때문에 伊太利는 에國代表와 나란이 聯盟에안질수는업다는 根本主張에依하야 聯盟에서는 事實上離脫케된것이다 領土업는 에디오피아代表가 一九三七年에도 쥬네브에나타날수잇게되엿는것이 스트레자戰線復活의 可能性을 完全히 消滅한 代身、獨伊兩國의 接近을 加速度的으로 進行식혓다 七月中旬에 公表된 獨墺協定은 獨伊交協의 具體的結果가되엿스니 卽從來에 獨伊의 提携를 妨害하든것은 第一은 中歐問題 第二는발간問題엿든것인데 새로 成立된 獨墺協定은 이中歐에關한 障害를 除去한것이다。이協定에 依하야 獨逸은 墺國에對하야 墺國의完全한 獨立主權을 承認하고 墺國內에서 나치스運動을하지안흘것을 保障하고 또一九三四年及一九三六年의 伊墺匈三國間의羅馬議定書의 規定한 三國經濟提携를 確認하얏다 이에 對하야 墺國은 一般政策 더욱이 對獨政策上 墺國이 獨逸民族의 國家인 事實에 相應한 原則的方針에 基하야 行動할것을 約한것이다。이獨墺協定은 本是부터 伊國의 調解와 斡旋下에 行한것은 말할것도업거니와 이代身獨伊兩國의 諒解에잇서 伊太利의에디오피아併合에對하야 獨逸이承認할것을 約束하고 또將來獨伊로카르노條約國會議에서 伊國이 獨逸을 支持할것을約束하엿다。딱시스트國家 獨伊兩國이 完全히 『라인업』하고 이에半딱시스트國家 墺匈兩國이 이에連帶關係를强化함에따라 佛蘇軍事同盟은 中歐의 딱시스트 防壁에 依하야 地理的으로 完全히 遮斷되는 狀態가 되엿다。一九三六年三月佛蘇協定이 完全히 批准된것이 이 딱시스트三國家의 團結을 强化함에 寄與한點이 만흔것은 脫落식혀서는안될 重要事實이니 나치스獨逸이 로카르노條約을 廢棄하는 理論的根據로써 佛蘇同盟에 依하야 佛國이 西歐安全保障機構에 對한[illegible]務를 끄러드리엿다는 [illegible] 理由로 [illegible] 되게되엿다는것을指摘한 것은 잘 생각할일이다 그러나 蘇聯의 불쉬비즘의進出을 西歐文明에 對한 破壞라고 高調하면서 反逆十字軍의 陣頭에서 [illegible] 히틀러氏의 [illegible]가 불쉬비즘에 對한 [illegible]에 不過한 것도 事實이지마는 佛國으로하야곰 이 危險한 장사를 [illegible]케하는 外交的제스추어의 意味도 多分히 包含되고잇는것은 看過할수업는 點이다。

◇

이리하야 一九三六年의 歐洲는 集團的安全保障機構가 完全히死滅한代身 一方에 佛蘇同盟、他方에獨伊墺同盟의 二大同盟이 具體的으로 對立하는 形勢를 誘致하얏다。佛蘇同盟에對하야 不卽不離의 態度를 取하면서도 現狀維持派의 宗主國인 立場및 條約神聖論의 傳統에 依하야 亦是 佛國과 協調的態度를 바라지안는 英國을 反獨伊陣營의一員으로 計算한다면은 歐洲는 百%로 一九一四年 世界大戰直前의 形勢를 再現한셈이되엿다 그러나 大戰前의 英佛露三國協商과 獨墺伊三國同盟과의 對立은 政治上 軍事上의 二大陣營에不過하엿지마는 새로誘致된 二大同盟의對立은 멤버는前과 가트나 質的으로 思想上相互敵對하는 二大世界와가튼 外觀을 形成하고잇다 獨伊兩國이 딱시스트國家로써 全世界의 딱시스트的思潮及 勢力의牙城임에 反하야 蘇聯은 불쉬비즘의 獨裁國家 佛國은 人民戰線系配下의 民主國家、英國은 立憲君主主義의 民主的國家로써、獨伊兩國의이데올로기ー的合致와가튼 强固한連帶性이不足하나 反딱시즘이란 共通의立場에잇서서는 一致되고잇다고볼것이다 이러한形勢에對하야 一層 그對立關係를 尖銳化하는事態가 뜻하지도아니한 이베리아半島에서 演出되엿다는것은 興味잇는일이다 熱砂의 鬪牛와 熱情의나라 西班牙의 左右兩派의 猛烈한武力鬪爭이 七月末 모록코의 一角에서 勃發한爾來 오늘에이르기까지 全國이 完全히 阿鼻叫喚의 阿修羅巷으로化하야 十餘萬의 生命을 무찌르면서 決死的인 殺戮[illegible]을 繼續하고잇는동안에 獨伊兩國은 叛軍과 一脈相通하는 人民戰線政府打倒를 目標로하야 [illegible]爭하는 叛軍을 [illegible] 콤인테른이 人民戰線政府를 直接間接으로 援助하고잇나 佛國政府는 [illegible] 英國과함께 不干涉政策을 堅持한것은 歐洲全般의動亂化를 防止하는데 잇섯든바크나할것이다 不干涉委員會가 西班牙動亂을 中心으로한 [illegible]伊의 尖銳化하여가는 對立을解消하는일은 못할것은 말할것도 업다 이리하야 어린애싸홈이어룬싸홈되는格으로 西班牙動亂에對한 蘇聯對[illegible]伊兩國의敵對感의增長은 드듸여 히틀러總統의 前例업는公然한 蘇聯打倒論으로써 나타나게 된것이다。獨逸의 反蘇 運動에 對하야 蘇聯은 反政府 陰謀間諜行爲等의 理由로在蘇獨逸人彈壓으로써 應酬하얏다

◇

歐洲政局의 歸趨에 相當한因果關係가잇는 小協商其他諸國의 動向을 若干敍述할 必要가잇는것도아니나 이것들은 大勢를決定하는役割을 하는것은 아니오 結局은 英伊獨蘇等大國의 連衡關係에 依하야 左右되는 隨伴者들에 不過한것이다 그러나 西班牙의動亂이 人民戰線의 現政府派의 勝利에 歸하는가 또는 叛軍의 成功으로 終了되는가하는點은 佛蘇同盟과 獨伊同盟의 力의均衡을 破壞하는 重要한因子가 되는同時에 全世界的인規模에잇서서 左右兩派의 一方의 意識上의 昻進劑로써 深刻한意味가잇는것이다。特히 三十餘國家가 마조비비대고잇는 世界의 心臟部인 歐洲에잇서서는 人民戰線과 國民戰線은 어느國家에 잇서서나 國內的으로도對立되고잇는 形便으로 그影響은 極히 重大하다할것이다 그러면 마즈막으로 議會主義에代位하야 各國이 非常時를打開하려는포ー즈를取하고잇는 딱시즘과 또全世界를赤色獨裁의 權威下에 支配하려는 불쉬비즘의 現下의 意義는무어인가? 이世界의明日을支配하려는 怪獸는 現實的으로는 各國의 非常時局打開의 緊急手段으로써、吟味되고잇지마는 그것이 多分히 個人的自由를 國家의 目的및 絶對的인 規範에 從屬식힘으로써 幸福을 享有한 自由에서 服從하는義務、國家의 目的을 爲하야 勇敢히 鬪爭하는義務——이런感情의 連帶에依하야 社會의 進運을 企圖한다는 點에잇서서도 信仰的인 要素가잇다。政治運用形態로써 딱시즘과 불쉬비즘이 議會를 否認하고 獨裁主義를 採用함에잇서서는 共通된다 그러나 불쉬비즘에依하면 딱시즘의 議會否認論은 統制化한 高度資本主義의 獨裁要求의 提案이라는것이 議會否認論은 國家及 國民에對한 階級的 利己主義의 挑戰이라고 論斷되나 또 딱시즘은 議會를 經濟的考慮와 國情의 必須事情과의 間을永久히 隔離케하는 時代에뒤진 制度 (나치스 機關紙『휄키샤·베오바흐타』의 主張) 라고함에 對하야 불쉬비즘은 今日政治의 七○%는 事實 議會外에서 決定되고 議會는그것을 國民協贊의 레텔을 부치는 欺瞞機關에 不過하다고본다 또兩主義의 相異點의 重大한것을들면 第一은 딱시즘은勞働對資本의 抗爭이라는 目下現實에잇서서 强制的 勞資協調主義인데 反하야 불쉬비즘은 勞資의 決鬪卽決主義라고도 할것이다。第二는딱시즘이 어데까지 國家主義임에 反하야 불쉬비즘은 徹底한階級國際主義임은 周知하는바이다 이리하야 事實上으로死滅한自由主義의 後繼者로서 世界爭覇의『링』에 登場한 딱시즘과 불쉬비즘의 兩大獨裁主義는 只今 歐洲에잇서서는 國內的에서 國際的으로 擴大되야 猛烈한鬪爭을 展開하고잇는 事態를 우리는 西班牙動亂을 中心으로한 伊獨兩國對蘇佛兩國의 對立에서보는것이다 (完)

平和에對한 集團的保障의 國際的連環은、一九三六年으로써 完全히 切斷되고、軍事同盟과 經濟國家主義에 依한 自主의 安全感만이 가장 確實한 各個國의 自己保障이되고잇다、縱으로 國防充實競爭과 橫으로 左右兩國家群의 連衡」이것이 一九三七年의 숨김업는 世界의 姿態이다

多事多難한世界의面貌

極東情勢와中國

李元坤

所謂無條約 第一年을 마지하는 昨今의 極東政局은 文字그대로의 混沌狀態를 示現하고잇다。滿洲事變以來 滿蘇國境을 中心으로 끗칠줄모르고이러나는 紛爭事件、日蘇漁業交涉의 停頓 日中交涉의 決裂、太平洋을 中心으로한 列强의 海軍擴充競爭 中國市場에잇서 列國의 支配勢力確立競爭等等 이모든事實은 바야흐로 極東政局에 拍車를 加하야 步一步 一觸卽發의 危局으로 誘導하고잇다 그러면 今日 極東의 危局을 招致한 直接動機는 어데잇는가 그것은 말할것도 업시 大陸으로 進出하려하는 日本의 勢力과 이를 防止하려하는 蘇中兩勢力의 『對立』으로 要約할수잇다。

滿洲事變後 日本의 大陸進出에 猜忌의念에 불타는 歐洲列强은 聯盟의 힘을 비러 日本을 牽制하려하엿다。그러나 그것은 實力에依한 牽制가 아니라 『滿洲國不承認』이라는 精神的의것이엿다。失地回復을 最高目標로 聯盟에까지 提訴하엿든 中國이 이結果를 認識한後 決然『以夷制夷의外交』로부터 脫却하야

實力抵抗을 目標로 國內統一과 實力培養에 邁進하기를 決意하게 되엿다。蔣介石氏를中心으로한 南京政府는 統一에最大支障인 共軍을 江西本據로부터모라내고 [illegible] 中央政府에 對하야 不[illegible] 態度를 繼續하든 地方軍閥을 中央에 歸順식히기에 成功하고 南京政權에對해서는 對立的存在를 取하여오든 西南을 克服하고 北[illegible] 統一國家로서의 面目을 具備하게되엿다。特히 最近 張學良의 西安쿠데타로 一時中國의 統一工作이 砂上樓閣으로 瓦解되며 蔣의沒落後 群雄割據의 內亂의 巷으로 다시 轉化하지안흘가 하든 朝野人의 憂慮도 蔣介石氏의 洛陽歸還으로 統一의 基礎는 一層 鞏固하게된 感을 갓게한다。

도리혀 今回의 西安事變이야말로 蔣介石氏를 中心으로한 統一中國의 輕重을 問하는 重大試鍊이되엿다。一九三三年 聯盟에서 滿洲問題를 審理하든 當時『中國은 果然 統一國家인가?』가 問題되엿든 그때의 記憶을 想起할때는 實로 今昔之感이 不無하다。只今으로부터 四年前 中國을 統一國家로 承認치안튼 日本이 昨今에 와서는 南京政府를 相對로 日中國交의 全面的調整을 期하려하므로 其交涉結果는 如何든 日本이 中國을 統一國家로 承認하는 事實 그것만으로도

中國에 對해서는 實로 驚異的收穫이라할것이다 더욱이 南京政府는 近代的裝備를 가추 百萬의 中央軍을 擁하고 飛行機도 九百臺를 整備하고잇스며 特히 前日 蔣介石氏誕生五十週年記念日에는 全國民으로부터 七十餘台의 飛行機를 獻納한것은 모두 南京政府今日의 地位를 말하는것으로 抵抗力이 얼마나 增進되엿다는것을 示現하는 證左의 하나이다。俗談에 비취어보면 그림자도 두렷하다는 말이잇다。中國의 統一工作이 進步되고 南京政權의 基礎가 强化되는 其反面에는 根本政局의 將來를 憂慮케하는 暗影이 따르게되니 그것은 말할것도업시 排日氣潮그것이다。上海事變後 國民政府의 [illegible]交涉隱合에 依한排日潮流으로 한동안 終熄되엿든 中國의排日風潮는 年前北中事變을 轉機로 또다시 勃發되여 全國的으로 巨大한 衝動을 與하야 마침내 抗日戰線結成에로까지 組織化하게되엿다。그리고其後의 事態는 如何한가 그것은 昨年一年間 世界의 耳目을 發動케한 萱生事件을비롯하야 成都 北海 漢口 上海事件等 抗日테로가 連發하야 國民政府를 窮境에 陷入케하고 따라 日中交涉까지 停頓케하지안헛는가 비록日中交涉의 失敗原因이 日本側의 要求條件이 過大하엿든것과 南京政府의 態度가 意外로 强硬하엿든것에 잇슬것이나 南京政府가 始終一貫하게 領土保全과 主權維保를 基調로 交涉에對處하여오데는 現下의 中國國民의感情을 無視할수업섯기때문이다

中國의 對日軍備가 上昇의 一途를 것고 抗日風潮가 組織化하야 日中國交前途에 暗影을 던지고잇는 反面에 東에잇서 蘇聯의 動向은 如何한가? (게속)

近代化한中國軍隊의탕크隊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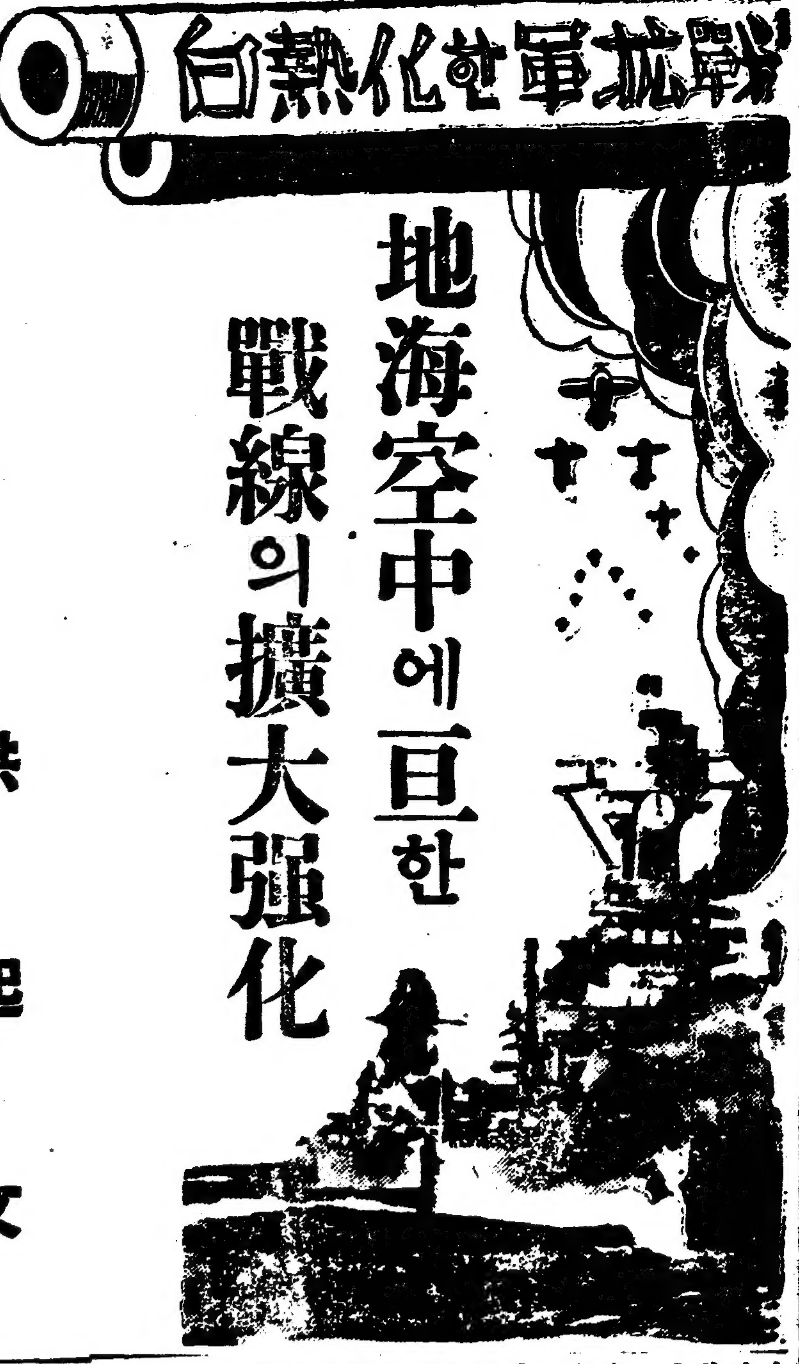
尹致昊

京城府樂園町三○○
京城朝鮮酒販賣株式會社
電話光化門 六八一·一六九一 三五八·一七九六

京城府和泉町五番地
活命水株式會社本舖
同和藥房
私書函西大門局十五號
電話光③ 一七一九番 四八一
振替京城 三二八番

蔘茸トニク
祛痰止咳露 製造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鍾路三丁目
電話光化門 二三五番 三〇三八番
振替京城一九〇七番

朝鮮京城太平通二丁目
藥種販賣 賣藥製造
濟生堂藥房本舖
電光本局六四五七番
電話本局一七二八番
振替京城五一六番



白熱化한軍擴戰

地海空中에亘한 戰線의擴大强化

洪起文

軍備의定義限界

軍備란 大體 무엇인가? 軍事行動을 爲한 準備의工作이라고 볼수 잇다. 銃砲라든지 艦艇이라든지 軍用飛行機라든지를 작만하야 둔다는 말이다. 그러나 軍事는 結局 人類로서 行하는 일인 以上 人類生存의 必要로 하는 그全部를 必要로 한다. 司令將官으로부터 兵卒에 이르기까지 人間이 不可缺의 要素라면 人間과 및 그들의 生活必需品도 軍備의 한 品目으로 치지 안흘수업고 武器를 製造하고 또 使用키 爲하야 各種의 原料를 쓰게 된다면 그 原料도 軍備의 한 品目으로 치지 안흘수 업고 더구나 交通, 通信의 모든 機關은 軍事行動의 進行上 重大한 關係을 이루는터라 그 역시 軍備의 한 品目으로 치지 안흘 수 업다. 그러케 본다면 農工 모든 産業部門은 勿論이요 人間의 生殖까지 모도다 軍備에 關하고 말게 된다. 그中에서 어느것이 軍備요 어느것이 軍備가 아니라고 말하는것은 실상 無意味한 소리다.

다만 우리가 常識으로 말하는 軍備의 意義는 좀더 局限된 範圍의 것이 아닌가?

萬一 强作하야 軍備의 意義를 制限하고자 할진댄 直接 軍事費의 名目아래 支拂되는 諸般施設이라고나 볼수 밧게 업다. 即 軍部當局에서 物品을 작만한다거나 고친다거나 사람을 기른다거나 부린다거나 等의일이다. 그러나 軍事費가 오즉 軍備 그것만을 爲하야 使用된다고도 볼수 업고 또 機密을 重히하는 軍部의 施設을 이로 헤아리기도 어려거니와 一種의 商船이나 民間飛行機는 有事之秋 장차의 操作으로 훌륭한 兵器를 이룰 수가 잇는 것이다. 그러한 制限으로서 狹義의 軍備를 定義하러 하다가는 도리어 前後矛盾에 빠지고 말뿐이다.

要컨댄 常識的으로 말하는 軍備는 單純히 兵器의 작만과 兵士와 故障等을 漠然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타. 그만한 程度로 軍備를 解釋지 안 해서는 나의이 論이 安心하고 나려가기 어렵다.

各國軍備의概要

獨逸의 再軍備가 佛蘇兩國을 刺戟하야 兩國의 互相援助條約을 生産시키엇슬뿐이아니라 英國의大宰相 볼드윈氏로 하야금 英國의 國境은 도바海峽에 잇지안코 라인河畔에 잇다고 絶叫케 하얏다. 獨逸은 防禦, 自國의 安全을 保障키爲한 再軍備라고 하지만은 佛國의現在軍縮의 聲明으로 「이어서는 獨逸은 大戰前 兵力表數의 基礎를 찻는 同時 侵略의 目的으로 그것을 强化시키고 잇다고한다. 一九三五年三月再軍備를 宣言한 以後陸軍으로 十二軍團 三十六師 五十五萬의 正規兵을 가지고잇고 海軍으로 對英三割五分의 比率을 承認바더서 約四十二萬噸의 保有量을 어든 셈이다. 陸軍으로는 豫備軍과 在鄕將校가 아즉도 不足할 것이나 二三年後 每年平均 三十萬國의徵兵이 可能하다고 할뿐 아니라 各種의手段으로써 方今그緩和策을 도모하고잇스며 海軍으로는 佛伊가 對英 五割인데比하야 對佛伊一割五分의 不足이나 그兩國보담 高度의 優秀한技術을 가지고잇스니 그不足쯤은 補充하고도 남음이 잇다고한다. 그러나

英國으로하야금 獨逸을 두려웁게하는所以然은그 陸海軍에잇지안코 空軍에잇다. 一九三四年 英國下院에서 콕스氏가 暴露한 바로 보건댄 同年까지 完成된 獨逸軍用飛行機는 一千七百五十臺 乃至 二千一百臺요 同國의 飛行機製造能力은 一個月平均 三四千臺이니 今後二年(一九三六年)에 五千臺 乃至 六千臺를 保有케 되리라고하얏다.

伊太利. 伊太利의 陸軍은本國軍 約三十萬 植民地軍 約六萬五千以外 稅關兵、護國義勇軍約四十萬等 膨大한 軍隊를 가지고잇고 海軍은 現有勢力이 四十萬噸인데다가 目下建造中이十一萬三千八百餘噸이요 未起工이 約八千噸이다. 伊太利도 最近으로 벗적空軍에 注力하야 超重爆擊機의 製作을 急히 서두른 結果 現在百十九中隊와 千五百臺의 軍用機를 保有하고잇다. 要前者 에디오피아를 征服할때도 空軍의 힘을 입음이큰 것은 말할 것이 업다. 그뿐이아니라 英國에서 對伊制裁를 失敗後 一步더 나가지 못한 것도 그 空軍의 威力을 인연함이 적지 안타.

佛蘭西. 佛蘭西의 陸軍은 去年三月 在營二年制의 採用으로 兵力 卄八萬으로增加、職業軍人 六萬八千 本國에 잇는 土人兵 四萬五千等으로 合計 四十萬에 이르고 海軍은 現有勢力이 五十五萬五千餘噸 建造中의 것이 十四萬一千餘噸 未起工이 七萬六千噸餘다. 獨逸再軍備 宣言이 나온後 空相은 十六億法의 追加豫算을 어더서 空軍 三分之二를 새로운材料로 裝備하얏는데 航空省配下에 잇는 飛行機만도 二千臺에 人員 約三萬이다.

英吉利. 歐洲에 잇서서 英國의 確保는 오즉 海軍으로서 잇서서 되야 왓고 또 오늘에 잇서서도 米國과함께 雙璧의 大海軍國을 이루고 잇는것이 事實이나 航空技術이 發達된 오늘에 잇서서 海上의 艦艇만으로는 二[illegible] 維持치 못 하게 된다. 일즉이 나폴레온을 惱殺시키든 도바海峽도 이제 이르러는 한갓 大陸으로通하는 짧은 길에 지나지 못 하는 터라 볼드윈氏의 말과가치 英國의 國境은 도바에서 라인으로 물러 나오고 말엇다. 그러나 不幸히도 英國의 現有空軍은 大端히 微弱하얏다. 一九三四年 空軍五個年計를세워 空軍兵力을 約二萬五千으로 增加코 軍用機 約千五百臺를 整備케되도다고 하야도 아즉 獨佛을 當하지 못 한다.

蘇聯. 第一 第二의 五個年計劃아래 蘇聯에서 着着 軍備를 整頓 乃至 擴張하야 간다는것은 이미 常識化된 이야기나 陸軍의 兵員數만 百五六十萬의 巨大한 數로서 더욱이 化學兵團 機械化兵團에 注力하고 잇다고 하며 空軍도 四千臺의 軍用機와 三萬五千의 兵力을 가지고 잇서 世界第一流에 達한다고 한다. 蘇聯의 軍備中 아즉 微弱한 것이 海軍이라고 하는데 方今 그 建造에 [illegible]하야 잇는中으로 的確한 數字를 알기는어렵다나

米國. 日本에서 海軍條約의 廢棄를 通告한以後 米國은 全力히 海軍擴張에 努力하고 잇스니 建造中의 것만이 二十萬二千噸이요 未起工도 十五萬噸이다. 거긔다 現有의 百八萬 二千噸을 加算한다면 百四十餘萬噸에 이를것이다. 空軍도 一九二七年以來第一次航空五個年計畫을 完成하고다시 第二次計畫을 實行코자 하며 陸軍의 機械化 自動車化에서 莫大한 費用을 던지고잇다.

軍備競爭의側面

西洋古諺에 戰爭이란 첫재도 돈, 둘재도 돈, 셋재도, 돈이라고 하는말이잇다. 軍備에도 그와가티 돈이要求케되는 것이다. 그러나 軍事費의 制限이 잇는以上 어떠케 無制限한 競爭을 할수 잇는가? 設使 財政의 無理한 膨脹으로써 多少의 軍備擴張을 可能케 한다기로니 그역시 어느程度까지의 問題가 아닌가? 거긔서各國의 軍事費의增加는두가지의側面的意義를가지지 안할수업다

即 實用을 드리지 안코 假想敵의 軍備보담 自國軍備의優越을 保障하는 方法으로 두가지가 잇다는 말이다.

技術, 大戰때聯合軍의 勝利가 英佛元帥의 戰略에 잇지 안코 탕크에 잇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잇다. 새로운 武器의 發明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證明키 爲하야 多少의 犧牲도 無妨하다. 그와가티 各國은 새로운 武器의 發明은 勿論이요 모든 方面에잇서 技術的 向上에 져각금 머리를 싸히고 잇。나치스 獨逸以前부터 벌서 獨逸軍은 黃十字라는 毒瓦斯의 性能을 試驗키 爲하야 巴里와 倫敦의 地下鐵을 借用한 일이잇섯다. 各國이 다함께 이方面에 奔走하고 또 그 結果는 秘密에 부치고 잇슴으로써 아즉어떠한 驚人의發明과 技術的向上이 잇는지 알수 업슬것이다. 단지 間或 새어 나오는 것으는 佛國某理學者가 殺人光線을 發見하얏다는등 獨逸의 나치스隊長某가 빼레리아病菌을 發明하얏다는등 眞否曖昧의 消息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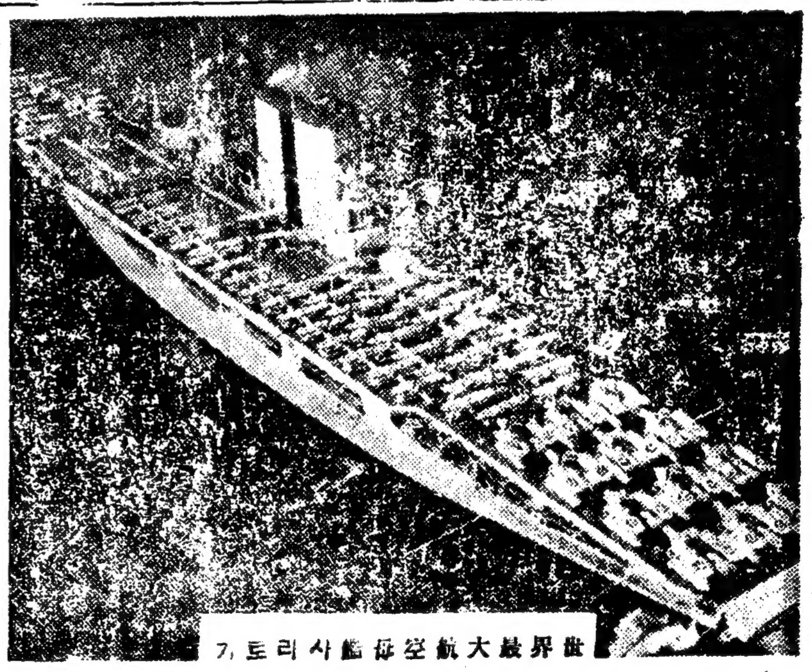
友好國의軍備와 友好條約의締結 約四萬點의 生産關係를調査해서 본 結果 佛國의 戰爭可能性은 七十五點半 인데 對하야 獨逸은 百二十三點이나 거긔서 波蘭의 二十四點이 어듸로 가느냐는 安危의分水嶺 을이루게된다。그 點으로 보아서 獨波의 不可侵條約은 그만큼 獨逸의軍備를 增加시키고 佛國의 軍備를 減殺시키는 것과 가튼 結局에 到達된다。小協商國側의 同盟을 에워싸고 獨佛의競爭이 얼마나 白熱化하고 잇는가? 그곳 軍備戰爭의 한側面이어든가? 또 그뿐이 아니라 友好國의 軍備를 擴張하는것은 結局 自國의 軍備를 擴張하는것과 가튼 結果를 엇는다. 그래서 佛國은 小協商諸國의 軍備를 積極的으로 援助하고 伊太利는 墺匈의 再軍備를 支持하는것이다.

各國軍事費一覽

各國의 軍備競爭이 얼마나 激烈한가는 最近 歲出에 對한 軍事費의 %로써 가장 잘說明할수잇다. 비록 煩瑣하나마 아래에 그比率表를들어보이겟다

	一九三二—三三年	一九三四—三五年
獨逸	七、九%	一一、〇%
伊太利	三〇、八%	三三、七%
佛國	三五、〇%	三四、〇%
英國	一三、七%	一五、四%
蘇聯	六、五%	六、四%
米國	一九、四%	一八、五%
日本	二六、〇%	三七、〇%

[illegible] 數字를 들엇스면조켓스나 未詳한 나라가 만하서 不得已 [illegible] 되것이다. 一九三六—三七年의 것으로 英國은 二〇、〇% 蘇聯은 一八、八% 米國은 二〇、五% 蘇聯은 一八、八%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즉 直接의 軍事費뿐이나 적어도 이以外 軍略的鐵道의維持 또는 敷設, 그와가튼港灣 通信의 施設等은 當然 이軍事費에 加算되어야만 할것이다。그러케만치면 歲出總額에 對한 그比率은 훨씬 더올라가지 아니치 못한다。一九三四—一九三五年度 英國의例로 본다면 歲出 一磅에 對하야 軍事關係의支出이 十一志一片인데 그外의 支出은 八志十一片이니 英國 歲出의 太半을 占하는 것은 結局 軍事費增額의 實用에 [illegible] 안는 것이다 비단 英國뿐이 아니라 모든나라가 大槪 그러한 現狀이다.



世界最大航空母艦사라토가

白熱的空軍競爭

陸海軍 어느것도 競爭이 업스랴만은 現下 가장 猛烈한 競爭의 對象을 이루는 것은 아모래도 空軍이다。伊太利 도혜트將軍의 말과가티 空中은防禦力이가장不充分한戰場으로서 交戰國의 陸軍 或은 海軍이 [illegible] 前提지 못하는限 急速한勝利를 決定할것은오직空軍임으로 다토아 空軍의 擴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일것이다。그뿐이 아니다 그以外에도 空軍의擴張이 여러가지로 有利한點이 잇다.

一、자꾸자꾸 發達되야 가는 化學戰을 遂行키 爲하야는 空軍이 가장 必要한것

二、敵의陣地를 突破하거나 그 後方을 攪亂시키는데도 空軍이 絶對 必要한것

三、또 海軍의 艦艇에比하야는 建造費用이 훨씬 적기때문으로 建造하기가 쉬운것

四、그와同時에 海軍의 艦艇보담 體積이 적기때문으로 相對方이 모르게 秘密裡에 建造도容易한것

그러나 英國의 新聞王 로다미歐의 말을 듯건대 第一線에 나갈 飛行機가 一千五百臺라고 친다면 準備를 要하는 機數는 그 五倍에 達한다고 하고 또 트렌차드將의 말을 듯건대 飛行機의 損失이 一個月間 얼마나 되느냐 하면 平均一〇〇%라고 한다。그러므로 空軍擴張에 對한 競爭은 오즉 現在의 機數增加에 끄치지 안코 다시 한 거름 더 나아가서 飛行機製造能力의 擴充으로된다。一九三四年 各國 飛行機製造會社의 數는 獨逸 三十六社、英國 三十八社、佛國 五十一社、米國 九十四社인데 그後 獨逸은 四十六社로 늘엇다고 한다。各社를 合算한 各國의 製造能力이 總 얼마씩이나 되는지 그것은 勿論 알수 업는 일이다。

서로서로 軍備戰爭을하고보니까 結局에잇서 相對方에 比하야 現在보담 아조 엄청난 優勢를 가저 볼수는 업는 일이다 萬一 多少의 利得이잇다면 좀더 機敏하게 좀더 有效하게하야 現在보담 若干의有利한點을가지게 될뿐이다。그럼으로 軍縮이나 軍備戰爭이나

軍備의 相對的 意義로보아서는 何等다른것이 업는것이니 오직前者는 妥協的으로 相對方에 對한優勢를 要求하는것이요 後者는 非妥協的으로 그것을도모하는것이다。妥協과 非妥協은 오직 方法의差異지 相對方의 優勢를 保障하려는 그動機에는 조금도 다름이업다。그러나 大戰直後와가치 戰爭에對한 忌避 乃至 厭忌의 思想이 盛하고 各國의 對立關係가 多少 餘裕를 가질때는 妥協的으로 一方이不利를 무릅스고 軍縮條約을 承認할수잇섯스나 지금다시 各國對立이 尖銳해지는同時 軍國思想이 왕성케되매 그存續을企待키가 어려웁게되엿스니 有利한一方에서 그 存續을 바랄수록不利한 一方에서 그러케 하려고 하지안는다。오늘날 軍備戰爭은 거의世界情勢의 不可避한 現象이다. 마치 그런데軍備戰爭의 結果는 무엇인가? 그야 물을것까지 업스리라。(完)

西班牙動亂의展望 ①

鄭鎭燮

鬪爭하는兩勢力

歸結如何는歐洲社會史의指針

血과砂의鬪爭의象徵인革命

오렌지열매여는熱情의나라, 카르멘과鬪牛로 有名한 西班牙에서 革命이 勃發한지 이미 五個月이 지낫다. 政府軍 叛軍그어느便이 最後의 勝利를얻을것인지 一時에는 首都마드리드市까지陷落되엿다고 傳하든것이 急轉하야 最近다시政府軍側에서 勢力을 回復하야 마드리드市及 附近一帶를 奪還하엿다한다. 雙方이 一進一退하야 갈작히 그勝敗를豫斷키 어려우나 革命軍이 勝利한다 政府軍이 勝戰 할가는 結局 西班牙에잇서서 軍人을 中心으로하는 右翼的獨裁政權이 出現할것이냐 或은 勞動者農民을 中心으로하는 左翼的共産主義色彩가濃厚한 쏘베트에가까운政府가 確立할것이냐의 岐點이되므로 單純히 西班牙國內의 重大問題뿐만아니라 左右兩翼의對機이 나날이激烈하여가는今日 歐洲列强에 자칫하면 第二世界大戰이 爆發될重大危機에 迫到하게되엿스니 國際情勢로도 重大問題에 逢着하게된것이다

「叛軍派」가 右翼軍人을中心으로、王黨、貴族、大地主、資本家等입에反하야 政府派가 勞働者農民即勤勞階級이니만치 西班牙의今回動亂은 有產階級과 無產階級과의 階級戰이오 人民戰線現政府의 革命에對한 反革命이다. 우리에 課題되는것은 西班牙動亂의 展望이니만치 이나라의社會機構를闡明하여야만하며, 이것을 闡明하여야만 今回動亂의 性質도 알수잇는것이며 動亂의今後도어느程度推測할수잇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一定한社會가 다른一定한社會로推轉할때에는 現存한 社會內部에必然的으로 推轉할만한 經濟的 乃至社會的諸條件이 存在하지아니하면 決코다음 社會로止揚되지안는것이다. 따라서 生產關係와社會機構를闡明함은 그社會의健全不健全을 알수잇스며 一步를前進하야 今後의發展도推測 할수도잇는것이다. 이러한意味로써 筆者는 西班牙의社會機構로부터이論文을草하고자한다.

封建遺制와進步的要素相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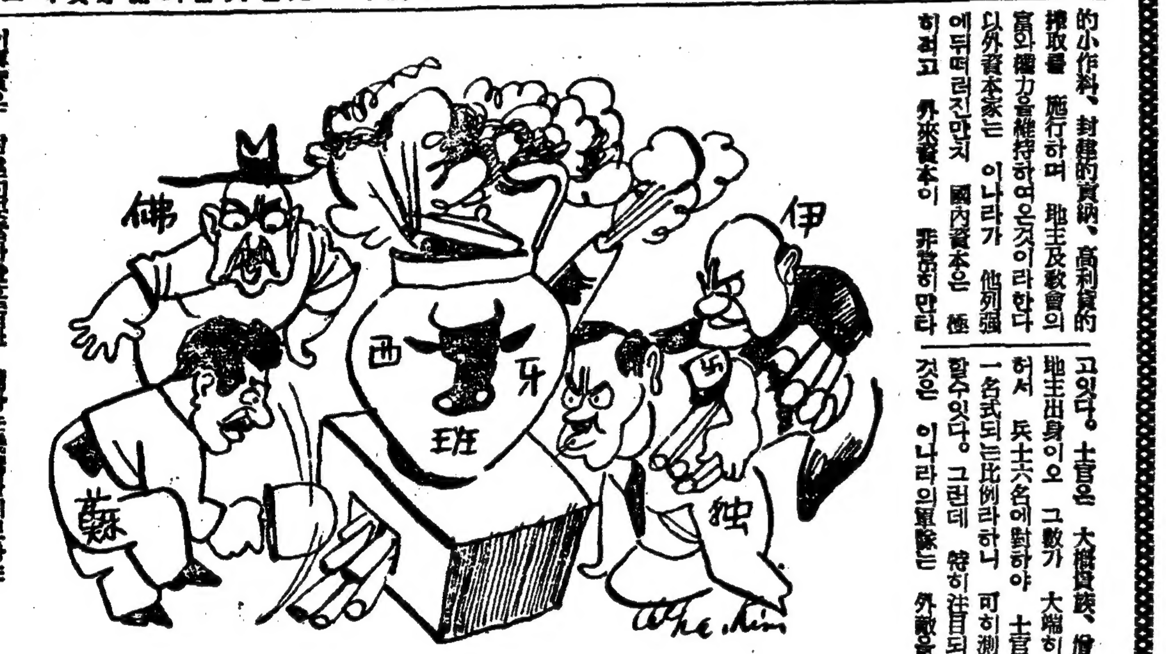
今日의西班牙는 資本主義的最高의 文化를자랑하는泰西列强中 唯一한半封建的性質을가진國家이다. 元來이나라는自然的地理的條件이人間生活에不適當하야許多한山嶽과 狹谷이 國內에散在할뿐아니라 雨量이不充分하야이나라의主되는產業農業은

「人工的」灌漑가아니면 經營할수업는不幸한狀態에 잇스며 이보다더不幸한事實은 十六世紀以來商業資本의 非常한發達로 그反動的保守的性格이 資本主義發展을 甚히阻害한것이다。如斯한自然的及社會的不幸한要因이 이나라로하야금 西歐列强에比하야 中世的封建的殘滓가 가장만히存續하게한것이며 經濟的發展과 아울러政治的發展을遲延케하며 資本主義에 뒤떠러진後進國家가되게한것이다. 그러타면 이런西班牙의今日은 그社會機構가어떠한가?

이나라에는 다른文明列强과가티 地主、資本家等 有產階級과 勞働者 貧農 等無產階級이 對立되여 잇는것은 勿論이오 그中間에서 左右로 動搖하는 小市民及 自作農(中農)等의 中間階級이잇는것도 再言할必要조차 업다.

(一) 有產階級 西班牙는 元來封建的農業國가만코 또農業國인만치 이나라의有產階級은 廣大한土地를所有한 大地主及僧侶外에 資本家들도잇다 全人口의 七割以上의農民大衆이 一割未滿의低級土地를가젓다하니 西班牙地主側이 얼마나土地를獨占하엿는가推測할수잇다。이大地主中에는 貴族과 僧侶等이잇는데 그들 勢力이매우커서 다른地主과가티

「封建的」特權下에隷屬된農民 農民과 農業勞働者에게 土地를 耕作시켜서 入額以上이나 高率의小作料, 封建的貢納, 高利貸的搾取를 施行하며 地主及教會의 富와權力을維持하여온것이라한다 以外資本家는 이나라가 他列强에뒤떠러진만치 國內資本은 極히적고 外來資本이 非常히만타



이事實은 封建的要素가만흔西班牙에서 더一層資本家의 存在意義를 적게할뿐아니라 他列强에比하야 그勢力이薄弱하게한것이다 以外이나라에잇서서는 軍人(士官及官吏)의 政治生活은 다른西歐列强에比하야 重大한役割을하고잇다。士官은 大槪貴族、僧侶地主出身이오 그數가 大端히만허서 兵士六名에對하야 士官이 一名式되는比例라하니 可히測量할수잇다. 그런데 特히注目되는것은 이나라의軍隊는 外敵을防備하는機關이라기보다는

「國內의」將官、士官等官僚主義를 維持하라는機關인것이라한다. 以上과가튼 要素를 가지고잇는 西班牙의 有產階級은 地主、僧侶、軍人이 右翼의 가장强한勢力이되는것은 再言할必要도업거니와 資本家와 地主와의對立도 勞働階級의 急激한 擡頭에依하야 妥協되고말뿐아니라 資本의 勢力이 薄弱하므로 말미아마資本家에 貴族되所在까지 廢棄하고 反對로勞働者農民을 壓迫하는 안잔·레잔의反動陣營으로 들어가고말엇다。

(二) 無產階級 이나라의 無產階級은 工業勞働者 農業勞働者及貧農인데 그數가絶對多數임은勿論이오 그들生活도 悲慘한 狀態에잇다 한다. 大端히 過重한 小作料、封建的貢納、高利貸金業에 依하야 搾取當하는農奴的貧農、鐵鋼業上에서 우는農業勞働者, 以前에 工業、商業、交通勞働者等은 一日一페세타 乃至三페세타라는 低賃銀으로 糊口之策을 세우라하는데 또 勞働日數가 一年에 겨우 百日 乃至二百日에 不過하다하니 그生活程度를 可히 推測할수잇다. 그런데 最近『알게마이네·크리제』以後

「尨大한」失業者群이 發生하야갓득이나 低賃銀으로 苦痛하는이나라의 勞働者는 農民의 貧困化와 永久的 產業豫備軍의 重壓으로, 一層 生活水準을 低下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悲慘한 狀態이다.

(三) 中間階級 上述한 基本的 二階級以外에 都市小市民及 中農으로 構成된 푸티·부르조아가 잇는데 이階級은 이나라의 封建的後進性으로 歐洲他列强에 比하야 相對的으로 巨大한數에 達한다. 手工業者, 中小商工業者、中下級官吏、俸給生活者等 都市小市民階級은 그 經濟的根據가 薄弱하므로 말미아마

「基本的」兩階級사이에不斷히 動搖하고 잇스며 그一部는 그들이糊口之策을 엇는敎會에影響되며 保守的反動이되고 他一部는 封建的殘滓인 諸制度及敎會에 積極的으로 反對하야 民主主義의 先鋒이되며 或은 勞働階級에 援助를 주는것이다 以外이中間層에 附屬된 中農及自作農은 大地主及 高利貸金業等의 搾取로 말미아마 農業勞働者보다그經濟的地位가 나흘것이 업다. 이들도 小市民과가티 一部는

「敎會에」影響되여保守的反動이 되고 他一部는 自己네의 貧困을버서나 그들生命을維持할라면 農業革命以外 別道理가 업다는 것을깨닷고 勞働者指導下에 모히여 共同戰線을 取하게되는것이다.

西班牙의 社會機構는 大體以上과가트나 封建的殘滓가 만코 資本主義的推進性에 依하야 이나라의 被支配階級은 二重으로 苦痛을 밧게되며 따라서 上下의軋轢이 다른나라보다 激甚하며 動亂이끄칠사이가업섯다。

二、最近五個年間의 左右兩翼抗爭

上述한 不健全한 社會機構를 가진 西班牙의動亂은 今番突然히 發生한것이 아니오 左右兩派의 抗爭은 이미 오랜歷史를 가진것이다

(계속)

寫眞製版用藥品及機械
甲子商店朝鮮出張所
京城府松月町六九番地
電話光化門九〇四番

コンゴーバルサン 其他一般新藥製造發賣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十七
電話本局一三五三·四九六一

京城府鍾路三丁目二五番地
博愛堂藥局
電光一七七番
振替二二六〇三番

京城府鍾路二丁目
白楊堂藥房
電話光一九一三番

青山膏
ヒベツコ
本舖 青山製藥社
京城光化門十字路

兒寶 大學膏 本舖
京城藥局 洋藥部 漢藥部 製藥部
京城鍾路一丁目八七
電話二三七四番
振替京城八三六七番

京城府齋洞町一九七ノ一
漢城醫院 李明善
電話光一九七番

京城府竹添町二ノ九三
藥種商 貿易商 合資會社 京城新藥社
電光二七三六番
振替京城二三七一番
支店 奉天大西邊門外

京城府堅志町七
醫學博士 吳元錫醫院
電話光化門二一三一番

京城府[illegible]町五五番地
咸濟醫院
東西醫學研究會長 金明汝
電話光(3)一四六六番

京城府[illegible]町二〇三(國成社前)
金然權齒科醫院
電話(光)一〇七九番

X光線科 物療科 增設
各科大衆的經費診療
京城府貫鐵町一三五
大衆醫院
電話五二一四(오이사)

京城公平町一番地
高永珣內科醫院
電光一六二六番

京城府壽松町二六番地
李先根小兒科醫院
李先根 龐德興
電話光(3)二〇〇八番

京城府中學町二六(總督府前)
金弘琯內科醫院
電話光化門三一三番

外科 X光線科
醫學博士 吳一承醫院
京城樂園町九五番地
電話③光化門二八五一

改訂版뉴ー딜

再選된『루』大統領 新政策進路打診

改訂版뉴딜에는保守傾向이濃厚?

韓普容

昨年十一月三日의 米國統選擧에依하야 現大統領 프랭클린·델라노·루ー즈벨트氏는 米洲四十八州中 單二州 即 메인州와 뉴함프시어州를 除한外의 四十六州全部를 리ー드하야 『엘렉트랄·보ー트』(選擧投票)五百二十二票對九票라는 壓倒的多數로서 共和黨候補 랜든知事를 一蹴하고 다시 今後四年間 米國에 君臨하게되엿다。이것은 一八二〇年 몬로ー大統領이 單一票를除한外에 거이全米를 리ー드한以來의 레코ー드로서 이가튼例는 米國歷史上에서는勿論、全世界를 通하야서도 稀有한 事實이다。(그러나 如斯한 壓倒的結果를 나타내게된理由는 米國選擧에잇서서는 州를單位로하야 州에서 過半數를占하면 그州의 『選擧投票』全部를 勝利한便으로 計算하는까닭이며 『포퓨라·보ー트』(人民投票)로는 二百四十七萬對 百五十萬即 約六對四의 勝利에不過한것을 附言하여둔다。) 그리하야 今月二十日 第二期로 다시 루氏는 新大統領에 就任하게되엿다。

그러면 루大統領이 이가티 絶對的優勢로 再選된理由는 무엇인가? 或者는 루氏個人人氣를 말하고 或者는 時勢의變遷을 말하지마는 結局은 루氏가過去四年間 行하여온 뉴딜政策에 歸着하게되는다。다시말하면 米國國民이 뉴딜을 그만치支持하는것을 意味한다。그러나 뉴딜政策이 밟어나오기는 平坦치아닛다。大審院에서 違憲判決을내렷슬뿐아니라 各界人士의 反對도 相當하다。따라서 一般도 今後뉴딜政策에는 多少의 修正이 잇슬것을믿는同時에 루氏自身도 幾分修正할것을 豫期하고잇다。그러라면 이번新就任을契機로 修正되여나올 改訂版뉴딜政策은 어떠할것인가?

NRA는結局에 資本主義에屈伏

改訂版뉴딜政策을 打診함에는 먼저 뉴딜政策內容이 어떠한것인가를 알必要가잇다。勿論 米國政治經濟에 多少라도 留意하는사람은 누구나 뉴딜政策이무엇이지를 잘알것이나 本問題取扱上 極히簡單히 現行뉴딜政策의 內容及그經緯에 言及하기로한다。

뉴딜(New Deal)이라는말은 NRA(産業復興法) AAA(農事調整法)을 二大支柱로한 루ー즈벨트政府의 根幹的인新規政策으로 一言으로말하면 于先 物價及賃金을 引上하야 債務輕減을 圖하는 同時에 購買力增進에依하야 産業復興을 期하려는 말하자면 米國不景氣打開策이다。資本主義社會의 普通境遇에잇서서經濟的不況이 襲來하면 勞働賃金은 引下하고 勞働時間은 延長함으로써 産業을 復興시키려하지마는 루ー즈벨트氏는 이境遇에는그方式을 달리하야 賃金을 引上하고 거다가 勞働時間을 短縮함이다。即 前者는一般的으로 購買力을 增進하려는 手段이며 後者는 失業者를 救濟하야 結局 購買力을 增進하려는 方策이다。그리하야 購買力이 增加되면 及其他 産業은 發展될것이오 産業이發展되면乃終에는 資本家도 利潤을 得하는것이 루氏의理想이며뉴딜의特徵이다。

NRA는 루大統領이 就任한直後 即一九三三年六月十六日에成立되어 不景氣打開策으로 全米産業이 스타ー트를發한後 全米産業의 九割以上의 産業規約을締結(政府와會社間에)하고 一九二六年을 基準으로한 同一水準의賃金引上을 目的하고 都市農村의 購買力增進으로 互相生産品消費量增殖하려하엿다。이外에도 勞働者의 不當搾取로 過大한生産과 其他여러가지 手段으로 景氣回復을 爲하야 英斷的政策을 쓰게되엿스나 各方面에는此에對한 非難이 甚하게되엿다。即NRA가 目的한바 그理想은 資本家나 中小企業家나 勞働者나 또는 大資本家나 모다共存共榮하려는데잇섯스나 그實施의 結果는 NRA自體의 內包的矛盾에依하야 大資本의 勝利와同時에 中小企業者의 沒落을齎來하게되엿고 物價騰貴에 同伴치못하는 賃金引上으로 勞働者의 生活은 一層더威脅을밧게되엿다。이와가튼 難局에直面하게되자 루ー즈벨트氏는 드되여 一九三四年六月七日NRA의 重要部分인 價格統制規定의 削除를 聲明하게되엿고 此에 依하야 極端的統制論者인 NRA總指揮 죤슨將軍은 同年九月廿五日 不得已引退하게되엿다。獨裁將軍 죤슨氏가 退陣한後 린치버ー그氏가 登場하야 國家統制로부터 自由競爭的으로 擴大하고 勞働者、一般消費者를加한 統制委員會의 設置로 大資本牽制 勞働者保護에 多少의期待를 가젓스나 亦是大資本家側의 反對가甚하엿고、또 大審院의 違憲判決에 依하야 NRA는 約二個年의 짧은 生命을 一期로 終焉되고 마럿다。NRA는 破滅에直面한 米國産業界를 어느程度로 救出한것은 事實이다。NRA의 活動期이엿든 一九三三年六月부터 一九三五年五月까지 約二個年間就職勞働者가 一割六分、賃金支拂高가 三割五分可量 增加되엿다。그러나 總賃金百五十一億弗이라는巨大한 數字에 比較할때에 이것은 實로 微微한 功績인同時에 上述한바와가티 物價騰貴에 同伴치못하는 賃金引上으로 勞働者의 困難은 依然히 繼續되여왓다。그리하야 NRA가 促進한것은 結局 獨占資本의 勝利인同時에 國家權力으로도 資本을 牽制하기어려나는 米國資本主義의 威力을 實證한데 不過하엿다。

NRA의退却과 루氏의今後進路

NRA는 違憲判決과 同時에 이미 消滅되엿다。그러나 國民의多數가 그것을 支持하므로 루氏가 再選되엿고 NRA는 뉴딜의 二大支柱의 하나이엿스니만치 今後四年間 米國統治者로서 新大統領에 就任하게된 루ー즈벨트氏가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NRA의 內容政策을 實施하려할것은 推測할수잇다。그러면 第二期大統領으로 君臨할 루氏는 어떠한 産業政策을 쓸것인가? 아직 斷定的으로 말할만한 具體的플랜은 알수업스나 그는 去十一月十日 即 再選이 確實하게된 一週後 開催中의米國勞働立法協會會議에 다음과가튼 멧세이지를 보내엿다。

「來年은 勞働立法史上 特筆할만한 해일것이다。그것은即

一、安全且保健的 職場。

二、傷害、工場病、失業、老等에對한 勞働保險。

三、合理的勞働時間의短縮。

四、公平한年收。

五、健康한 住宅及幼年勞働의 廢止。

이五項目을 包含하게될것이다」

이에關聯하야 注目할만한것은 勞働組合 또는 一部社會에 新NRA의 設立運動이 擡頭하고 잇다는 事實인데 일찍이 獨裁力을 휘날리든 죤슨將軍은 十一月九日에 다음과가튼 見解를 發表하엿다。

「新NRA는 聯邦政府의 救濟能力을 基準으로 할것인데 그方法으로서는

一、標準勞働時間과 最低賃金制를 設定할것。

二、右規定을 犯한雇主에 對하야는 그工場에서생긴 失業者에 正比例하야 救濟基金을 賦課할것。

이二件이다」

라고 하엿다。實로 獨裁將軍죤슨式말이다。그러나 新NRA의 內容方法이 이러케까지 될는지는 疑問이나 前期와 루ー즈벨트氏가 新勞働政策을 實行할것만은 事實일것이다。그는 勞働階級의 支持에依하야 再選의 榮光을 쓰게된것을 잘아는同時에 그는 資本家에 對抗할 勞働者만한 强大한 사람은 아니까닭이다。따라서 그는 絶對로 向後四年間 아니 그의 一生을 通하야 資本家의 代辯者的立場에는 서지안흘것이다。그러나 同時에 그는——뒤에말한바와가티——그의 政敵이 宣傳하는바와가튼 共産主義者도아니오 社會主義者도 아니라는것을 아러둘必要가잇다。

AAA의解消와 SCA의新役割

NRA와 함께 뉴딜의二大支柱로 되어잇든 AAA即 農事調整法은 一九三三年 五月十二日公佈實施된것으로 FCA(農村信用法)와 함께 近 三年동안 米國農村恐慌克服을 爲하야 그任務를 다하여왓다。

AAA는 同法第一條에 說明되어잇는바와가티 「現下 深刻한 經濟恐慌이 齎來한 原因의하나는 去益擴大한 農産物價格과다른商品價格과의 均衡이 維持되지못하는데잇다」고 認定하고 이不均衡을 是正하는方法으로 農産物의 生産을 統制하야 農産物價格을 工業製品과 同等의水準에 引上되면 農村購買力의 自然增進에따라 結局 工業品의 消費市場은 農村에 發見될것이므로 NRA와 아울러 農工兩方面의 互相扶助로 直面한不景氣를 打開克服하려는것이다。그리고 生産統制의 手段으로는 主要農産物耕作地減段을 斷行하고 減段農民에對하야는 補償金을交付하게되엿는데 그財源은 加工稅의 形式에 依하므로 結局은 米國大衆의 負擔으로 轉嫁될것이다。그러나 加工稅의 直接的犧牲者는 一般消費者라할지라도 이것은 事實에 依한것이오 實際負擔者는 農産物加工業者이므로 이들의反對가 相當히 强하엿든바 昨年正月六日 후ー사크·미일事件에잇서 大審院은 加工稅徵收는 聯邦以外의權限外라는 理由下에 AAA의違憲判決을 내리게되어 이여兩大支柱를 일흔 뉴딜政策은 完全히 崩壞되게되엿다。

AAA를 中心으로한 루ー즈벨트氏의 農業政策은 許多한 迂廻曲折은 잇섯다하지마는 뉴딜分野中에서 가장顯著히 그効力을 發揮하엿다。勿論 豫期한바와가튼 水準까지는 農産物價格引上에 成功치못하엿지마는 一九二六年의 農産物價를 一〇〇으로잡고 AAA의 活動期이엿든 三年間의 農産物價指數를보건대 一九三三年에는 四二·八에 不過하든것이 一九三五年에는 八〇·二로 騰貴하엿스며 農業融通法其他 여러가지 農村振興、農民救濟策에依하야 極度로 疲弊하엿든 米國農村이 破滅에서救出된것만은 否定할수업다。十一月選擧에잇서 中西部農業諸州는 루氏를 支持할것으로 一般이 豫想하엿고 또選擧結果가 亦然한 事實은 此에基因하는것이다。

AAA가 違憲判決로 退却한 後에 루氏의 새로운 農業政策은 SCA 即 土壤保護法으로 代身되엿다。SCA는 風蝕水蝕의 念慮가잇는 土地의 保存을 爲하야 此等土地에는 農家에서 商業用에 供給할수잇는 農産物을 심지안코 土壤保存에 適當한 作物을 植付케하는 同時에 此에 對한 一定한 補助金을 交付하도록 된것인데 이리하므로써 棉花、小麥等 重要農作物植付를 不可能하게만들어 實質的減段 即 AAA가 目的한바와 同樣의 結果를 齎來하려는것이 그目的이다。

憲法修正의熱意 루氏에잇는가?

루ー즈벨트大統領의 뉴딜政策은 NRA와 AAA의 違憲判決에 依하야 破壞된것은 事實이나 그가 憲法에 違反되지안는限、아니 法網을 속여가면서라도 뉴딜政策內容을 實施하여가려고 努力하는것은 事實일것이다。그리고 資本家側에서 뉴딜政策에 對하야 反對하고 또 그反對를 支持하야 聯邦大審院에서 違憲判決을 내린다 하드래도 이것을 多大數의 米國國民이 支持歡迎하고 잇는 事實은 今回選擧結果로서 明白히左證되엿다。따라서 第二期新大統領으로 就任하게된 루ー즈벨트氏는 憲法抵觸을 避하기爲하야立法上의 煩雜한手續과 努力及 實用에 相當지못하는 收穫으로 滿足할理가업는즉 壓倒的勝利의 이機會에 모든障碍를 一掃하고 거침업시 自己理想을 實現하기爲하야 憲法改正에 着手할것이라는것이 一般的觀測이다。그러면 果然 再選된 루ー즈벨트大統領은 뉴딜政策을 破壞하여버린 憲法條項을 廢棄하기爲하야 地方分權的 米國傳統的 政治思想을一擲하고 中央政府의 威力으로 斷行하야 中央集權的 憲法修正을 뉴딜政策을 强化할 熱意와 勇氣가잇는가?(下略)

今回選擧結果와 루氏의經路로 보아 이것을想像에 不過한듯이는 생각이업지안호나 그러나 米國社會에는 아직도 地方分權主義를 尊重하며 特히 데모크라시ー를 擁護하는데는 此에限한다는觀念이 뭇사람의 腦裡를支配한다。그러므로 아메리카의 建國的精神이오 傳統的思想인 自由民主主義的 憲法을獨裁的中央集權主義로 改造하려한다는 反對派의 巧妙한宣傳이 流布될때에 米國國民은 한번다시생각하게될것이다。總選擧에잇서 루氏를支持하엿다는것은 루氏의憲法修正을贊成한다는말과는 다르다。또 米國政黨實情을본다면 與黨議員이라고 반드시 政府案을支持하는것이아니오 野黨議員이라고 반드시 一致行動을 取하는것이아니다。即米國議員의 對政黨關係는 他國에比하야 比較的 黨籍區劃線이 漠然하다。

뉴딜政策은結局 資本主義의擁護

假使 그러다할지라도 루氏의 人氣와勢力으로 熱誠이 잇다면 憲法修正도 不可能할것은 아니다。그러나 資本力이 絶對한 그는、理想主義로부터 現實主義로 도라온그는 憲法修正問題와함께 모든지 끄러오는 問題가 나올것을 잘알것인同時에 現行 憲法下에 可能한程度의 政策施設을 遂行하는것이 便利하고有利하다는것을 생각하고잇슬것이다。

루ー즈벨트氏가 뉴딜强化를爲하야 憲法을 修正치안호리라는것은 以上敍述한以外에 그의政治哲學上으로도 推測할수잇다。選擧戰運動에잇서 共和黨側에서는 그를 社會主義者니 共産主義者니하고 宣傳을 하엿지마는 루ー즈벨트氏는 共産主義者도아니오 社會主義者도 아니다。그는 直面한未曾有의 大恐慌을克服하기爲하야 英斷的으로 社會政策을 多分히加味한 一個부르조와政治家에 不過하다。(中略)

그리고 뉴딜은 資本主義의擁護政策이라는것은 루氏의 再選이 確實하게되자 米國 産業諸株가 一齊히 暴騰하야 鋼鐵會社에는 給料一割引上을 決定하고 石油會社 自動車會社等은 特別賞與 一千萬弗을 주게된 事實로 充分히 證明할수잇다。

이러한諸點으로보아 루氏는今後 聞或 政策上으로 憲法改正을 暗示또는 公言할는지 모르나그自身이 熱誠과 勇氣를 가지고 積極的으로 聯邦憲法修正을圖謀하야 뛰지을 여러노호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改訂版뉴딜에는 保守的傾向豫想

그러면 루氏가 第二期 新大統領으로 就任한後의 所謂改訂版뉴딜의 코ー스는 어찌될것인가? 以上論述에依하야 大綱推測할수잇슬것과가티 그는 그의리베랄한 政治思想과 그를全幅的으로支持하여준 勞農階級에關聯配合하야 依然히 數多한 社會政策的施設은 겨으르게하지안흘것으로 미드나 從來와가티 貧民層을 爲하야 彪大한 赤字公債를 發行하여가면서 英斷的施設과 厖大한 救濟事業을 斷行하리라고는 보이지안는다。뉴딜政策의 德澤이엿든가 恐慌 循環原則의 結果이엿든가 米國經濟界가 方今上昇하여가는것만은事實이다。이러한情勢下에잇서 루大統領은 從來 非常時打開의 方策으로써은 『過激』한 政策을 이以上 더쓸다는것은 그의 本來的立場으로보아 取할바政策이 아니라고생각하고 從來의政策을 보기조케收拾하기에 努力할것이나 아닌가 思惟된다。다시말하면 改訂版뉴딜은 從來뉴딜의收拾政策이며 『過激』한政策으로부터 保守的政策에의 轉向을보이지나안흘까하는것이 루ー즈벨트氏의 爲人、環境、立場에비추어 推想되는바 吾人의 歸結이다。

UNCLE: I HOPE IT DOESN'T USE TOO MUCH GAS'

聯邦大審院長 휴스氏

蘇聯의內政外交

內政上産業發達은可恐이나 東西外交關係는危機에直面

❶ 溫樂中

一、五個年計畫

戰勝國과 戰敗國과의對立 戰勝國間의 互相軋轢 國內的으로 存在한矛盾을가진資本主義諸國은 有効한

反蘇同盟

을 不可能케한다는것과 農民과의同盟으로 新社會經濟體系의 社會를 産出할수잇다는 스탈린氏의 指導精神下에第一次五個年計畫을 決行하게되엿다。衣食의缺乏 疲勞를 不顧하고 反對派의反對를 國際的으로미치고 一意專心計畫대로 努力하엿다。이第一次五個年計畫은 社會主義的建設의 基礎가되는重工業의 建設에 잇섯다。

그結果는 農業國의 域을 完全히벗서나지 못하엿든 蘇聯으로하여금 一躍近代的工業國으로서의 面目을 整頓하게 되엿다。勿論 이方面에는 一時的으로種工業을 放任한結果로서 一般生活物資의 缺乏도 잇섯다。그러나 第二次五個年計畫의 進行에따라 輕工業에도 留心하엿스므로 그問題도 現今으로서는 解消되려하고잇다。前年末 第七回 쏘베트大會에서 重工業人民委員 오르즈니키ー제氏의 報告에依하면(前略)

電力供給量에잇서서 世界第三位、石炭生産量에잇서서 第四位、石炭과鐵鋼에잇서서 第二位 鋼鐵에잇서서第三位 農民의國作에잇서서 벌서米國을凌駕하야 第一位가되엿다고한다。不遠한 將來에 一大産業國으로서 進出할것이 明白하게되엿다。이工業國으로서의變化는 輸出方面에도明白히 나타나게 되엿다。即 世界大戰前 一九一三年에는 總輸出品中 工業製品은 三〇%에不過하든것이 一九三五年(十一月까지)에는 工業製品은 七九·七%로 農産品은 遞減으로 一九·三%에不過하엿다。이中에 重工業品은 總輸出額의二七%, 輕工業品은 一三·四%이다。

이五個年計畫에 依하야 重工業의 躍進과함께 農業의 社會化도 急速度로 進行되엿다 只今까지 個人農이 絶對優勢를가젓든것이 左表와如히 大變化를 이르켯다。

	一九二九	一九三〇	一九三一	一九三二	一九三三	一九三四
共營農場數(單位千)	五七·〇	八五·九	二一一·一	二一一·一	二二四·五	二三三·三
共營農場加入農家(單位百萬)	一·〇	六·〇	一三·〇	一四·九	一五·二	—
全國農家共營比率%	一·九	二三·六	五二·七	六一·五	六五·〇	七一·四

그後 農業의 共營化는 더욱 進行되여 全聯邦의 코ー르호ー즈數는 이미 二十七萬에達하얏다 即 約二千萬戶의 農家가 共營農에 加入하엿다 即 全國農家의八〇%以上에 達하게되엿다。殘餘의二〇%가個人的經營을 繼續하고 잇스나 生産的으로보아 決定的地位를 가지고잇지못한다。이것을 農地面積으로써보면 다음과갓다。

全國農家

	一九二八年	一九二九年	一九三〇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一九三四年
國營農	一·五	一·九	二·一	八·〇	一〇·九	一一·四
共營農	一·二	三·五	二九·九	五七·九	六八·一	七二·〇
個人農	九七·三	九四·六	六八·〇	三四·一	二一·〇	一六·六
計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前表에 依하야 個人農과共營農과 그地位가 全혀 轉倒된것을 알수가 잇다。이것을 主要作物인 小麥作付面積에 依해보면겨우五、八파ー센트가 個人農의것이다。그러나 이것도 蘇聯當局의 計畫에 依한다면 一九三七年에는 個人農은 完全히 解消되리라고한다。農産物의 一人當收穫量이라든지 耕作地面積의 增加는 別問題로하고 農産生産 그自體의 機械化로 말미아마 農業經營이 全혀새로운 形態로轉換하엿다。

이必然的結果로서 農村의 크라크(富農)의 沒落 農民의프롤레타리아化即農村의社會主義化가 實現되게되엿다。

二、憲法改正

以上에 記述한바와 如히 五個年計畫의 進行은 都市에잇서서 近代的工業이 建設되는 同時에 農村의 事情도 一變하게되엿다 이러한 社會的 變化에 依하야 이에 適應한새로운憲法이 採用되게되엿다。이新憲法은 一言으로써말하자면 一層 **民主主義**化한것이나 主要改正된 點은 左記의三點에잇다。

(寫眞은 모스코바에잇는 聯邦電氣化政策에對한 最高技術的指導部인 蘇聯邦電氣硏究所의 高壓電實驗部)

姜耳鼻咽喉科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府仁寺町一三七
電光③二六六五

眼科專門
安國醫院
京城府安國町一三八番地
電話光化門一八五五番

眼科專門
魚澈眼科醫院
京城府鍾路三丁目八〇ノ四

一般皮膚科 一般外科
淸華醫院
鍾路二丁目七二 醫師 金 [illegible] 駿

醫學博士
任明宰
安洞醫院 內科、小兒科
京城府安國町一六三
電光一五一一

産婦人科 小兒科
精華醫院
女醫 張文卿
京城府寬勳町一九五番地
電話光一九八六番

京城嘉會町
普生藥房本舖

京城鍾路二丁目
三省聯合新藥研究所
電話光化門長八一三番
振替京城六四六六番

ヨヒナール ゴノゴノ散 製造元
エム・ビー醫藥研究所
同代理部 苑南藥局
京城府苑南町九六の四
電光二〇四二番

東洋劇場
京城府竹添町一丁目
電話光化門二一五四番

東劇事業部直營
東京公演中 裵龜子樂劇團
京城府民館公演中 靑春座
京城東洋劇場公演中 劇團豪華船

京城府武橋町三十二番地
東洋自動車講習所
電本五四〇二番

京城授恩町五六
團成社

朝鮮內外映畫配給業組合

京城府寬勳町一四三番地
洋靴專門 銀行會社 官廳學校 月賦販賣
正屋靴店
主 白樂喆
電話光化門二一七四番
振替京城二三五二一番

流線型洋靴 高級特製 運動用品
オリエンタル號 ウインエズ號 スケート 發賣元
京城府公平町一一四
서울풋뽈洋靴部
電話光化門三一五三番
振替京城五〇四〇番

京城府仁寺町一八八番地
東亞藥酒 東亞濁酒 東亞細亞酒 東亞燒酒 醸造元
東亞産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一七五番
振替口座京城一四四一四番

京城府蓬萊町二丁目一一八
⊞大成運送店
電本二〇九七番

京城府中學町 崔學基運動具店
寬勳町 中學堂運動具店
仁寺町 百球堂運動具店
代表者 崔學基

ミヤコ服裝店
孔俊杓
電光一六五五番

謹賀新年

古邑

京義線古邑前驛 金元銓

京義線古邑驛前日新洞 金起湖

京義線古邑驛前 五山高等普通學校

京義線古邑驛前 朴天圭醫院 醫師 朴天圭 同 金在乙 製藥人 金容淑 庶務 金周銓 運轉手 金達洙 看護員 金淳淑 同 朴文杰

京義線古邑驛前 慕顏商店 主 金洛亨

京義線古邑驛前 三合精米所 電話長五番

京義線古邑驛前 祥山新興商會白潮代理店 大阪東洋精版カレンダー團子團扇代理店 李道欽商店 支店 京義線定州邑內 私書函古邑第十二番 電略(ロト)又ハ(ト)

京義線古邑驛前 古邑醫院 醫師 金鳳濟 產婆 金德娘

京義線古邑驛前 古邑和信連鎖店

定州郡古德面元洞 金日濱

定州郡古德面日新洞 金起鴻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 新興商店 主 金道鉉

京義線古邑驛前 信成精米所 電話長六番 私書函四番 電略(カクシン)又ハ(シン) 支店 京義線新川驛前 電話一七番

定州郡葛山面興巖洞 興巖學院 職員一同

京義線古邑驛前 鮮于允成

平北定州郡高山面興巖洞 林鍾杰

京義線古邑驛前 內科小兒科花柳病科 中央醫院 醫師 金相善

京義線古邑驛前 藥種商 泰士藥房

京義線古邑驛前 古邑穀物受檢組合

京義線古邑驛前 第一自轉車店

定州郡葛山面逸海洞 盧洪錫

京義線古邑驛前 古邑商會

定州 金宅濟

京義線古邑驛前 私立塢川學校

定州郡德彥面大山洞 金燾聖

定州郡葛山面舍城洞 五山宿屋組合

定州郡古德面日新洞 李鶴洙

定州郡古德面日新洞 李丙曄

定州郡葛山面瑞南洞 金璟植

京義線古邑驛前 雲興商店

定州郡德彥面石村洞 光信商店 田光鉉

定州郡葛山面興巖洞 金允植

定州郡葛山面光東洞 光東學院

京義線古邑驛前(五山) 五山購買組合

京義線古邑驛前 古邑自轉車店 洪錫世

京義線古邑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朝鮮日報社古邑支局

定州郡古德面月峯洞 李承根

京義線古邑驛前 醫生 光瑞醫院 表瑞分

京義線古邑驛前 はやし藥房 林寅植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精白米業 泰盛商會 主 金希鏞

定州郡葛山面興巖洞 金彭年

京義線古邑驛前 泰興商店

京義線古邑驛前 金履稷

京義線古邑驛前 劉成祚

定州郡古邑面長 金周洽

定州郡高山面興巖洞 華山醫院

定州郡馬山面東倉洞 古州消費組合

京義線古邑驛前 五山 白峰商店

京義線古邑驛前 自轉車卸賣及修繕 우리自轉車商店

定州郡葛山面興巖洞 金春儀

古邑驛前 司法書士 崔春浩 同 金達俊

平北定州五山學校前 水源商店 主 金日煥

京義線古邑驛前五山 永信製藥 主 李東洽

京義線古邑驛前 第一白氏商店 主 白戊善

定州郡古德面鶴海洞 金相卨

京義線古邑驛前雲坪洞 雲坪振興組合

京義線古邑驛前 定州商會

京義線古邑驛前 昭和會館 金會鳳

京義線古邑驛前 金氏堂藥房

京義線古邑驛前 梁濟行商店

遮湖

利原鐵山株式會社支店

遮湖漁業組合

大元號 主 李柱禎

德元商店 尹貴孝

遮湖港 利興釀造株式會社

張甲植

李在鉉

文廟學舖 李成茂

遮湖港 遮湖醫院 韓秉萬

朝鮮運送株式會社遮湖營業所 主任 寺內駒三郎

朝鮮咸鏡線遮湖驛前 海陸物產委託販賣 ㊊湖 合資運輸組 代表者 金學經 電略(〇サ)又ハ(ミ) 振替口座京城一二九四四番 電話

金漢雄

遮湖港 梁鳳輝

遮湖 南面職員一同

咸南遮湖港 銀湖カフェー

遮湖公普通學校 職員一同

遮湖港 勞働組合

咸南遮湖港 水產業 鰮肥油 肝油湖 張星煥

遮湖港 林廣輔

遮湖港 康仁植

遮湖港 沈永澤

高原

高原 映畵常設 興樂館 魚麟善 崔成益 趙敬三 電話一八番

高原貿易倉庫株式會社 ◎朝鮮運送 高原代行營業所 專務取締役 張良厚 電話一二六番

高原金曜會員並有志

高原邑 張起漢

高原驛前 穀物貿易 倉庫金融 精米業 德和商會 電話二七番

高原郡粱泉寺 住持 金鏡海

高原郡 山谷面土曜會 山谷面秀山公立普校

高原郡郡內面職員一同

高原郡上山面職員一同

咸鏡線高原驛前 朝鮮料理 蓬萊館 主 金尹權 妓 昌玉月 鎭仙仙 姜朱黃 雲蓮錦 心玉紅

高原郡 水洞面事務所 職員一同

高原邑內 普濟局 醫生 韓然甲

高原郡上山面珠峰里 貿易 養蠶 金斗秀

高原德池市 張明河

高原公普 金亨瓚

高原驛前 綿布商 新興商店 電話一八番

咸鏡線高原驛前 海陸物產貿易委託及運輸業 ㊉永信商會 永信運送部 電略(エイ)又ハ(ㅇ) 高原所私書函七番

咸鏡線高原驛前 燒酎釀造 原料貿易 合資會社 高原釀酒所 電話二〇番 電略(〇コ)又ハ(〇コ)

高原住友林業 李翊龍

咸鏡線高原驛前 和洋家具 木材一式 附屬物貿易 成一木工所 主 張麟錫

高原郡水洞面仁興里 精米業 朴熙善

高原郡水洞面仁興里 文昌國

咸鏡線高原驛前 和洋百貨 東華商店 穀物陶器 東華商店支店 主 申東烈

高原郡內公立普通學校

高原郡 雲谷面事務所職員一同

高原郡 雲谷面天興公普校 校長 徐丙肅

高原郡水洞面庄洞里 簡易學校 張得萬

咸鏡線高原驛前 新興旅館 主 朴貞根

高原驛前 穀物貿易 三信精米所

高原邑內 新興麵屋

高原驛前 洋品百貨 春澤商店 電話三三番

高原 朴禎萬

咸鏡線高原驛前 穀物 燒酒 荷物取扱 大昌合成運輸組 主 朴光錫

高原郡水洞面仁興里 吳世煥

咸鏡線高原驛前 穀物貿易 土產物委託 朴陽基商店

咸鏡線高原驛前 高原郡下鉢面 高原水利組合 歡美洋服店 主 姜炳燮

高原郡白蓮庵 住持 全道林

高原德池市 醫生 文應善

高原邑內 司法書士 成英彰

高原邑 司法代書 蔡東仁

水橋

高原驛前 李淡球

高原驛前 蛇ノ目ミシン代理店 穀物貿易醬油業 李根植商店

高原驛前 合資會社 高原釀酒所 李李鏞

咸南高原邑內 乾材藥局 廣濟堂

咸南秀山 吳錫河

高原郡水洞面仁興里 朴一權

丁台圭

高原驛前 穀物貿易 精米 申敬淳商店

食料品雜貨 高州商店 主 金在善

高原郡水洞面仁興里 鄭基鎬

高原郡水洞面仁興里 林炳斗

高原 金成鉉

高原郡水洞面院右里 劉二寶

高原郡水洞面仁興里 李養善

土木建築材料 協成材木商會 代表者 張基璜

司法書士 車承道

株式會社 朝鮮日報社水橋支局 支局長 黃炳斗

黃海線水橋驛前 ◎朝鮮運送取引店 主 金炯燮

水橋郵便所 所長 張炳郁

水橋自轉車商會 主 金德基 柳寅明

基亨自轉車店 主 金基亨

東明醫院 院長 韓弼壽

綢緞布木 各種雜貨 德元商店 主 姜相元

綢緞布木 信川商店 主 宋昌業

穀物貿易 金石商會 元泰喜

穀物貿易商 呂南賢

合資會社 三成精米所

中央고무商會 主 李斗永

各國時計販賣店 平和堂時計店 主 李萬鏞 沈雲洛

星光自轉車店 主 李丙道

和洋雜貨 食料諸品 鮮味堂 主 沈奎燮

食料雜貨 淵禾商店

朝日自轉車店 主 朴泰赫

漁大津

咸鏡線漁大津驛前 貨物自動車運送業 海陸物產委託販賣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主 車利淳

咸北漁大津港 黃鎭汶

咸北漁大津港 醫師 安永根

咸北漁大津港 東華百貨店 主 鄭[illegible]龍

咸北漁大津港 共信商會

咸鏡線漁大津驛前 鳳岡組費組合 電略(セ)又ハ(セヒ)

咸北漁大津港 米穀貿易 精米業 製材部 池鄭商店 主 鄭錫永

咸北漁大津港 永樂館 主 李明善

咸北漁大津 ミナト洋服店

咸北漁大津港 キング洋品店

咸北漁大津港 漁大津漁業組合 理事 張友仲

咸北漁大津 漁大津市着共同組合

咸北漁大津港 職工本位 賃金提供 南海洋靴店

咸北漁大津港 建築請負 鐵力細工 相信商店 主 田龍健

咸鏡線漁大津驛前 朝鮮酒製造業 金正球

咸鏡線漁大津驛前 燒酎製造 精米業 龍[illegible]釀酎所 主 鄭錫珪

咸鏡線漁大津驛前 米穀貿易 車[illegible]精米所

平康

咸北漁大津港 米穀商 李鍾德商店

咸北漁大津港 日用雜貨 各種洋品 海產物商 李熙商店

咸北漁大津港 鰮油肥料製造業 李希南

咸北漁大津市場 米穀商 金文郁商店

咸北漁大津港 米穀商 成萬福商店

咸北漁大津港 吉盛洋靴店

咸北漁大津港 日乃出洋服店

平康郡農會

江原平康林管[illegible]

京元線洗浦驛前 高挿面職員一同

京元線洗浦驛前 布木雜材 炭俵貿易商 李漢壽

京元線平康驛前 綢緞布木 和洋百貨 우리商會 主 李煥善

平康邑內 平安精米所

平康郡敎育會

江原道平康驛前 和洋諸紙 各種印刷 振替京城二一五、九五二番 平康印刷所

京元線平康驛 驛長 三根鹿藏

平康郡[illegible]面芝岩里 山田農場

京元線平康驛前 新炭商 朴鎭圭

平康邑內 平信旅館 主 張信澤

綢緞布木 和洋雜貨商 李仁泰商店

綢緞布木 三和商會 主 [illegible]淑卿

平康公設米穀市場 洪競裕

平康郵便所長 吉田幹一

和信連鎖店 百貨店 永信商會 主 李會明

廣昌釀造場 主 金鍾[illegible]

殖產商會 直營 殖產運送部 有光精米所

金海榮

洗浦[illegible] 沈興燮

平康金融組合 洗浦支所

三[illegible]商

洗浦醫院 醫師 [illegible] 助手 李丙[illegible]

谷山

洗浦運送株式會社 洗浦代行營業所 大谷仁兵衛

谷山邑內 優理印刷所 振替京城一八五七二番

谷山森林保護區 保休會會員一同

谷山邑內 金炳駿

谷山邑內 司法書士 孫憲

黃海道谷山邑內 食料雜貨商 趙永七商店

谷山邑內 絹布雜貨吳服商 鮮一百貨店 主 金達[illegible]

谷山邑內 平應商店 主 金應善

谷山邑 興成木工場 主 方興成

谷山貨物自動車部 李明燦

谷山邑 シンガ裁縫機會社 李滄孫

谷山邑內 洋品雜貨 蓄音器 各種印刷 太宗社谷山代理店 三省堂 郭南龍

谷山邑內 東亞寫眞館 吳慶彬

谷山郡邑內 時計及電器機具 谷山時計店 主 池青運

谷山郡邑內 谷山洋靴店 主 金炳龜

谷山邑內 綢緞布木 和洋雜貨 李太極

谷山郡邑內廣田精米所 主 李浩

谷山邑 引伸寫眞館 主 李道善

谷山邑內 綢緞布木商 康致弘

谷山邑內 李[illegible]瑚

谷山仙岩鑛山 朴楨 韓斗周 金[illegible]昊 李復榮

仙岩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谷山仙岩市 孫源八兄弟商店

黃海道谷山郡仙岩 閔明植

谷山仙岩市 [illegible]

谷山下圖面事務所內 朴應顯

谷山郡仙岩市 申學辰

谷山郡下圖面仙岩 韓[illegible]德

谷山仙岩 大同醫院 公醫 李明相

百年繡業社谷山新坪用達本部 主任 趙京俊

谷山新坪 朱成鎬

谷山郡新坪 [illegible]德商會

黃[illegible]道新坪 [illegible]淳

谷山郡新坪文岩醫院 [illegible]基恒

谷山郡新坪 [illegible]斗炳

谷山郡新坪 有吉稻治郎

司法書士 金宅烈

[illegible]穀商 [illegible]乙用 [illegible]月仙

平[illegible]郡平康面西海里 [illegible]允興

[illegible]主房昌模 [illegible]山月 同 崔[illegible]仙

新浦

谷山郡[illegible] 面長 李[illegible] 書記 金[illegible] 李東[illegible] 李仁[illegible] 朴基[illegible]

谷山郡清溪面文[illegible]里 [illegible]醫院 康明元

新浦港 水產業 大洋商會 電話一大番

新浦港 咸新館本店

北青邑東 咸新館支店

端川邑東里 咸新館支店

咸興府本町二丁目 咸新館支店

興[illegible]邑松偶[illegible] 咸新館支店

妓生總合七十六名

咸南新浦驛前 湧泉釀造所

咸南倉庫株式會社新浦出張所 主任 朴南鉉

新浦港 新浦精米所

新浦港 新浦[illegible]事務所

新浦港 高柄學

朝鮮咸鏡 新浦港 貿易商 文[illegible]商店 海產部 振替京城三三六一番 私書函新浦所五番

咸南新浦港 明卵桶製造業 海產物販賣業 宋昌海

朝鮮運送株式會社 新浦代行營業所 ◎ 新浦運送株式會社

新浦港 水產業 金榮吉

鰮油製造業 李柄[illegible]

新浦港 朝鮮料理 京城館

新浦商務協會

新浦幼稚園

新浦義成學院

金正[illegible]

新浦港 朴永鎬

新浦港 鰮油肥製造 海陸物販賣業 黃東烈

金振玉

新浦港 鰮油肥製造 合成商會

新浦港 永和商會新浦出張所

新浦港 鰮油肥製造 海產物販賣業 黃泰[illegible]

敎[illegible] 大成[illegible] 三省[illegible] [illegible]山[illegible]

新浦醫院[illegible]一同

朝鮮日報
新年號 其三

世界經濟現勢와 將來趨向如何
貿易金融이 破滅은 안되나
相當한 期間萎縮時代
徐椿

世界經濟는 現在 어떠한 狀態에 잇스며, 將來 進移할 方向은 어데냐?하는 問題에 對한 所見을 略述하자는것이 本篇의 目的이다.

世界經濟라고는 普通하는 말이나 그意味는 若干 複雜하야 한 點이 잇서 그意義를 捕捉하기 困難한때가 잇다. 그러나 이말의 意味를 常識的으로 說明해 본다면

一、國際間에 잇서서의 商品의 有無相通 即、國際貿易이라는 것이 그內容의 하나요,

二、國際間에 잇서서의 資金의 移動 即 國際金融이라는것이 또 다른 內容의 하나다.

그러고 現制度下에 잇서서는 勞働도 亦是 一種의 商品으로 팔을수 잇는것이며, 또한 自然의 勢에 放任한다면 그것의 國際移動도 可能하다. 따라서 理論上으로 말하면 勞働의 國際移動도 亦是、世界經濟의 內容으로 플을것이나、他國勞働者에 對한 入國禁止 又는制限이 嚴한 이時代에 잇서서는 勞働의 國際移動問題는 事實에 잇서서 世界經濟의 內容이 되여 잇지안다. 故로 世界經濟의 主要內容은 國際貿易及 國際金融의 兩者다.

政治와 經濟와의 兩者는 形影相隨의 關係에 잇다. 故로 政治上으로 어떠한 主義가 行하는가를 보면 經濟上으로 어떠한 主義가 行할것을 알수가 잇스면 反對로 經濟上으로 어떠한 主義가 行하는가를 보면 政治上으로 어떠한 主義가 行할것을 알수가잇다. 뿐만 아니라 兩者는 相互因果關係에 잇다. 故로 政治는 經濟에 影響하야 그主義를 더욱 强化시키며, 經濟는 政治에 影響하야 그主義를 더욱 强化시키는것이다.

歐 洲大戰後 十有餘年을 두고 政治上으로는 國際協調主義, 平和主義가 流行햇다. 世界經濟는 그影響을 바더서 自由貿易主義가 行한것이엇다. 故로 이時代에 잇서서는 國際間에 商品輸出이 自由로왓스며 資金移動이 圓滑하엿다.

그러다가 昭和六年 (西曆一九三一年) 九月의 滿洲事變 (十八日)及英國의 金本位停止 (二十一日)의 兩大事變을 一轉機로하야 國際政治上으로는 平和主義、協調主義가 깨여지고 國家主義、軍備强化主義가 대신으로 流行하는同時에 國際經濟上으로는 自由貿易主義가 깨여지고 擁護主義, 自給主義가 대신流行하게되엿다. 따라서 國際貿易은 [illegible] 해부터 國際貿易及國際金融의 兩者가 다 萎縮期에 드러서가지고 그萎縮은 今日까지 繼續해 오는 것이다.

世界經濟上으로 보아 重要한 國家되는 것은 各國의 軍事費에 界에서 主要列國이라고하면, 日英米佛獨伊蘇의 七國을 꼽을러이나 [illegible] 數字를 들지아니하나 이七個國의 過去五個年間의 軍事費는 年年히 可驚할 速度로 增加하엿슴을 볼수가 잇다.

다음 大戰後 十有餘年에 亘한 平和主義時代에 생긴事實로써 特히 우리의 記憶을 要할 一大問題는 主要列國의 失業者激增이라는 一事다. 各國은 이 失業者救濟를 爲하야 適宜한 對策을 講究할수박게 업는 處地에 直面한것이엇다. 例하면 저 米國에 産業復興이라는 名目下에 大規模의 土木事業을 이르킨것은 그實은 失業救濟事業이엇다.

財 政經濟上으로 보면 軍備强化 及 失業救濟事業의 兩者는 主要財源으로 되여 잇다. 여기 한가지 微妙한 關係를 指摘해 본다면 그것은 軍備强化는 同時에 一大失業救濟事業이 된다는 一點이다. 軍備强化란 다른것이 아니라、軍艦、飛行機、大砲、戰車、兵員用被服等綿을 大量으로 製作하는 것이다. 國家가 이것을 爲하야 原料製品을 大量으로 購入하는것은 國內景氣振作의 一大動力이 되고、이것을 爲하야 만흔 勞働者를 雇傭하는것은 失業救濟가 되는것이다.

軍備强化도 돈이드는 事業이요 失業救濟事業도 土木事業도 돈이 드는 事業이다. 그中에서도 特히 軍備强化는 巨額의돈이 드는事業인데 只今과 가튼 國際勞國氣에 處한 各國은 말하야 말할수업는것이 卽 이軍備强化事業이다.

이러한 理由에 依한 各國의 軍事費增加는 必然的으로 各國의 歲出을 激增시키여 各國으로하여금 從前의平和時代에 잇서서의 健全財政主義를 抛棄하고 赤字財政主義를 쓸수밧게 업시만드럿다. 이말은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財政上의 緊縮政策을 抛棄하고 膨脹政策을 쓰게 되엿다는말이요 이것을 또한번 바꾸어말하면 디플레이슌政策을 抛棄하고 인플레이슌政策을 쓰게되엿다는것이다.

인풀레이슌政策을 쓰려면 必然의 勢로 不可不 金本位制는 此를 拋棄할수밧게 업시 되는 것이다. 何故오하면 一一히 金을 準備로 두고서야 紙幣를 發行하는 制度를 가지고는 財政上의 歲出膨脹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기가 퍽困難하기 때문이다. 故로 過去五個年間에 主要列國이 金本位制를 모조리 拋棄하기에 至한 一大原因은 亦是軍備强化에 잇다고 볼것이다.

그 러고 金本位制의 拋棄는 此를 다른말로表해보면 國際間에 共通으로 씨우는 貨幣制度가 깨여진것을 意味하는것이니까 이것은 必然的으로 國際貿易을阻害하며 國際間의 資金移動을困難케 할수박게 업는것이다.

다음 各國은 軍備强化의 財源을 어데서 求하느냐하면 첫재는 公債募集이오 둘재는 增稅요 셋재는 不換紙幣의 發行이다. 그런데 公債는 此를內國債와 外國債로 區別할수가 잇스나 이미 金本位制가 깨여지고 또한 今日과가튼 國際關係 內에 잇서서 一國이 他國에對하야 軍事費用으로 쓰일줄알면서 [illegible] 는것이니까 어떠한 나라가 [illegible] 勢하고、特別한 同盟關係가 잇는 나라끼리를 除外하고 말하면 外債를 엇기는 거이 不可能한 狀態에 빠저잇다. 故로 이境遇에 잇서서는 公債는 卽、內債를 意味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업슬것이다. 다음 增稅를말하면 多年의 不景氣속에서 大衆의 生活이 極히 困窮해진 主要列國의 現狀에 잇서서는 到底히 巨額의 增稅를 斷行할수가 업다. 따라서 今日、主要列國은 다 增稅를 斷行한다고할지라도 그것은 公債利子를 支辨할만한 程度에 그치고 軍事費財源은 主로 內債募集에 依하야 此를 求할수박게 업시되여 잇는것이다.

內 債의 消化는 國民의 貯蓄力에 依하야 되는것이다. 國民의 貯蓄力에 限度가 잇는 以上、內債 消化에도 限度가 잇슬수박게 업다. 例하면 某國國民의 一年間의 貯蓄力이 十二億圓이라고하면 그나라는 一年에 十二億圓을 超越하야 公債를 發行해 가지고는 此를 消化시킬수가 업는것이다. 그러면 이런 境遇에는 어떠케 하느냐하면 그때에는 紙幣印刷機를 돌릴수밧게 업시 되는것이다.

故로 今日 主要列國의 軍事費財源은 主로 內債發行에 依해서 求하게되고 一旦 內債消化難에 逢着한 境遇에는 不換紙幣의 增發에 依해서 求하게 되여잇다. 大院君이 當五錢、當百錢을 만드러 가지고 景福宮을 지드시、今日의 主要列國은 不換紙幣를 發行하야 大砲、飛行機를 만들수박게 업는 境遇에 處햇다고 볼것이다.

軍備强化가 主要列國의 國內經濟에 미치는 一大影響은 死藏貨幣의 再活動을 誘致한데잇다. 過去約百年間의 富의 集中에依하야 主要列國의 國內通貨는 少數의 個人又는 會社의 金庫속에 드러가서 死藏되여잇다는 [illegible] 못하게되엿다. 이 死藏貨幣는 利回를 엇을수잇서야 世上에 다시 나와돌러인데 生産力은 年年히 增加하는 反面으로 大衆의 購買力은 年年히 주려들고잇는 現制度下에 잇서서는 利回을 일이 좀처럼 엇기때문으로 萬若 이것을 自然의勢대로 그냥 放任해둔다면 이死藏貨幣는 世上에 나오기가 甚히 困難한 處地에 잇슬것이다.

이 런 處地에 잇든 [illegible] 면인데 國家는 軍事費의 必要로因하야 內債를 發行하야 死藏貨幣를 다 거두어 드려가지고 이것으로서 原料와 勞働을 사기始作한것이다. 國家는 오즉 百年大計를 眼中에 두는것이요、利害關係는 此를 度外視하기때문으로 이 일이 可能한것이다 何如間、此에 依해서 死藏貨幣의 再活動을 誘致한것은 말하면 軍備强化가 齎來하는 一大功績으로 볼것으로서 此에 依하야 主要列國의 國內景氣는 振作을 보게되고、失業者의 一部는 救濟할수가 잇게된것이다. 여기 暫間 日本一國을 例로 드러본다고할지라도 日本은 過去五年間에 三十六億圓이라는 巨額의 內債를 發行하야 그것의 全部를 國防充實費에 使用햇는데 이 巨額을 가지고 (一) 從來가트면 [illegible] 原料、商品을 購入하고 (二) 從來가트면일자리 업든 勞働者를 使用햇기 때문에 一面으로 所謂 軍需景氣라는 것이 생기고 他一面으로는 失業者救濟라는 結果를 나흔것이다.

軍備强化에 伴한 또다른 一大影響으로 볼것은 主要列國의 生産을 增加시키엇다는것이다. 그러고 이生産增加는 그原因이 軍備强化에 잇기때문에 此를 種別로 보면, 特히 軍需關係의 工業生産이 顯著한 增加가 잇슴을 본다.

다음 勿論、金輸出再禁止後에잇서서의 日本의 輸出貿易增進과 가튼 少數의 例外도 업는것은 아니나 이런 例外를 暫間、度外視하고 말하면 過去 五個年間의 世界貿易은 비록 減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回復이 甚히 遲遲하다는것을 發見할수가 잇다. 如斯히 國際貿易의 增進이 各國生産增加에 正比例하지 못한다는 一事는 그동안의 生産增加는 貿易用으로 因한것이 아니요、國內所用에 基因한것이라는 標跡이다.

軍 需景氣는 그 性質上 萬人이면 萬人이 다 [illegible] 局部的景氣요. 이것을 跛行景氣라고하는데 軍需景氣가 跛行的인 方面으로 보아 여기 한가지 矛盾이 잇스니 그것은、卽 跛行景氣와 國民生活安定과는 서로 背馳된다는 一點이다. 故로 어떠케하면 軍需景氣의 恩澤을 萬人이 다 밧게 할수가 잇슬가? 하는 問題는 各國政府가 熱心으로 硏究하고 잇는 大問題의 하나다.

軍備强化는 또한 各國의自給主義를 促進할수밧게업다. 平時는 勿論 戰時에 必要한 모든 原料 食料은 此를 自國國內及 그政治的勢力이 밋는 地域內에서 裕足히 産出할수 잇도록 하자는것이 卽 自給主義다. 國防充實이라는 말의 內容에는 飛行機大砲가튼눈에 보이는 武器만이 包含되는것이 아니라、이런意味의 自給策이 完全히 서가지고야 비로소 國防이 充實되엿다고 볼것이다.

只今 主要列國은 國防充實上으로 본 自給主義의 實現을爲하야 一面으로 블럭結成에 狂奔하는 同時에 他一面으로는國內 産業保護에 全力을 다하고 잇다. 伊太利가 에디오피아征服 [illegible] 列國이 서로 競爭하야 他國商品의 輸入制限을 쓰며 關稅障壁을 노피는것은 말하면 國內産業의 保護策이다.

以 上을 要컨대 政治上의 平和主義、國際協調主義와 이와 相關하는 經濟上의 自由貿易主義를 떠나서 國家主義、侵略主義、自給主義下에 드러서 가지고 軍備强化에 伴한 各國國內의 跛行景氣를 誘出하고 잇는 時代가 卽 이 時代라고 할것이다.

이情勢는 아프로 멧해동안은 더 繼續할것이故로 今後도 相當한 期間에 亘하야 國際貿易은 萎縮되며 國際金融은 減殺되는 狀態를 繼續할것으로 볼수박게 업슬것이다.

그러나 그러타고 하야 世界經濟가 全然 破滅되고 마는것은 아니다. 換言하면 國際間의 貿易과 金融이 全然 杜絶되고 마는것은 아니다. 何故오 하면 各國은

(一) 自國內에서 不足한 軍需關係의 商品만은 此를 外國에서 購入할수 박게 업다.

(二) 그他 自國內에 生産치못하는 原料及製品은 外國으로부터 購入할수박게 업다.

(三) 또한 어떠한 層을 勿論하고 國內의 過剩生産品을 外國에 팔겟다는 各國의 努力은 如前히 繼續하고 잇슬것이다.

(四) 또한 佛蘇軍事同盟의 代償으로 佛蘭西가 蘇聯에 對하야 資金을 融通해주며、現在 列國이 中國에 對하야 資金을 融通하는것과 가튼 國際借款은 今後에도 繼續해 잇슬것이다.

等等의 理由로 본다고할지라도 世界經濟가 아조 破滅에 直面햇다고는 볼수가 업는것이다. 그러나 只今 世界를 支配하고 잇는 國家主義、侵略主義、自給主義가 繼續하는 期間은 世界經濟의 萎縮時代라고 볼것이다.

—(完)—

인푸레景氣前途
三十億尨大豫算의影響
今後財政에不安增大?
金翰容

善性? 惡性?

一

二、二六事件 發生에依한 廣田內閣의 成立과 馬場財政의 出現은 同內閣中心으로한 非常時 國策遂行을 國民에게 約束하고 成立된것만큼 將來 國防充實을 中心으로한 國家消費의 飛躍的 增大가 當然한 歸結로서 豫想되고 따라서 이를 契機로 日本經濟界는 一大轉換을 할수박게 업스리란것이 一般의 豫測이엇는데 이豫測은 政府가明年度豫算을 三十億四千萬圓이란 未曾有의 尨大豫算으로 査定한結果 마츰내 그根據는 具體化하야 이제는 豫想의 時期로부터 現實過程에로 들어가게 되엇다. 十一年度實行豫算 二十三億一千萬圓도 그當時에는 그尨大함에 驚異의 눈을 뜬 記憶이 새로운데 이에 一躍 七億二千萬圓을 增加한 三十億四千萬圓은 참으로 놀라운 飛躍이다. 勿論 이中에는 市町村에 交付할 地方財政調整費 二億二千萬圓이 包含되엇스므로 이를 除하면 二十八億二千餘萬圓이나 이것으로도 今年度 實行豫算에 比하야 五億一千萬圓의 膨脹으로 滿洲事變勃發前까지 六年度에서 七年度에의 四億七千四百萬圓의 膨脹을 보게된것 以上의 超記錄的 增加를 示하고 잇다.

그러면 이三十億을 突破하는 尨大豫算은 如何한 意義를 가진것이며 이것을 끼고 如何한 問題가 展開될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考慮할 問題이나 이보담도 爲先 端的으로말하야 이三十億이란 尨大한 豫算이 將次 國家消費로서 民間에 撒布될것을생각하면 우리는 直覺的으로 이 歲出의 飛躍的膨脹은 반드시 現階段의 인푸레를一段 發展昂進케 할것으로 豫想하고 또 期待하게되는데 그러면 果然 一般의 期待와가티 인푸레는 發展될것인가? 發展된다면 어느方向으로되며 어느程度로昂進될것인가? 또는 이인푸레의 持續性 乃至 將來性은 어떠한가 或은 世上에서 憂慮하는바와가티 財政의 破綻을 招來하야 所謂惡性인푸레를 招致할念慮는 업는가 하는것等이 우리가 考慮치안흐면안될 問題인가 한다.

인푸레는 再發展할것인가하는 問題에 對한 吾人의 答을 하기前에 우리가 먼저 注意하지 안흐면 안될것은 가튼 인푸레라하더라도 金輸出再禁止 直後로부터 二、二六事件까지의 인푸레와 二、二六事件以後의 인푸레와는 그內容에잇서서 顯著한 相違가잇다는것이다. 卽 前의 인푸레가 爲替低落을 主로하고 赤字財政을 從으로하야 어데까지 健全財政政策下에서 穩健한 發展을示하야 多分히 景氣政策으로서의 役割을 가진것이엇스나 今後의 인푸레는 이에 反하야 赤字財政과 軍需인푸레를 主內容으로 하는것이며、漸次 健全財政政策으로부터 離脫하려는 傾向에잇슬뿐아니라、如何히 膨脹되는 國家消費도 軍需國防을中心으로한 非常時國策遂行을 爲하야 必要不可缺한바를 消費함뿐이오 景氣政策으로서의 役割에 拘束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今後 인푸레가 假令 發展된다하더라도 從來와가튼 全般的인 或은 均衡的인것이 될수는 업슬뿐아니라 반드시 인푸레에 依한 好景氣現象을 相伴하리라고 豫斷할수는 업슬것이다 이點을明白히 하기爲하야 豫算內容에잇서서의 國防費偏重에依한 歲出의 不均衡과 尨大한 國家消費가 赤字公債로써도 不足하야 增稅에 求하엿다는 事實을들지안을수업다. 卽全豫算總額 三十億四千萬圓中에서 陸海軍豫算이十四億圓으로 總歲出의 四割六分을 占하고 各省新規要求承認額十一億八千萬圓中의 半額以上인 六億圓餘가 軍部豫算에 充當되엇스며 또는 各省豫算膨脹에 잇서서도 商工、遞信、農林三省의 豫算內容을 보건대 軍需工業의 助成、原料國策의 確立 또는 國防充實에 關聯된 費用 또는 內政改造에 關聯된 費用이 大部分인것을 考慮한다면 어느 나 全豫算이 國防豫算 中心으로 編成된것을 認定치안을수업슬것이다. 이러한 事實로써 爲先 今後의 인푸레가 軍需工業을 中心으로 跛行的으로 發展되리란것만은 틀림업는일이나 그러나 歲出의 이와가튼 飛躍的膨脹에 依하야 歲入豫算은 剩餘的轉換을 伴하야 赤字公債의 增發로서도 오히려 不足하야 增稅를 同時에行하야 겨우 收支를 마추게된 事實을 忘却할수가업다. 卽十二年度歲入에 잇서서는 稅制改革에 伴하는 國內稅와 關稅의 增加 五億一百萬圓 印紙收入의 增加 一千二百萬圓을 加한 五億二千二百萬圓의 增收를 豫想하면서도 一般、特別會計를 合하야 約九億五千萬圓의 赤字公債를 發行치 안흘수 업섯나니 이리하야 租稅收入은 自然增收에 맛기고 公債發行은 可及的 漸減方針을 지켜온 高橋財政當時의 이른바 鐵則이 이에 放棄되엇거니와 國家의 歲出이 公債로서도 不足하야 增稅에 求하게 되엇다는 事實은 國家財政의 前途로 보아서도 重大한 問題일뿐아니라 이增稅가 生産과 消費의 分野에 그만한 影響이 미치지안코는 그저두지 안흘것이므로 이곳에서도 또한 重大한 意義가잇다할것이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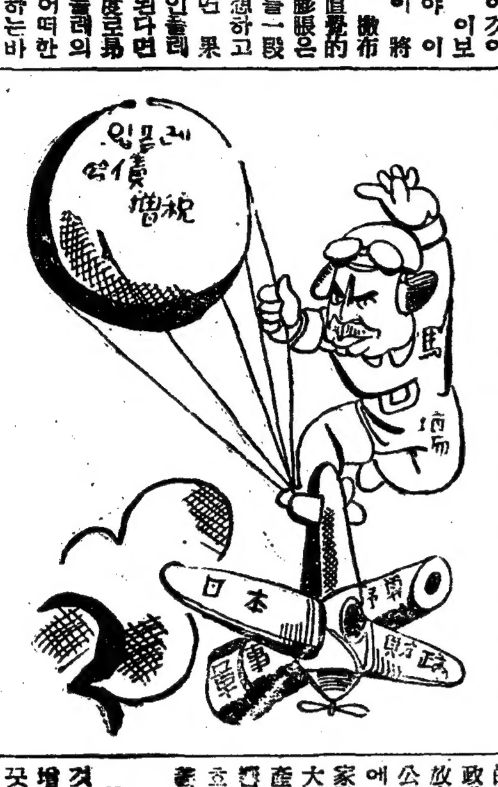
무엇보담 먼저 問題가 되는 것은 財政前途에 對한 不安의 增大에 잇다. 明年度豫算은 編成을 굿내엇스나 이에는 公債增發 以外에 特別會計로부터의 繰入을 加하고 煙草價 鑛稅料金等의 引上에依한 增收까지 全部 豫想한것이므로 이以上 財源을 求할수업슬것은 明白한데 歲出에 잇서서는 陸軍의 所謂 六個年計劃五十億圓의 新規經費와 海軍의 第三次補充計劃을 [illegible] 豫想한다면 國防費를 中心으로 歲出의 累增은 必至의 事實인데 이 累增될歲出에 對應할 歲入을 어데서 求할수잇슬것인가 馬場藏相은 이以上의 增稅와 公債增發을 行하지안코도 今後의 豫算編成은 可能하다고 言明하고잇는모양이나 果然 이것은 可能할가 이로因한 今後의 豫算編成難의 加重은 明年度豫算査定終了와함께 벌서부터 憂慮되어 財界에 一種의 不安을 던지고 잇는것이 事實이다.

다음 이와同時에 公債增發과 稅制改革에 伴하는 財界에의 影響이 一般의關心의 焦點이되어 잇다. 卽 國防費의 未曾有의 膨脹에 依하야 軍需工業을 中心으로한 인푸레景氣가 跛行的으로 昂進된다하더라도 法人重課를 目標로 改革되는 稅制는 一切의 産業部分에 다가튼 負擔을 加重케 하야 [illegible] 强制하게될뿐아니라 [illegible] 引上、郵便料引上等으로 漸次 大衆課稅에까지 손을 뻐치는 結果는 國民所得과國民貯蓄을 收奪하야 一般의 購買力은 減退시키어서 一般物價의 騰貴와 함께 大衆은 漸次 脅威를밧게될것이다. 이購買力의 減退는 이것이 增稅에 依하는것이니만큼 이에 끈치지안코 生産의 跛行的發展에까지 미치게되는것이니 生活必需品을 中心으로한 消費財의 購買力減殺은 그만큼 他方 國家消費를 通하야 軍需關係品을 中心으로한 生産財에의 需要에 集中시키게된다. 이리하야 消費財生産對生産財生産의 跛行的發展은 마츰내 顯著하게 될 모양이다.

그나마、劃期的尨大豫算과、國內工業生産力과의 사이에 橫在한不均衡은 보담 本質的인 矛盾을 發展시킬 危險性이 잇스니 軍需生産에 對한 需要가 生産力에 比하야 過大한 [illegible] 現在의 事業은 적어도 一年 [illegible] 北中開發計劃等을 압두고 益益 加重하여갈것이 아닌가、이리하야 結局은惡性인플레는 오고말것이 아닌가하는 여러가지 危惧가 꼬리를물것이다.

三

以上의 危惧에 對해서는 樂觀論者는 現在의 인플레로서 所謂惡性인플레에로 通하는것이라 [illegible] 今後 爲替低落으로 物價騰貴와 爲替低落으로 인플레의 斷層的 發展을 보일것이라고 생각하야 最近의 短資市場의 逼迫、國債市價의 低落도 벌서이에 關聯된 先驅的인 現象으로 보고잇는모양이나 樂觀論者는첫재 資金移動에依한 인플레發展은第二種所得稅의 綜合課稅化로 貸付資本의 産業資本에의 轉化 法人의 超過所得重課로 因한拂込 增資運動 또 稅制改革을通한 私人法人의 私經濟의 改編等이 豫想되나 第二種所得의綜合課稅化에 伴하는 資金移動은 國債利子 銀行預金 貸付信託配當에 比해稅負擔의 餘地를 與한것에 依하야 極히 小範圍에 끈치고 또 拂込增資運動도 스스로 어느 限度가 잇는것이므로 이것이 全般的인플레에로轉換케할 程度는 못된다는것이오 둘재로 日本의 生産力과 國際收支도 現在程度의 國家消費로는 憂慮될 念慮는 업다는것이다. 卽이에依하면 現在의 貿易이 多少 入超를 보이고잇스나 이 잇다고 곳爲替低落의 原因으로 目前의 多少의 貿易悲觀된 信用擴張의 基礎로 남게되는 [illegible] 잇는데 이것만은 純益으로 모 國內金庫에는 年一億圓에及하고 얼나만한 入超인지 疑問이며 貿易出과 貿易赤差를 考慮하면 이되리라고는 생각할수업스며爲替政策에 一段의 强化를보여爲替資金의 增減如何로 爲替市場의 動搖를 보게되지안흘것이다(續)



蓄音器 レコード 卸商
テーオ商會
京城西大門町二ノ一
電話光化門三四八

大日本蓄音器株式會社
朝鮮營業所
社員一同
藝術家一同

日本포리도-루朝鮮支店
藝術家一同

京城鍾路
高級綢緞
九鼎商會
電話光門二二一三番

京城鍾路
洋品百貨店
德永
電話光化門二二六四番
振替京城一九二七四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三番地
興一社
興一社委托部

●都散賣急告
各種毛物、婚具品。舊雜貨
廉價大賣出
風帽耳、三仙巾
毛背子、毛吐手
冠服、元衫、婚函婚具品一切、
繡囊、繡物各種
枕母各種
長鼓、呼笛、樂器各種
여호목도리製造販賣、여호生皮를기름빼고목도리장식하여드리기도함
正月노리長安 도리 散賣 합니다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二
南昌商店
電本局四〇四八番　振替京城五九七七番

京城府桂洞町一四八番地
緞綢布木商
韓青商會
電話光一三九九番

京城鍾路二丁目九九番地
布木商
李德裕
電話光化門長一一六七

中林町二六番地
萬病通治
汗蒸院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
東洋機械商會
金相彬

京城府中林町三三九番地
朝鮮鐵工所
姜佐奎
電話本局八三六番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
トミタ石油發動機
マスダ石油發動機
グロリー輕油發動機
ホオリーロール精米機
ホーオー式籾摺機
ホーオー式動力製粉機
中央商工社
代表者 權[illegible]
電話本局[illegible]

朝鮮經濟의新段階

農業第一主義로부터 農工併進主義로轉換

咸尙勳

經濟發展의三段階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야 朝鮮經濟는 一大轉機를 獻하고잇다 農業第一主義로부터 農工併進主義로의 轉換 又는 原料工業主義로의 轉換이 그것이다.

近代에잇서서 朝鮮은 經濟的으로 三次의 重大한 段階를 밟앗다. 하나는 明治四十三年 日韓合倂當時로부터 大正八、九年頃에 이르는 近代的經濟制度의 準備時代요, 第二段階는 大正十年頃으로부터 昭和五、六年頃에 이르는 農業偏重主義時代 又는 食糧供給主義時代요, 第三段階는 昭和六年 滿洲事變以後 最近時期에 이르는 農工併進主義時代 又는 工業原料供給時代의 三者가 그것이다.

近代經濟의準備時代

이 時代의 朝鮮의 經濟는 封建的 經濟로부터 近代的 經濟組織으로의 新發을 始作하얏다 近代經濟가 要求하는 基礎的 條件인 治安의 確保, 貨幣制度, 金融制度의 確立, 土地、山林의 所有權 確立等은 이時代에 實現되엇다. 同時에 鐵道, 港灣等이 敷設, 修築되고 이들 近代的 企業을 實行하기 爲한 財政 及 銀行資金은 中央政府의 保護알에 多量으로 流入되엇다. 이 意識的 政府의 指導, 保護下에 東拓, 殖銀等 特殊會社와 個人資本家가 土地를 買收하고 商業을 經營하야 日本內地의 工業品 販賣와 朝鮮農産物 貿易에 重大한 役割을 演한것은 말할것도 업다.

農業企業의偏重時代

이 時代는 朝鮮經濟가 農業偏重主義 又는 日本內地에의 食糧供給主義時代다. 따라 이時代의 産業中 農業이 首位를 占하고 朝鮮外로의 輸移出 貿易도 農産物이 大宗을 삼엇다. 試하야 昭和九年末 現在의 農業의 朝鮮産業에잇서서의 地位를 보건대 農業戶數 三百一萬三千餘戶로 朝鮮總戶數의 七割七分을 占하고 農業生産物은 十億二千萬圓으로 總生産物價格 十七億三千九百萬圓中 五八、六%를 占하얏섯다. 그리고 重要輸移出品의 內容을 보드래도(昭和九年)

米	一五四、七〇六千圓
大豆	一九、二七五
生絲	一四、〇〇九
鮮乾、鹽魚	一二、一五八

로 同年 輸移出總額 三億六千八百餘萬圓中 約半數를 米가 占領하얏스며 同年 移出額이 三億一千五百萬圓인것을 보면 朝鮮의 輸移出品의 九割가량이 日本內地로 移出하고잇는것을 알수잇다. 말하자면 同時代의 朝鮮의 産業은 日本內地의 食糧을 供給하기위한것이엇슴을 알수잇다. 이제 그時代의 代表的 産業이라할만한 産米增殖計劃의 內容을 一瞥하자.

産米增殖計劃

産米增殖計劃은 歐洲大戰當時 朝鮮이 食糧不足으로 困境에 빠진 經驗에 基하야 大正九年 下岡政務總監때 成案한것인데 처음은 畓八十萬町步의 土地改良事業으로 三十個年에 完成하라한것으로 그 第一期計劃으로서 十五個年을 期하야 四十二萬七千五百町步의 土地改良事業을 完成하는 同時에 改良地域內의 耕作法을 改善하야 써 約九百二十萬石의 米를 增産하라한것이다.

그러나 이計劃은 戰後의 恐慌 其他理由로서 豫定대로 進行되지 못하고 大正十五年에 이르러 本計劃은 更新되엇다. 이 更新計劃에 依하면 大正十五年 以後 十四個年間에 三十五萬町步의 土地를 改良하고 그와同時에 施肥의 增加及 耕種法의 改良에 依하야 約四百七十萬石의 增産을 圖하고 一方 旣成畓 百三十九萬町步에 對한 農事改良에 依하야 兩者 倂하야 約八百十六萬石의 産米增殖을 期하는 資金總額 三億八千五百萬圓中 國庫補助金 六千五百萬圓, 政府에서 斡旋하는 一億九千八百餘萬圓의 殘額인 二千二百萬圓만을 企業者가 調達하라하는 深厚한 保護를 加한結果 大正十五年의 千五百三十萬石의 收穫이 이事業中止의 前年인 昭和八年에는 千八百二十萬石이란 大收穫을 보앗다.

南棉北羊에의轉換

産米增殖政策의 結果 産米는 增殖되엇스나 日本內地에서는 重大打擊을 바덧다. 그것은 生産의 十割이나 적은 朝鮮米가 多量으로 移入되어 日本內地米價를 壓迫한것이다. 特히 昭和八年의 大豊作에 잇서서는 大藏省 米穀特別會計金 三億圓의 損害를 보앗다. 이리하야 朝鮮米의 移入制限問題가 沸騰하야 米穀議會에까지 提出되엇던바 二三次는 流産되엇스나 昨年의 特別議會에서 所謂 自治管理案의 이름으로 通過되어 朝鮮米는 移出米의 四三%를 管理하기로 되엇다.

일이 이리되매 그 根源을 막으라는 輿論이 具體化하지 안을수업다. 이리하야 總督府當局은 昭和九年 마츰내 産米增殖計劃의 中止를 聲明하고 이에 代하야 南棉北羊政策을 宇垣總督으로부터 高調하얏다. 南棉北羊이라함은 南方 溫暖한 地方은 棉花를 栽培하고 北方 寒冷한 地方엔 緬羊을 飼養하라함이다. 即 非常時 國防時代에 잇서서 棉花는 紡績及 火藥의 自作自給的 意味에서, 緬羊은 羊毛의 自作自給的 意味에서 外國品을 仰지 말자는 計劃이다.

이리하야 同年以降十年間에 緬羊十萬頭를 飼育하고, 同年以後 二十個年에 耕地面積 五十萬町步, 實棉 六億斤을 生産하라하는案은 現在 着着 進行中으로 咸南、北、江原三道에는 東拓等의 大牧羊場이 잇고, 咸南、咸北을 除한 十一道에는 棉花의 栽培되지 안흔곳이 업다.

鑛工業의發達

前記와가티 大正十年頃으로부터 昭和六、七年까지는 朝鮮의 産業은 農業에만 偏重하얏지만 鑛業、工業이 全然 等閑視된것은 아니다. 아니 朝鮮內의 原料의 低廉한것과 勞力의 無盡藏한것과 賃銀의 低廉한것은 日本內地의 企業家의 垂涎하는바로 大戰以後 精米工業、皮革、綿棉、紡織等 原料的 又는 輕工業에 投資한 이가 적지안엇섯다 特히 滿洲事變後 朝鮮에의 投資熱은 一層昂進되야 處處에 煙突의 林立을 보게되엇다. 이제 最近朝鮮에 進出한 鑛工業의 現狀을 보건대 세멘트는 日本內地서는 重要産業統制法이 適用되기때문에 生産率의 協定이 잇스나 朝鮮에는 그것이 업섯스므로 小野田은 朝鮮工場을 獨立하야 平壤、川內里、古茂山에 와서 大活躍을하고 宇部는 龍塘浦에、淺野는 兼二浦에 工場을建設中이며 硫安工業은 一億三千萬圓의資本을가진 朝鮮窒素와 兼二浦의 日本製鐵硫安의 二個所가잇는데 前者는 年産五十萬噸의 生産을 計劃中이므로 이것이 實現되는날엔 日本內地에도 約十萬噸의 移出을하고 朝鮮內서 需用될수 잇슬것이다.

製粉業도 朝鮮서 供給이 全需要 四百八十萬袋의 半바게못되므로 依然勃興하야 이미 日本製粉은 仁川工場(能力一千파룰)과 國製粉外에 鎭南浦 沙里院에 各各 五百파룰의 工場을建設中이오 日清製粉도 鎭南浦工場(七百파룰) 永登浦工場(一千파룰)을 建設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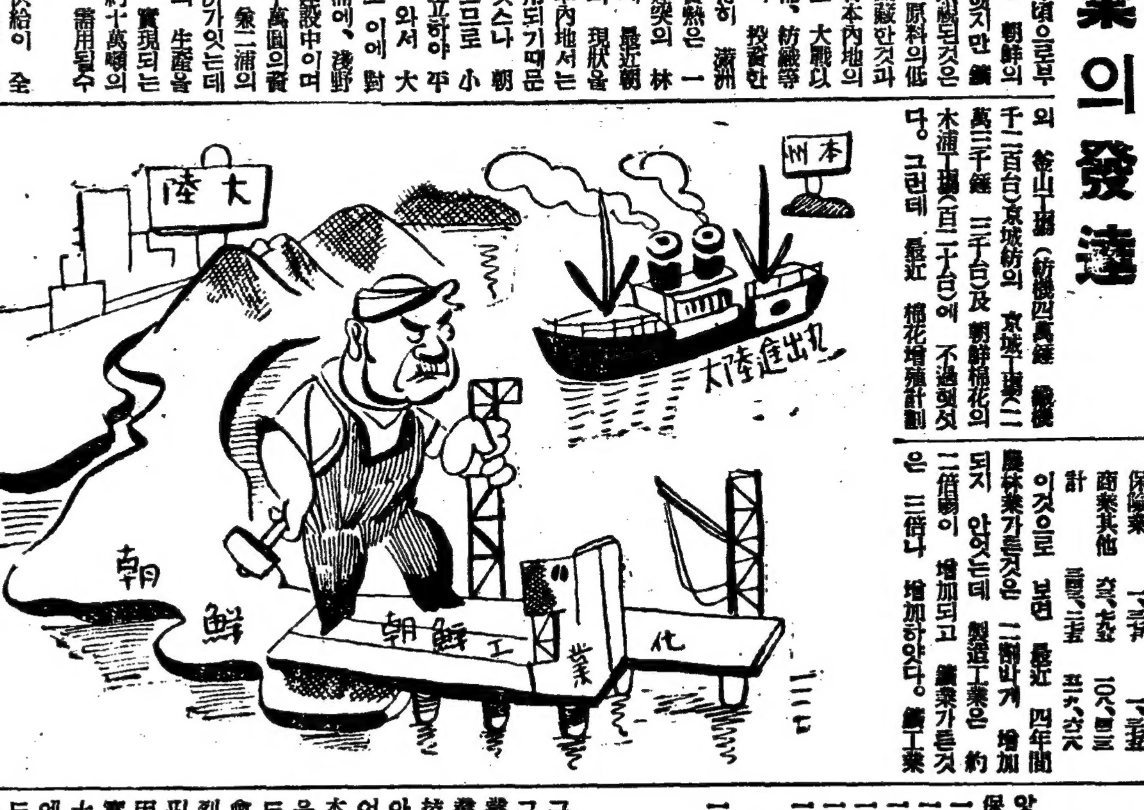
紡績工業은 一層 進出이 激烈하다. 即 在來의것은 朝鮮紡의 釜山工場(紡機四萬錘 織機千二百台)京城紡의 京城工場(二萬三千錘 三千台)及 朝鮮棉花의 木浦工場(百二十台)에 不過하엿다. 그런데 最近 棉花增殖計劃과 低勞賃을 目標로 大紡績의 進出이 盛하야 東洋紡은 仁川工場(二萬二千錘 一千二百台)永登浦工場(二萬錘 千二百台)을 竣工하고 鐘紡은 光州工場(五百錘 千五百台)을 完成하고 다시 永登浦工場(五萬錘 三千台)도完成되엇스며 大日本紡도 京城附近에 工場을 計劃中이다.

이밧게 吉州에 北鮮製紙、永登浦에 大日本麥酒와 昭和麒麟麥酒、咸興에 朝鮮油脂等 그數를 未知이다. 特히 三菱及 野口를 中心한 投資의 開發及 火力發電을 爲한 日本電力發電、鴨綠江 豆滿江의 水力發電、茂山鐵鑛開發、朝鮮의 各種工業企業은 實로 鑛工業黃金時代라 할수잇다. 試하야 最近 資本金의 狀況을 보면 如左하다.

事業別	昭和九年十月 拂入資本	昭和十年十月 拂入資本
農林業	四六、六三〇千圓	六六、六〇八
水産業	六、五〇一	六、五六八
鑛業	一七、二四一	三七、六八八
製造工業	九四、三三一	一二〇、五四七
瓦斯及電氣	五九、四八二	七五、〇〇〇
銀行業	六一、〇六一	六五、八九
金融及信託業	一一、五四一	一四、〇六二
運輸業	三七、五七〇	五四、六六五
倉庫業	一二、三四六	一七、七〇一
保險業	一、三二九	一、三五五
商業其他	六三、七六五	一〇六、五三三
計	三五四、三一五	五九六、六六六

이것으로 보면 最近 四年間 農林業가튼것은 二割밧게 增加되지 안엇는데 製造工業은 約二倍以上이 增加되고 鑛業가튼 것은 三倍나 增加하얏다. 鑛工業의 發達이 얼마나 되엇는가를 알수잇다.

工業發達의 現著한것은 工産額과 貿易額에 잇서서도 볼수잇다. 明治四十四年 總生産額은 二億七百萬圓中 工業生産額은 一千萬圓으로 六分七厘밧게 안되엇섯스나 昭和九年에는 總生産額 十七億三千九百萬圓中 工業生産額 四億八千萬圓을 算하야 農産額 五八%에 比하야 二割八分을 占하얏스며 昭和九年中 重要輸入品中 綿織物 四千三百萬圓、絹織物 一千八百萬圓 [illegible] 五十萬圓이 高額인것을 보면 朝鮮工業品이 [illegible]에 止하고 工業化함을 示하는것이 아니냐.



産業調査會의重大性

以上과가티 朝鮮의 經濟는 産米增殖計劃의 結果 日本內地의 農業과 衝突되어 南棉北羊主義로 轉換되지 안흘수 업게 되엇고, 日本內地에서 大規模로 發展한 鑛工業은 統制法이 업는 朝鮮에 進出하야 原料의 低廉과 勞賃의 低廉을 利用하야 鑛工業을 着着 建設하얏다. 이 現象은 經濟的 發展上 自然한 趨勢거니와 이 自然的 趨勢를 意識的으로 指導 建設하라한것이 昨年 十月 總督府에서 開催된 朝鮮産業經濟調査會다. 이 會는 總督府가 主催되어 委員長에 大野政務總監、委員에 總督府各局長、朝鮮及 日本內地의 有數한官吏、金融業者、學者、朝鮮及 滿洲의 首腦部 七十餘名으로 構成되엇는데 大正十年 齋藤總督時代에 第一回 朝鮮産業調査會를 開催하얏스니 本會合은 第二回의 大會合이다. 이 會合은 全五日間 繼續되엇는데 南總督 以後의 最初의 重大한 會合이니만치 朝鮮經濟의 轉換을 結成할 것이엇서서 朝鮮서는 어떠한 任務를 遂行할것이가와 朝鮮의 經濟를 農業偏重主義로부터 農工併進主義로 나가게 어떠한方法을 取할가를 總督府가 委員會에 諮詢한 會合이다.

近代經濟化의推進策

이 會合은 相當한 波瀾을 보앗스나 如左한 重要答申案을 確保하얏다. 即

一、工業原料 農産物의 增産
一、農林鑛物處理方法의 合理化
一、重要鑛物의 採掘獎勵
一、鑛業經營의合理的發展
一、電力統制計劃의 圓滑한遂行
一、國策上特히 國防上 重要한 工業에 對하야는 特別한 保護를 講究할것
一、海外直通航路의 設置
一、資金疏通、損失補償制度創定
一、交通機關의統制
一、實業敎育의徹底

等 말하자면 朝鮮經濟의近代化의 推進策에 不外하얏스나 從來의農業第一主義가 如何히 鑛工業主義 原料工業主義 國策主義로 轉換되는가를 알수잇다. 特히 茂山鐵鑛의 開發, 鴨綠江水力의 發電等等을 具體的으로 指摘한 것은 如何히 工業化가 急한것인가를 示하고 남어지 잇다.

工業化와統制問題

그러나 朝鮮의 工業化問題는 그다지 單純한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朝鮮엔 비록 工業이 發達되지 안엇기때문에 工業을 建設함에 잇서서 資本과 技術과 勞力을 드리면 못될바 아니나 그生産品의 販賣에 들어서는 朝鮮內 同種企業間 及 日本內地의 그것과 衝突되지 안을수업다. 最近의 例를 보드래도 세멘트工業에 잇서서 聯合會와 小野田의 對立抗爭이 激烈하고 小野田은 日本內地에 덤핑을 盛히하야 日本內地業者를 困苦케한것은 가장 顯著한 事實이어니와 將次 朝鮮窒素가 五十萬噸의 生産力을 가지는 날엔 朝鮮서 四十萬噸이 需要되고 約十萬噸의 對日本內地 移出이 可能하다니 日本內地業者에 重大한 問題를 이르키지 안흘수 업다. 이와가티 朝鮮工業化는 希望하는바이나 日本內地와의 衝突關係 朝鮮內 同業者間의 衝突關係가 잇서서 商工省側에서는 重要産業統制法의 朝鮮適用을 徹底的으로 主張하얏슴에 對하야 朝鮮總督府側은 朝鮮의 特殊事情을 들어 産業統制法은 朝鮮의 工業化를 妨害한다하야 反對하얏다. 이리하야 結局 漠然한 妥協案으로 꼿을 막엇스니 日本內地工業과 摩擦을 生하는 工業에 對하야는 調停策으로서 重要産業統制法의 發動도 不得已하나 될수잇는대로 朝鮮의 特殊事情도 考慮하야 發達途上의 朝鮮産業의 萌芽를 摘取치 말도록 한다는것이다. 이것으로보면 工業化途程에 잇는 朝鮮經濟는 先進社會가 걸어온 自由競爭的 發達을 보지 못하고 統制와 制限미테 만흔 迂廻曲折을 지나서 發達되어 갈줄 알수잇다.

金融의統制 改革問題

工業化問題와 아울러 必然的으로생기는 問題는 金融統制機關問題다. 現在 朝鮮의 金融機關은 朝鮮銀行, 殖産銀行, 貯蓄銀行, 普通銀行, 金融組合, 東拓等이 잇는데 朝鮮銀行은 大藏省의 監督을 밧는 關係上 朝鮮內의 經濟에 關心을 크게 갓는것보다도 對日本內地關係에 左右되며 [illegible] 滿洲로 一大進出을 試하얏스며 大戰後 反動으로 一大損失을 보아 資本金 八千萬圓을 [illegible] 減資하게 되엇다. 滿洲事變以後는 滿洲에 全力을 傾注하다가 滿洲國의 [illegible] 統一後 朝鮮內로 集中하라는 形勢에 이르럿다. 이리하야 朝鮮內에서는 朝鮮銀行의 活動이 적고 도리혀 不動産銀行인 殖産銀行이 朝鮮總督府의 監督下에 잇스면서 商業金融을 取扱하야 그勢力을 擴張하게 되어잇다. 昨年 一月現在의 金融機關의 貸出狀況을 보면 朝鮮銀行이 一億圓인데 對하야 殖銀은 四億餘圓이오, 金組, 貯蓄銀行을 合하면 無慮 五億이며 預金現額을 보드래도 朝銀이 七千萬圓인데 對하야 殖銀은 一億二千九百萬圓이다. 이리하야 朝鮮銀行은 今次 滿洲撤退를 機會로 朝鮮의 分野를 回收하라하고, 殖銀은 [illegible] 안흐려하야 相當한 波瀾을 불것이어니와 調査會는 兩者를 統一하는 統制하야 金融의 圓滑을 圖하는 바 따로 五千萬圓의 金融會社를 設立하야 工業資金의 圓滑을 期하라 한것이다. 眞一이 實現되면 金融界에 一大改革이 生할것은 定한 理致다.

經濟新段階

朝鮮産業經濟調査會는 如上의 重大한 答申案을 可決、提出하얏거니와 그 委員이 모다 總督府에서 任命된 이니만큼 그 委員會의 答申案을 거이 採用할것은 疑心할 餘地가 업다. 即 京義中央線의 一部라고할만한 京釜中央線의 建設費、茂山鐵鑛開發費、棉花、緬羊獎勵費、燃料液化助成費等等을 滿載한 明年度總督府豫算案이 閣議에서 正式으로 決定되고 鴨綠江水路共同技術委員會, 鴨綠江架橋協定이 成立等되는것等은 모다 이 調査會의 答申案이 着着 實行되는 證左가 아닌가.

이리하야 朝鮮에는 從來의 農業第一主義、食糧供給主義로부터 農工併進主義、原料工業主義로의 轉換을 必然的으로 具體化하게 되엇거니와 이것이 實現됨에 따라 經濟的 社會的 重大한 變化가 생길것은 想像할만하다. 即 資源開發及 工業建設에 依한 資本의流入은 農村人口의 都市集中을 招來하고 都市의 生産化는 農村의 疲弊를 促할것이 아닐가. 딸아 그 輸移出商品은 日本內地及 滿洲에 重大한 變化를 이르킬 運命에잇다.

朝鮮은 將次 分散的 農村經濟로부터 集中的 都市經濟로 轉換하야 새로운 經濟的 社會的 生活을 맛보게되엇다. 人情 風俗도 이에 變化가 생길것도 推測키 不難하다.(終)

丙子災年과 農村經濟

盧東奎

一、年初의形便

丙子年初頭에 農村經濟에對한 一般的形便은 엇더하엿던가 지나간해(乙亥)의 農作은 平年以上이엿고 農産物價格은 比較的騰貴하야 一般으로 米穀景氣를 떠들고잇섯다 筆者는 이所謂米穀景氣에 對하야 다음과가튼 觀察을 試한바와갓거니와 丙子年初 農村形便을 回顧하기爲하야 이제其大要를引用하겟다

所謂 米穀景氣라는것은 幻想에不過하다 農産物價格의 騰貴라는것은 其實은 農産物價格이 若干 回復하얏다는데 不過하다 即 農業恐慌이 絶頂에達하얏던 昭和七年에는 其前의 好景氣年인 大正十三年에比하야 農産物價格은 約四割五分가 低落하얏섯다 그런데 昭和十年(乙亥)에는 農産物價格이 昭和七年에對하야 若三割이 騰貴하얏다 다시말하면 農産物價格은 아직 덜 回復하엿다 이것이 所謂米穀景氣라는것의 實狀이엿다 그러나何如間 農産物價格이 騰貴하엿스니까 農村經濟가 昭和六、七年의 農業恐慌期에 比하야 有利하게된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其利益의 大部分은 中間商人과地主의손에 드러갓고 高利貸와金融資本의 품속으로 드러갓고 公課負擔의增加와 肥料其他工産品價格의 騰貴로相殺되야 實質的으로 農村經濟를 潤澤케하고 農家經濟를 向上케한바는 極히적엇다.

어쨋스나 丙子年은 米穀景氣의소리와 가치왓다 그러나 一方에는 丙子災年의 迷信論도 相當히 소리가 노펏던것도 事實이다.

二、丙子災年은果然인가?

丙子災年說의 어리석은 迷信인것은 두말할것도업다 그러나 지나간 丙子年(西紀一八七六年 高宗十三年)의 大旱災의 뒤를이어 이번 丙子年에도 또다시朝鮮에는 大水害와 大凶作을 보게되엇다

먼저 米作을 두고보면 第二回米收穫豫想高가 二千十九萬石이라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米收穫統計作成方法의 改良으로因하야 從來의 統計方法보다 增加한것이니 이것을 從來收穫高와 比較하는것은 無意味하다 從來의 方法에依한 收穫豫想高는 一千五百五十七萬石으로 昨年實收高一千七百八十八萬石에比하야 二百三十一萬石(一割二分九厘)의 減收이요 이것은 過去五個年의 平均收穫高 一千六百九十萬石에 比하야도 一百四十二萬石(八分四厘)의 減收요 昭和四年의 一千三百七十萬石以來의 大凶作이다

米作이그러할뿐아니라 田作도 大凶作이다 粟의收穫高는 四百九十八萬石으로 昨年보다 十二萬石이 增加한것을 例外로하면 麥類는 一千四百萬石을 昨年보다 一百九十萬石(一割五分五厘)의 減收요 大豆는 三百九十萬石으로 四十六萬石(一割七厘)의 減收요 棉花는 一億四千九百萬斤의 豫想으로 昨年보다 九千四百萬斤(三割二分)의 減收다 果實類도若干減收다 農家副業의 大宗인 養蠶에잇서서는 春蠶의 收繭量은 一千四百八十六萬瓩으로 昨年春蠶보다 十八萬瓩의 增收를보엇슴은 무엇보다도 多幸하엿다

이가티 丙子年은 또다시 凶年이되엇다 그러므로 一般民衆에게는 丙子災年의 迷信을 더욱깁게 하엿슬것이다 이에筆者는 朝鮮史上에서 丙子年은災年이엿든가를 차저보기로 하엿다

朝鮮總督府編纂의 『朝鮮의災害』의 調査에依하면 新羅建國以來의 丙子災年은

新羅婆娑王十七年(西紀四九六年) 五月大雨
新羅元聖王十二年(同七九六年) 京都大饑
高麗靖宗二年(同一〇三六年) 旱
朝鮮肅宗二十二年(同一六九六年) 大饑
同 英祖三十二年(同一七五六年) 大饑
同 純祖十六年(同一八一六年) 黃海道大雨
同 高宗十三年(同一八七六年) 夏旱大饑

以上과가치 七回의 記錄이잇다 그런데 新羅建國이 西紀紀元前五十七年이니까 只今까지 一千九百九十四年間에 三十四次의 丙子年을 經過하엿스니 四、七年에 對하야 一次의 災年이잇슨셈이다 그런데 前記한『朝鮮의災害』에 依하면 新羅建國以來 李太王二十九年(西紀一八九二年)에至하는 一千九百四十九年間에 旱害及饑饉三〇三回 洪水一七二回의 記錄을 列擧하엿다 (其外에風災、地震、霜災、火災의 記錄이잇스나 이것은凶年과關係가적으므로 除外함)兩者를 合計하면 四百七十五回이니까 四、一年에 一次의 災年이 잇슨셈이다 그리고보면 丙子年의 平均은 四、七年으로 總平均四、一年에比하면 丙子年에災年이 도리혀 比較的적엇다는 것을 알수잇다

上述한바에依하야 丙子災年의 迷信은 根據가업는것을 알겟스나 何如間 朝鮮에는 지나간二千年間에 不完全한 歷史的記錄에依하더라도 大略四年에 一次式災年이잇엇스니 朝鮮의『災害國』이라는것은 숨길수업는 事實이다 또 丙子年을두고보더라도 肅宗二十二年丙子以來 連續五次의 丙子年을合하면 災年의 記錄이잇다 그뿐아니라 世祖元年(西紀一四五六年)에는 王位纂奪의 大變亂이잇섯고 仁祖十四年(西紀一六三六年)에는 所謂丙子胡亂이라는 大外寇가 잇엇다 그럼으로 丙子災年의 迷信이 생긴것도 首肯할만하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災害에對한 科學的 分析을 要求하게된다

—(계속)—

謹賀新年

新上

咸南定平郡長原面
長者金山
金利先 李基英 朴基鈺

定平官公署團

咸鏡線新上驛前
新上農園

咸鏡線新上驛前
大衆醫院
姜濟卓

咸鏡線新上驛前
新上購買組合

咸鏡線新上驛前
新上釀酒所
主 李學永

咸鏡線旺場驛前
永平金山
李鍾萬

新上和信連鎖店

春柳水利組合

新上郵便所
所長 天野規矩一

定平郡歸林面
醬油肥製造業
韓丙熙

新上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鏡線新上驛前
三星精米所

北鮮養鷄研究所農場
振替口座京城一八三四四番

定平郡文山面
職員一同

咸鏡線新上驛前
平和醫院
楊泰郁

文林水利組合

崔泰璉 李完燮
李東淑 金晋九

定平郡歸林面
職員一同

定平郡春柳面
職員一同

漢川

平壤府新陽里一七〇
普通門入口バス停留場前
和洋家具 卓子椅子 衣籠門子 製造販賣
德圓木工社
李炳來 洪鶴 承洙
金淵浩 基業

漢川市
崔正洙

天寶面土鑛業所
吳世昌

青山面松峴里
金元台

平原郡漢川市
崔永翊

道評議會員
韋基喆

東京醫院長
金淵祐

崔贊洙

平原郡漢川港 漢川漁業組合
理事 盧承燐

平原郡漢川市
綢緞布木 洋品細物 衣籠衣藏
平和商會
金觀濩

平原郡學校評議會員
醫師 尹斗夏

專賣所長
康國善

定平郡歸林面
醬油肥製造業
金龍範

定平郡歸林面
醬油肥製造業
張斗鴻

長原面事務所

咸鏡南道定平郡長原面
私立新成學校

新上穀物檢査所
職員一同

定平郡文山面
協議員 韓格孝

新上里金融組合
理事 金榮祐

咸鏡線新上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新上代行營業所

歸林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上
熊川健治郎

玄米、石油、肥料、海産物
三興商會

金鶴商會
金昇鶴

三五寫眞館
李現實

吳忠謙

漢興商店
綢緞布木洋品 細柳綿石織物
安相鉉

仁義精米所打綿酒類
河千一

漢川市
朴賢求

金融組合理事
朴宗均

漢川市 正進堂時計店
技師 俞希龍

漢川市
崔潤鍾

各種食料品
俊成製藥店

日增麵屋
黃呂根

正直屋

新明理髮館
金弼鉉

漢一洋服店
車善玉

漢川船具店
黃龍澤

順安

平安南道順安
安息教會附屬
順安病院

京義線順安驛前
中央麵屋
湯麵部 主 朴起龍

京義線順安驛前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順安營業所

京義線順安驛前
平安醫院
院長 安哲煥

京義線順安驛前
大和旅館
主 金午鉉

大同郡斧山面大陽里
金梓俊

順安義明學校

京義線順安驛前
西鮮大會事務所

京義線順安驛前
金完起

京義線順安驛前
穀物商信合商會
主 [illegible]義鳳

順安鐵物商店
主 吳順泳

京義線順安驛前
李源赫

京義線順安驛前
平安商會支店
主 金秉德

順安
全世杰

梨浦

梨浦市
百貨 廣信商會

梨浦郵便所長
崔應源

肅州郡大神面長
嚴柱寬

金沙面職員一同

肅州郡金沙面長
李建奎

肅州郡金沙面
廣務主任 鄭智桓

金沙面梨浦里
朴興烈

梨浦市
司法書士 申泰亨

梨浦里
金泰錫

對客親切
平壤樓
主 李道亨

料理業
長春館
主 李揆禹

梨浦市
李揆錫商店

朝鮮産業의 海外進出

對外貿易振興方法如何

(一) 李順鐸

本稿를 論하는 順序로 몬저 最近 朝鮮 産業經濟의 事情을 紹介하건대 現下 朝鮮經濟는 原始的産業 即 農業經濟로부터 近代的 工業經濟化하는 躍進途程에 잇다고할수가 잇다. 이를 最近의 統計에 依하야 보면 朝鮮産業의 總生産額이 農業 水産業 林業 鑛業及工業을 通하야 五年前 即 昭和六年에는 僅 十一億一千萬圓에 不過하든 것이 昭和五年에는 十三億圓 昭和八年에는 十五億五百萬圓 昭和九年에는 十七億三千萬圓 昭和十年에는 二十二億圓 그리고 今十一年에는 約三十億圓에 接近할 形勢이다. 그中

工産額

만을 보면 前記年度에 比較하여 該當한 年度에 各各 二億五千萬圓 三億一千萬圓 三億六千萬圓 四億三千萬圓 五億二千萬圓 今十一年에는 六億圓을 突破한 形勢이다. 다음에 貿易額을 드려보면 前記 各年度에 五億三千萬圓 六億三千萬圓 七億七千萬圓 九億八千萬圓 十二億一千萬圓 今十一年에는 十三億을 훨신 突破할것은 거이 確實하다. 이를 要컨대 過去僅僅 五個年間에 大體로 數字가 二倍半以上으로 增加되엿스니 朝鮮의 産業經濟는 어떤部門을 通해서든지 이와彷彿하게 躍進途程에 잇다고 斷言할수가 잇다. 또 生産 消費의 主體가되는 人口의 增加狀況을 본다면 朝鮮의 人口는 每年 千分之十三 乃至十五의 比率로 三十萬以上 三十五萬人式 增加되며 最近 國勢調査의 結果 二千二百八十五萬人에 達한다.

以上과 如히 朝鮮의 産業經濟는 各部門을 通하야 躍進하는대 이에는 幾多의 原因이 잇지마는 가장 重要한 原因만 드러본다면 朝鮮의 經濟가 日本經濟의 大圈內에 屬하여 잇는니만치 日本의 「이론코리」金政策의 波紋과 滿洲國發展에 伴한 朝鮮의 經濟的地位의 向上과 日本産業統制의 圈內에 잇슴에 따라서 日本內地의 大資本이 朝鮮으로 進出하는것과 朝鮮의 人口增加及 生活樣式改革 乃至 購買力의 增進等이라할것이다. 그러나 特히 注目되는것은 日本內地의 産業의 發展이 朝鮮에 向하야 大資本의 移出과 技術의 移植을 促進하얏다는것이다. 이 事情으로 因하야 農業中心의 産業機構는 漸漸 薄弱하여지고 資源開發과 工業發展은 急「템포」로 展開되여 朝鮮의 産業經濟의 轉向이 始作되엿스며 또 朝鮮 自體의 立場으로 본다면 發展性이 遲遲한

原始的

産業經濟로서만은 到底히 人口增加와 文化發達에 適應할수 업기때문에 漸次商工業化에로 轉換되지 아니할수 업게되엿다. 元來先進諸國의 例를보더라도 大體로 初期에는 原始的産業으로부터 漸次商工業으로 轉換發展해잇슨즉 世界經濟 圈內에잇는 朝鮮으로서도 이 一種의歷史的發展法則으로부터 脫出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런대 過去의 朝鮮經濟는 全然 日本內地의 經濟와 姉妹關係를 더욱 緊密히하기를 目標하엿다. 即 朝鮮은 日本內地에 對하야 食糧及 原料의 供給을 主로함과 同時에 그 産業의 移入을 目的하며 그로서 滿足하는 狀態에 잇섯나. 이것을 數字로서 例證한다면 더욱 明僚하니 即 昭和六年에는 四億四千萬圓 同七年에는 五億四千萬圓 同八年에는 六億五千萬圓 同十年에는 十一億四千萬圓 今十一年에는 十二億圓을 突破할듯 하야 이를 朝鮮의 總貿易額에 對比하면 每年 八割以上은 對日本內地의 移出入額이요 對外輸出入額은 每年 二割未滿으로서 昨年과 가티 躍進時期에도 僅히 一億六千萬圓에 不過하엿다. 이는 從來의 朝鮮의 經濟的構造로 보와 當然한 것이고 [illegible]

必然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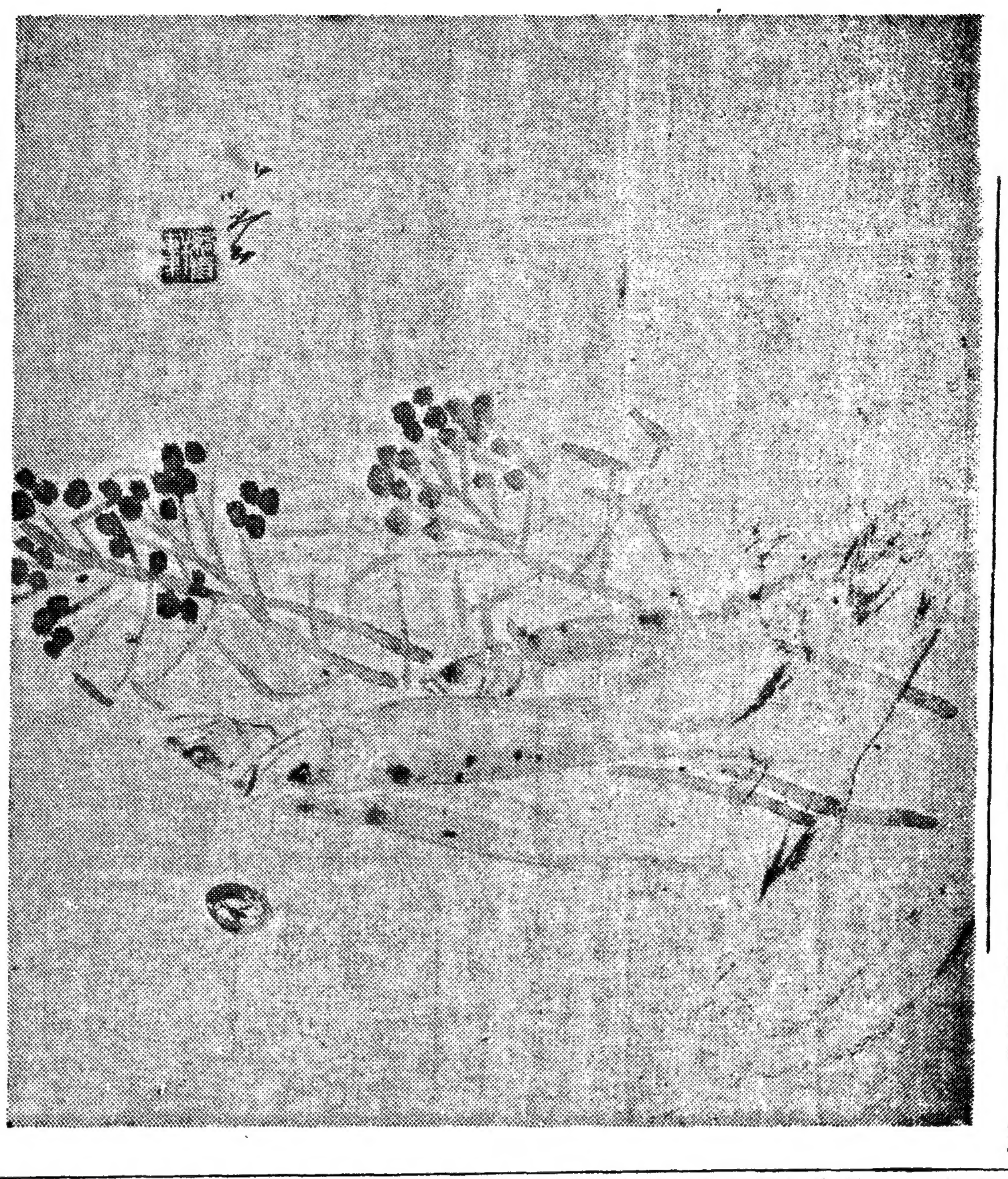
[illegible] 所以으로서 不可避的 [illegible]이라고 할수밧게업다.

以上과 如히 朝鮮의 貿易은 對日本內地의 [illegible]을 主로 依存하여잇고 對外國貿易은 不振하엿다. 따라서 從來의 朝鮮貿易은 自然히 農産品을 移出하고 [illegible]을 移入하엿는데 前者는 朝鮮經濟의 動向에 重大한 役割을하야 그 消長은 朝鮮의 景氣如何와 朝鮮大衆의 生活의 好惡을 決定하엿다. 前段에 한것과가티 朝鮮에도 對外國貿易이 全혀 업는것은 아니로되 이것은 移出되는 農産品의 不足을 補充하기 爲한 穀物輸入과 日本內地에 向하는 製品을 中繼하기 爲한 輸入이 그 大部分을 占하고 [illegible] 經濟自體로 因에의 海外貿易은 僅히 小部分에 不過하엿다.

以上과 如히 朝鮮의 貿易이 對日本內地에 偏在된것은 朝鮮經濟의 自體의 特殊地位와 朝鮮經濟의 本質上 어찌할수 업는 일이지마는 現下 朝鮮의 産業을 通하야 觀하면 朝鮮産業의 發展을 躍進의 初期에 잇스나 그 [illegible]內容에 잇서서는 漸次 日本內地의 그것에 接近하여가는 傾向이 잇다.

따라서

原始的産業에잇서서도 日本內地가 朝鮮에依存하는 程度는 漸次 減해가며 그가 希望하는것은 차라리 朝鮮의 産業의 發展되지 아니하는데 잇다. 即 日鮮工業의 摩擦關係 內鮮米穀問題等에依하야 周知하는事實이다. 作今 우리 —계속—



春姿十態 其一 以堂 金殷鎬氏筆

特殊會社解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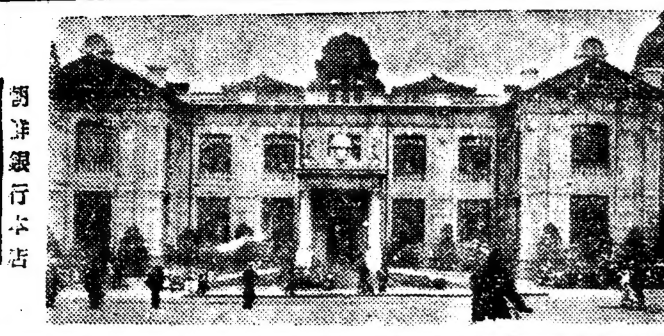
朝銀、殖銀、東拓、鮮滿拓殖等은 무엇들을하고잇는가

金麟伊

特殊會社라는것은 國策的意味에서 特히 制定한 法令에依하야 設立된 所謂半官半民의 會社를 指稱하는것이다. 朝鮮에서 이러한種類의 會社는 朝鮮銀行과 朝鮮殖産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와 鮮滿拓殖株式會社의 兩銀行과 兩會社가잇다 東拓은本社는 東京에잇스나 創業의歷史로보든지 事業의 本據로 보든지 朝鮮에 目標를두엇다할수잇다.

此等特殊會社는 朝鮮가티 土着資本이 貧弱하고 半封建的經濟組織을가진 會社體制下에 잇서서는 其本來의 特殊的好條件即 國家權力에 依한 鉅護下에 充分한伸長發展을 圖할수가잇다 前記四會社가 不過二千萬圓乃至五千萬圓의 公稱資本金을 가진 會社로서 幾倍의資本과資産을支配運用하고잇서 各其一個의 王國을 形式한大財閥의體系를 가추게된것은 朝鮮經濟의 好條件으로因하야 膨脹大하여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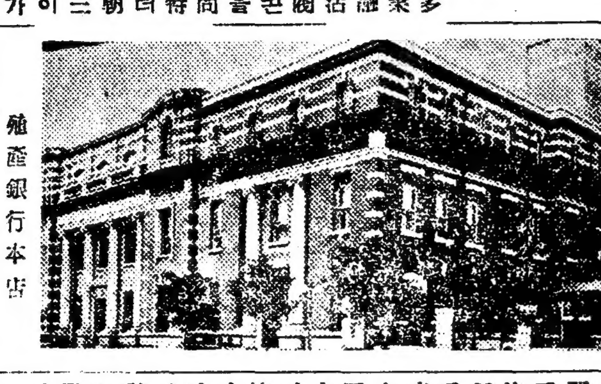
近來 朝鮮社會의 急激한資本主義的經濟로 發展하는 過程에잇서서 朝鮮銀行과 殖産銀行은 오직特殊銀行으로서만아니라 大金融資本團으로서 金融資本界에는 勿論 産業資本界에도其巨足을빼처 壓倒的으로 君臨하여 오고잇다 그리고 鮮滿拓殖會社는 最近에 新設된總督府의 對滿洲移民代行會社에 不過하다 東拓은 本來는 合併直後 日本內地農民의 朝鮮移植을 目的으로 創設한會社인데 約三十年間에 朝鮮에서 不動産金融을 通하야 土地林野를 取得한바도 多大하지만 近來에와서는 各産業部門에 對하야 或은 企業金融體로 或은 産業經營體로서 活躍하게되야 現在는 金融資本閥로 又는持株會社로서도 一大콘체룬으로 世上의 注目을 끄을게되엇다 따라서 最近 俄然問題化한 金融機構의 改革問題 特히 企業金融의 確立과 아울러 朝鮮金融機構의 調整問題는 朝鮮銀行 殖産銀行과 東拓의 三者의 事業分野 機能을 如何히 規定하야 如何히 運用케하겟는가 한 重大問題로되어잇다 總督府에서 新春에 金融機構調査委員會를 組織設置하야 朝鮮銀行과 殖産銀行의 分野確立 其機能의 再吟味와 企業金融에 關한 一大新會社의 創立等을 論議決定하려한다는데 그러면 此에依하야 今後前記三金融機構의 將來는 如何히될가 이에 金融機構調整問題와 아울러 此等四大特殊會社의 內容을解剖하여보고저한다



朝鮮銀行本店

朝鮮銀行

明治四十二年十一月에 韓國銀行 中央銀行으로 設立되야 合倂後朝鮮銀行法發布와共히 明治四十四年三月 朝鮮銀行으로改稱하엿다 最初에는 朝鮮內에서業務를 營爲함에 不過하엿지만 日本經濟圈이 漸次 大陸에 發展前進함에따라 海外銀行으로國策的使命下에 滿蒙에 進出하고 世界大戰을 前後하야 業務區域은 매우 擴大되야 日本內地의 金融市場은勿論 中國本土 露領西伯利亞 歐米金融市場에까지손을 빼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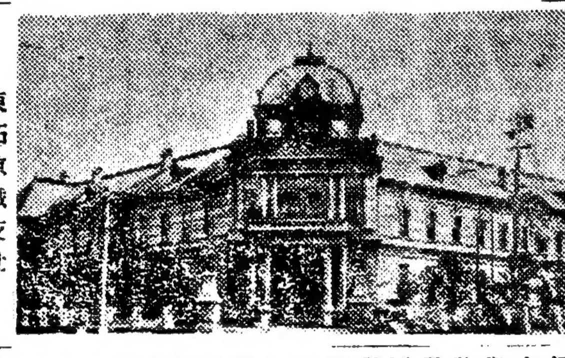


殖産銀行本店

朝鮮銀行은 中央銀行으로서發券權을 가지고 잇슬뿐아니라大正六年十二月에는 朝鮮銀行券으로써 滿洲에서의 日本金券을統一케되고 從來橫濱正金銀行에서 發行한金券을 引繼하는同時에同七年에는 橫濱正金銀行에서 取扱하던 國庫事務 까지도 繼承한結果 滿洲經濟界에도 貢獻함이 許多한同時 朝鮮, 滿洲를通하야 實權을 掌握하엿다 그러나 滿洲에서는 今般 滿洲興業銀行의 創立과同時에 다시 北中으로 進出하게되엿다

最初의 資本金은 一千萬圓이엇스나 大正六年에二千萬圓 七年에 四千萬圓 九年에 八千萬圓으로 順次 資本金을 膨脹增加식혓스나 大正九年初頭의 世界財界變動과 이어서 世界的經濟恐慌의 繼續 大正十二年의 關東大震災의 慘害等의 影響으로 大打擊을 박게되야 整理案決定과 同時에 大正十二年에 監督權은 總督府로부터 大藏省으로 移管되어 行務의 中心도東京으로 옴마갓다 이整理에 資本金도半減되고 積立金等으로써 回收不能한 不良貸金의 償却 日本銀行의 特融等의 便益을 어더가지고 鋭意 整理에 努力한結果 最近에는 業績도 回復되야 餘裕잇는 四分配當을 하고잇다 朝鮮銀行은 中央銀行이니만치 殖産銀行에 比하면 投資會社는殆無하야 겨우 朝鮮信託會社의大株主에 不過하나 그러나 中央銀行으로서 又特融關係로서 朝鮮內의 乙種銀行을어느 程度支配하고잇는것이 事이다

그러면 今後의 朝鮮銀行은如何할가 滿洲로부터後退하고 北中에 進出하는 一方朝鮮內에注力하려할때에 俄然金融統制가開題化하야 朝銀自體의 再認識하지 안흘수업게되엇다 이뿐만 아니라 最近에는 殖銀과의合併說 朝銀解體論까지 流布되며 또 一層發券制度를 日本銀行에 統一하려는 昭和九年來의 朝銀無用論도 侮視할수업는 論理를 가지고 登場하는此際에 元老格 朝銀은 大膽 오데로가는가? 創立以來 四半世紀朝鮮의 中央銀行으로서 朝鮮經濟開發에큰 足跡을印하엿는데 發券二千萬圓 內外로부터 二億圓을 突破식히 此間의 情勢進展은 同時에中央銀行으로서의 機能을稱揚하게하야 近來 金融事情의混亂을 招來하고잇는同時에 今回在滿支店의撤退가 斷行되자 더욱 朝鮮內의普通銀行의 業務分野에 侵入하지안흐면 안되게되야 이에 諸金融機關과의 摩擦은 다시 深刻化할 形勢이다 就中 政治的으로 異腹이라할수잇서 貯銀信託等을 引率한 殖銀과는 壓倒的前進과 正面衝突하게되야 最近에 이미 新義州의 貯銀 朝銀兩支店設置의 競合과 總督府의 滿面에 其事例를 示現하엿다 殖銀當局에 對한 朝銀의要求는 殖銀은 本來의 不動産金融에 도라가고 都市金融을 讓與하라는데 잇는데 마치 攝關하엿든 金融機構整備論이 産業經濟調査會를 契機로 俄然 有力化하야 兩者의 對立은 [illegible] 核心이되야이



東拓京城支社

것의 解決은 [illegible] 案件이 되엿다 果然이 問題는 不遠成案될 金融機構調査委員會에서 如何히 決定될는지 注目된다

統制工作에對한 朝銀의 自己再檢討의 結果는 保證準備를一億으로 倍加하며 發券力을 活用하야 低利資金의 放出 人的陣營의 刷新과 機構의 整備 監督權의 總督府還元等이 念願되엿에 北中進出을 企圖하고잇다 그러나 北中은 아직政治的動向과 經濟的地盤의 安定性이 滿洲에 比할만한 現狀도 못될뿐아니라 北中에는 橫濱正金銀行을 비롯하야 三井, 三菱, 住友等 各大財閥銀行이 長久한時日에다거노흔 地盤이잇서 巨大한財閥을 背景하여가지고잇는이만치 朝鮮銀行이 過去에 滿洲에서 獨舞臺로 活躍하든바와가티는 到底히 期待할수업슬것이다

朝鮮殖産銀行

大正七年六月에 總督府發布의 朝鮮殖産銀行令에 依하야 資本金一千萬圓을가지고 同年十月一日에 設立하는同時에 從來 朝鮮各地에 分立한 漢湖 農工 平安 全州 光州 咸鏡의 六農工銀行의本支店의 業務一切를 繼承하고 營業을 開始하엿다 其後 經濟界의 趨勢와同行業務의 發展은 資本增大의 必要를 늣기게되야 大正九年六月에 資本金을 三千萬圓에 增加하엿고 一方債券二億四千四百萬圓(昭和九年末)을 發行하엿다 現在 朝鮮內 樞要各地에 支店派出所等 六十有餘를 算하는外에 東京에 支店(大正八年)大阪에支店(大正十四年)을 設置하야 主로 債券發行의 事務를 取扱한다 그리고 朝鮮各地에 設置된 六百有餘의 金融組合과 連絡을 取하야 其資金을 供給하는勿論 産業界에 잇서 大小를 勿論하고 金融機關으로서 其開設에 多大한 貢獻을 하고 잇다 殖銀은 不動産金融 商業金融 公共團體에 對한金融等 各方面에對한金融을 一手에引受하야 莫大한利益을取得하야 經濟界의 恐慌時代에도 一割內外의 高率配當을 敢行하여온 朝鮮最大의 銀行이며 又日本內地의 六大銀行의 一로되엇다 (三和銀行誕生前까지) 이뿐만아니라 殖銀은 其支配하는 銀行會社도 多數로 彪大한 殖銀艦隊를結成하고잇다 即 朝鮮貯蓄銀行(資本金五百萬圓) 漢城銀行(資本金百萬圓) 朝鮮商業銀行(資本金一千萬圓) 朝鮮信託會社(資本金五百萬圓) 朝鮮火災海上保險會社(資本金一千萬圓) 朝鮮製錬會社(資本金一千萬圓) 朝鮮取引所(資本金五百萬圓) 朝鮮書籍印刷會社(資本金二百萬圓) 成業社(資本金二百萬圓) 京春鐵道會社(資本金一千萬圓)等 殖銀이支配하고잇는 主要한것을 上記하여도 벌서 公稱資本金이 六千萬圓을 突破하야 殖銀自體의 資本金의 倍를 넘는狀態이다

殖銀은 이와가티 數多의 銀行會社를 大株主로 支配하고잇을뿐아니라 金融組合聯合會 各道會社 各電氣會社 各種鐵道會社其他各方面의 産業資本까지實質的으로 支配하고잇서 彪大한 國家資本閥을形成하야 大殖銀벌럼으로서 前述한바와가티 朝鮮銀行을 凌駕하야 壓倒的으로朝鮮金融界에 君臨하고잇다 그럼으로 今日의殖銀은 朝鮮의 企業金融界特히 農村金融의 一特殊會社로서 日本勸業銀行과가튼存在가아니라 三井 三菱 住友와가튼 大財閥의銀行과 마찬가지로 大持株會社요 投資會社로서 一大콘체룬的存在이다

東洋拓殖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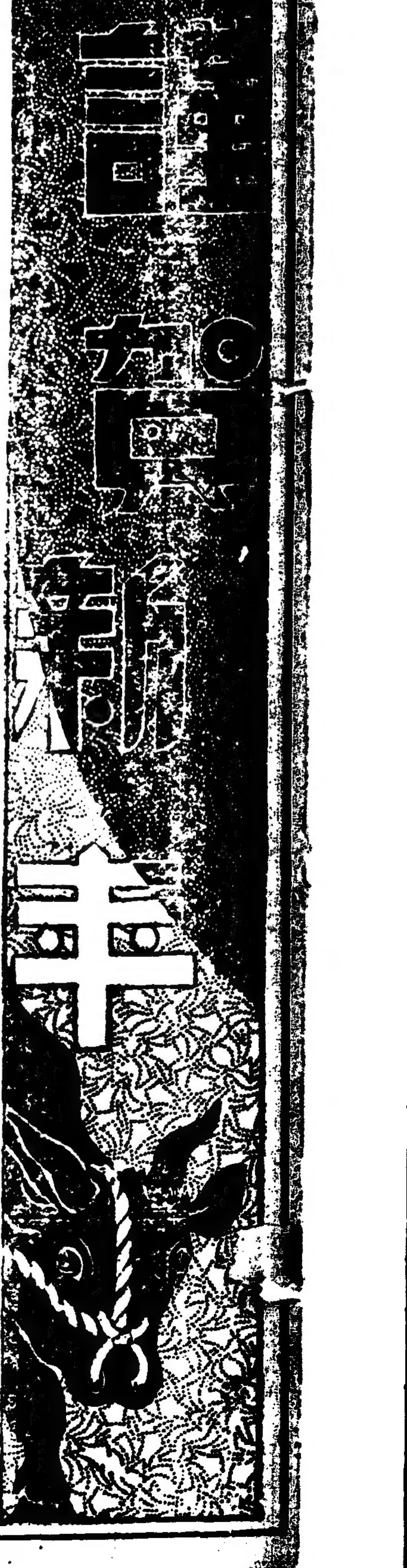
明治四十一年三月에 日本內地農民의 移民과 農業資本의 移入을目的으로 朝鮮拓殖株式會社法의 制定에 依하야 創立되엿다 創立當時의 會社는 朝鮮에잇서서 拓殖事業의 經營을 唯一한使命으로하야 未墾地의 開拓水利灌漑 農事의 改良 殖民及 拓殖資金의 供給等을 하야왓는데 大正六年十月부터는 朝鮮外에 海外에까지 業務區域을 擴大되야 本社를 東京으로 옮기게 되엇다 當初의 資本金은 一千萬圓이엇스나 其後 兩次의 增資로 現在는 五千萬圓이다 그런데 當社는 定期貸金을 取扱하며 拂込資本金의 十倍에 達하는 債券을 發行할수잇슬뿐아니라 政府의 保證下에 外國에서 社債를 發行할수잇다 그리하야 債券發行總額은 其間 五億二千三百餘萬圓에 達한中 三億三千萬圓을 償還하고 現在는 一億九千萬圓을 算한다

東拓은 昭和十一年六月末現在에 朝鮮內에잇서 各種貸付金額은 八千八百七十八萬一千五百五十一圓의 巨額에 達하엿슬뿐아니라 東拓은 朝鮮에서 所有한 畓이 三萬九千五十六町步 田이 一萬九千七百九十九町步 宅地가 七百二十三町步 山林이 十四萬二千三百三十四町步 雜種地가 三千九百町步 合計二十萬五千八百十二町步(以上昭和九年末東拓調査)에 達하야 朝鮮一의大地主이다 此不動産所有面積을보면 東拓이 過去 三十年間에 朝鮮에잇서 莫大한 土地金融過程에서 이것을 取得한것을 알수잇는 同時에 土着土地資本의 解體過程에 잇서서 東拓의 役割이 如何하엿든가를 窺知할수잇다 또한 이로써 朝鮮에잇서서 中小地主의 破滅의 過程에잇서 東拓 殖銀 其他大地主의 猛烈한 土地兼倂의 事實을 歷然히 證明할수잇는것이다

勿論東拓은 如斯히過去에 一大地主로서 又는拓殖金融機關으로 發展하여오니만치 大戰後의 財界의變動과 이에이어서 世界的으로 深刻하여온 農業恐慌의 影響을 크게바다 又金輸禁止後 外債元利支拂의 激增其他 放漫經營으로 一時는 無配當의 窮境에 陷落하엿섯는데 滿洲國誕生後 對滿投資의 回生 國內景氣의 昂揚에따라 近代工業에의 投資等으로 低率이나마 四分配當을 다시하게되엿다 特히東拓은 數年來 朝鮮에서 發電事業(富寧水力)鑛業(東拓鑛業) [illegible]

鮮滿拓殖會社

昨年九月에 鮮滿拓殖會社令에依하야 資本金二千萬圓으로 創設되엿는데 總督府의 對滿洲朝鮮人移民代行會社이다 從來에 東亞勸業公司와東拓으로하여금 代行식히든 總督府의 移民事業을此國策的特殊會社로하여금 大規模로統一的移民을 實現하려는 意圖에서 設立한것이다 自己資本二千萬圓外에 資本金의 三倍에達하도록 拓殖債券을 發行할수잇스며 其他社債借入金等에依하야 滿洲移民八十五萬人을又朝鮮內의 朝鮮移民五萬戶를 實施하려는것으로 總督府에서는 八個年間에總額三百四十萬圓의 補給金을 支給하게되어잇다 元來此會社는純全히 國策遂行의會社로서 營利를 追求하는會社로는 期待할수가 업는데 同社의將來에는 여러가지 難關이 橫在하다 移民事業自體가 어려운 事業일뿐아니라 朝鮮의 滿洲移民問題에 잇서서는 滿洲側의 移民地域의 制限 計劃移民보다 自由移民의 統制와 集團化의 斡旋을 要求하는 滿洲側의態度 地價高騰에因한 土地買收의 困難等 前途實로 多難한데 同社에서는 新京에 滿鮮拓殖股份公司를 別로新設하여가지고 滿洲에서의 同社의 事業을 遂行식키고잇다 (完)



論山

論山郡城東面道上里 忠淸南道會議員 姜永植

扶餘郡內山面外山面 三合鑛山事務所 代表者 尹德炳 盧奉植 南宮璉 尹相覺 事務 金完根

論山郡農會

論山月曜會

論山旭町 天誠堂病院 院長 郭海鳳 電話二五番

論山旭町 至誠醫院 院長 金盡植 電話一八番

論山郡城東面定止里 面協議會員 盧奉植

論山本町 曺星煥

論山本町 海陸物産委托販賣業 朴文圭

論山面菁岩里 面協議會員 裵一煥

論山旭町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電話六二番

忠南論山本町通 蔘茸唐草藥材直輸入都散賣 有名洋藥 和一[illegible] 主 [illegible]

論山本町五三 米穀商 金吉培 電話十三番

論山郡恩津面官里 孫翰守

論山郡夫赤面阿湖里 夫赤面長 金顯實

論山勞働組合

論山面職員一同

恩津面職員一同

論山郡九子谷面職員一同

論山旭町 朴準喆

論山旭町 木材建築請負業 金永哲

論山榮町 米穀商 李在守

論山郡夫赤面外城里 外城書堂

論山旭町 中央商會 主 田漢復

論山郡夫赤面夫皇里 尹爽重

論山郡九子谷面新村里 李來化

論山本町 司法書士 金炳鉉 電話七五番

論山本町七二 朝鮮料理 中華料理 錦山食堂 主 尹貞玉 取次電話六三番

論山榮町 華山旅館 主 金亨泰

論山榮町 吳永根

論山榮町 李鳳甲

論山旭町 面協議會員 朴貞來

論山郡恩津面防築里 金完植

論山郡光石面梨士里 吳淳根

論山郡夫赤面外城里 李星魯

論山郡夫赤面外城里 李青魯

論山郡夫赤面外城里 金明善

論山郡光石面葛山里 金炳國

論山郡魯城面邑內里 文龍周

論山郡恩津面土良里 李圭靈

論山郡恩津面土良里 面協議會員 李俊世

論山郡恩津面南山里 面協議會員 丁文用

論山郡恩津面龍山里 面協議員 方永錫

論山郡恩津面奈洞里 面協議會員 林瀅鉉

論山郡恩津面防築里 面協議會員 曺龜煥

論山郡恩津面防築里 曺圭弘

論山郡九子谷面東山里 面協議會員 金允中

論山郡彩雲面中里 金吉鎭

論山郡夫赤面外城里 李哲榮

論山郡恩津面蓮西里 精米業 尹相吉

論山郡九子谷面金州里 朴漢來

論山支局 顧問 姜永植 曺星煥 盧奉植 支局長 朴鏞夏 記者 周明南 高敏浩 連山分局長 尹華重 記者 金文洙

丹城

山淸郡新等面丹溪里 和信連鎖店主 李萬祚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朴海柱

新等面職員一同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李百祚

山淸郡丹溪金融組合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朴海璽

柳海珪

山淸郡新等面丹溪里 和成商店主 朴魯倫

山淸郡三壯面洪界里 柳榮烈

山淸郡三壯面洪界里 曺敬甫

山淸郡三壯面洪界里 鄭明錫

山淸郡三壯面洪界里 柳震守

山淸郡三壯面石南里釀造場 金基銘

丹城金融組合德山支店 副理事 裵敬希

山淸郡矢川面院里 曺永煥

山淸郡矢川面德山市 李元玉

山淸郡矢川面 職員一同

山淸郡德山市貨車部 金永琪

山淸郡德山市雜貨商 金泰萬

山淸郡德山市釀造場 鄭昞基

山淸郡矢川面德山市 鄭在泓

德山産業組合 職員 許[illegible]

山淸郡新安面院旨 權仁德

山淸郡新安面院旨 高橋[illegible]院

山淸郡新安面院旨 李亨洛

山淸郡新安面新安里 李鎔根

山淸郡新安面 職員一同

山淸郡新安面下丁里 金尙根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奎圭

山淸郡丹城面倉村里 白南佑

山淸郡丹城面江樓里 權永鉉

山淸郡丹城面倉村里 李敎允

山淸郡丹城面立石里 權恩容

山淸郡丹城面淸溪里 鄭錫彝

山淸郡丹城面江樓里 朴灝洙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炳殷

山淸郡丹城面城內里 朱相彝

山淸郡丹城面虎里 鄭畬時

山淸郡丹城面虎里 鄭桀壽

山淸郡丹城市 孫熙鳳

山淸郡丹城市 朴章洪

山淸郡丹城面虎里 韓琦

山淸丹里面堂山里 河侃

山淸郡丹城面堂山里 閔台性

山淸郡丹城面堂山里 李曾壽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道午

山淸郡丹城面召南里 趙顯琦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奎煥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沈在寶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沈在萬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文國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受永

丹城面職員一同

山淸郡丹城面立石里 權復容

山淸郡丹城面官亭里 趙馨來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志洛

山淸郡丹城面官亭里 權再興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佑燮

山淸郡丹城面倉村里 李漢龍

丹城金融組合

山淸郡丹城市 安泰玉

山淸郡丹城面倉村里 金鳳祚

山淸郡丹城面淸溪里 鄭季弘

山淸郡丹城面淸溪里 鄭錫琰

山淸郡丹城面紫陽里 崔尙鎬

山淸郡丹城面召南里 趙在峸

山淸郡丹城面倉村里 孫權道

山淸郡丹城面吉里 梁宅洙

山淸郡丹城面倉村里 李炳灝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鉉錡

山淸郡丹城面沙月里 金祐達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晦根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尙彥

山淸郡生比良面道田里 沈巨

晉州郡金谷面儉岩里 李成洛

山淸郡丹城市

朝鮮日報丹城支局長 李炳敎